안전하고 편리한 구독신청
현대불교신문 전화 한통화로 해결하십시오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자동이체 신청 ●
대표 (02)2004-8211~2

현대불교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 연등제작사
031)792-6288/794-4055

붓다뉴스 동영상 제공 기사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12월 7일(음력 11월 6일) 수요일 (주간) 제 555 호

이혼·군장병 전문상담가 '실전 배치' 되는데

교계 손 놓았나?

이혼상담 법제화 눈앞… 전문교육 참여 불자 소수
장병기본권 상담관 9명… 목사 있어도 스님 없어

갈수록 커져가는 이혼문제, 군 장병들의 정신적 갈등으로 인한 군내부의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면서 정부가 두 분야에 대한 해법 마련에 나섰다. 어느 분야보다도 상담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전문상담가 제도를 시급히 도입하려는 것이다. 벌써 기독교계는 이에 상응해 빠른 대책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불교계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참여도 준비도 없다

올해 11월 16일 발의돼 올 12월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이혼절차특례법'. 이혼을 앞둔 모든 부부가 의무적으로 전문상담가에게 상담 받도록 규정하는 법안이다. 지난 10~11월에는 이혼상담 법제화방안에 대비해 '전국 이혼상담전문가교육과정'도 열렸다.

그러나 대회를 주최한 것은 기독교계가 주축이 된 '한국목회상담협회'였으며 참가자도 목회자 및 기독상담가가 대다수였다. 300여 명의 참가자 가운데 불교계 상담가는 단 15명에 불과했다.

교육대회에 참가했던 봉은사 포교국장 선업 스님은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의 법원내 이혼상담은 기독상담가들이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해 국방부에서 시범실시 중인 장병기본권상담관 9명 중에도 목사는 있지만 스님이나 불교적 상담 소양을 가진 전문상담가는 포함돼 있지 않다. 장병기본권상담가는 내년에 124명이, 2007년부터는 연대급 이상 모든 부대에 배치될 예정이지만 불교계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

또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1월 16일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 전문상담교사자격증 소지자 중 전문상담교사를 선발, 전국학교에 배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지만 불교계는 이 역시 강건너 불구경이다.

●상담전문대학 개설 준비중

현재 불교계에서는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을 지닌 동시에 불교적 마인드로 상담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배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상담교사 시험에 응시하려면 1급이나 2급 교사자격증과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갖춰야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현재 학교에 재직중인 교원들에 한정된다. 그러나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은 방학중에 운영하던 6개월과정의 상담교과를 2003년에 폐지했다. 학기중에는 교편을 잡아야하는 현직교사들이 종립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상담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

전문자격증을 취득한 불교상담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현재 활동중인 불교상담가를 하나로 결집할 수 있는 협회나 단체 또한 전무하다.

이런 가운데 불교상담개발원(원장 정덕)이 불교상담전문자원봉사자 양성을 위한 상담전문대학을 개설하고 법인등록절차를 밟고 있어 눈길을 끈다.

불교상담개발원 황선정 사무국장은 "현재 개발원에서 활동중인 자원봉사자 중 상담심리학을 석사 이상 전공하거나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회원은 전체 20%정도에 불과하다"며 "체계적인 불교상담 전문교육과 연구를 전담할 기구가 늘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행히 내년초를 목표로 불교상담가를 한 자리에 모을 '불교상담전문가협회' 개설이 추진되고 있다. 협회추진의 중심인 불교상담개발원 1기 상담원 담교 스님은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마련을 통해 상담가들의 허브 구실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 양성·관리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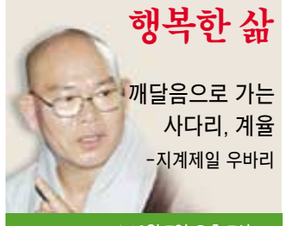
무엇보다 불교적 소양을 가진 전문상담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종립대학교 내 상담학과 설치'가 필수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불교정신을 기초로 한 불교상담학과를 개설, 교직과정 이수를 통해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얻거나 복수전공으로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신력 있는 자격심사기준을 마련하고 불교상담가를 양성, 훈련해 자격증까지 주는 단체도 다수 필요하다.

이미 기독교계에는 한국목회상담학회, 한국기독교상담심리치료학회, 상담대학원협의회, 한국영성심리치료협회 등의 기관이 있어 기독상담가를 조직적으로 양성할 뿐 아니라, 전국의 신학대학에 목회상담학과가 필수적으로 설립돼있다. 이들 목회상담가들은 이혼상담전문가교육대회를 공동주최 할 뿐 아니라 장병기본권 상담관 제도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금이라도 불교계가 나서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사회의 불자들은 마음치료를 타종교 상담가에게 위탁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부처님 10대 제자와
행복한 삶
깨달음으로 가는 사다리, 계율
-지계제일 우바리

철우 스님 | 12월 7일 오후 7시 | 광주 동구 KT정보센터



자비의 연말을…

또 한해가 저물고 있다. 올 한해 목표했던 일들이 얼마나 이뤄졌는가를 돌이켜 보고 새로운 한 해의 살림살이를 설계할 때다. 시민들의 발길이 바빠지는 도심에는 구세군의 종소리가 세모의 아쉬움을 대변하고 있다. 이웃이 없이 어찌 내가 존재하겠는가? 서울 종로에 설치된 구세군의 자선냄비에 '정성'을 담고 있는 스님들의 손에서 '자비로 가득한 세상'에 대한 희망이 느껴진다. 사진=고영배 기자

공원 입장료 폐지 요청
지관 스님 노대통령에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노무현 대통령과 이재용 환경부장관에게 잇달아 국립공원입장료 폐지를 요청했다. 관련기사 2면

지관 스님은 11월 30일 예방한 이재용 환경부장관에게 "현재 국립공원입장료를 문화재관람료와 분리징수 하는 곳도 있고 한꺼번에 받는 곳도 있는 등 일반인들의 불평이 많다"며 "입장료 폐지를 정부차원에서 검토해 볼 만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재용 환경부장관은 "(입장료 폐지에)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지관 스님은 25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만나 입장료 폐지를 요청했으며, 노 대통령은 "검토해보겠다"는 대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동우 기자

"지정분야 세분화 바람직"

'영산재' 기능보유자 늘려야 여론

영산재 보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세분화된 기능보유자가 지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11월 4일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기능보유자로 구해 스님이 지정된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다. 2000년 범패 부문 보유자였던 송암·벽응 스님이 입적한 이후 5년 여만의 지정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범패 부문은 구해 스님이 보유자로 지정됐으나 장엄과 작법 부문은 아직도 공석이다. 장엄 부문은 지광 스님이 입적한 96년 이후, 작법 부문은 2003년 일응 스님이 입적한 이후 보유자를 내지 못했다.

영산재보존회 회장 환우 스님(봉원사 주지)은 "영산재가 온전히 전승되기 위해서는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가 더 많이 나와야 하는데 이번에 보유자가 한 명밖에 지정되지 않아 아쉽다"며 "추후 지속적으로 심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범패 부문 기능보유자로 지정된 구해 스님은 "과거 범패와 작법, 장엄 부문에 모두 보유자가 있었는데도 이번에 범패 부문만 지정됐다"며 "앞으로 작법과 장엄 부문 보유자가 속속 지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류춘규 연구관은 "기량평가단을 비롯해 평가를 맡은 전문가들이 후보들의 기량과 품성 등을 고루 살펴보고 조사한 결과 보유자 자격에 걸맞는 분이 한 분뿐이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지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12월 16일 무형문화재 제도개선을 위한 국민참여 대 토론회 '무형문화재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를 서울고궁박물관에서 개최한다. 관련기사 23면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현대불교 신행수기 공모 마감임박

원고지 30매… 12월 17일 마감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공모가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신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귀중한 신행체험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주제 :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지 4장)
- 접수처 :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마감 : 2005년 12월 17일 ■당선작 발표 : 2006년 1월 1일자 본지 및 붓다뉴스
- 문의전화 : (02)2004-8239 ■이메일 접수 : bypark@buddhapia.com
- 시상 부문
  - 대상(유마상) · 우수상(본지 사장상)
  - 특별상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상, 태고종 총무원장상, 천태종 총무원장상, 관음종 총무원장상, 총화종 총무원장상,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상, 신수회장상

※각 부문 당선작에는 상장과 부상-행운의 금(최고 10돈) 열쇠를 드립니다.

영문 포탈부다피아 eng.buddhapia.com

'할'



그림·조태호

혜초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전선(케이블) / LED등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바닥에서 시공하여 올리기 전 모습


연등 자동장치 세틀 중 한틀이 준공된 모습 (불을 켰을때의 전경)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 합니다)

등불로전하는자비광명 찬덕연등

삼보에 귀의하옵니다.
저희 찬덕연등과 임직원을 성심껏 키워주신 사부대중께 감사드리며 이에 보답하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찬덕연등은 전통의 미와 현대의 감각을 잘 조화시켜 한국을 대표하며, 세계속에 우리 불교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소명을 갖고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ChanDuk Lotus Lamp


종등 각등 팔각접등 유등 공단등 육각조립등 팔각조립등 주름등(만월봉축등) 공단황금등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www.chanduk.com / 한글홈페이지 : 찬덕연등 / e-mail : chanduk21@hanmail.net

사찰명을 인쇄 할 경우 제작시간이 약 30일이 소요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주름등, 종등)

월 1만원 후원하면 연 1만명 군불자 늘어요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군포교비전21' 발표… '만인동참' 운동 등 전개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주지 일면 · 이하 군종교구)가 군포교 재정마련을 위한 '만인동참' 운동을 전개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군종교구는 11월 30일 열린 제37주년 '군승의 날' 기념법회에서 군포교 발전 청사진을 담은 '군포교 비전 21'을 발표했다.

'군포교 비전 21'은 ▲군 포교 자체 역량 강화 ▲전불교적 지원 시스템 확충 ▲조직적인 군 포교 시스템 확립 ▲계층별 군불자 관리시스템 도입 ▲군승활동 관리체계 확립 ▲포교 성과의 범불교적 확산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군종교구가 가장 역점을 두는 새해 사업은 이웃종단과 비구니 스님의 군승 파견. 군종교구는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국방부 및 이웃종단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이웃종단 군승파견 검토를 위한 종단협의체 구성에도 박차를 가할 생각이다.

군포교 후원체계도 강화된다. 군종교구는 예비역 군법사를 중심으로 '군승 미배치법당 지원팀'을 만들고 이들을 중심으로 군승이 배치되지 않은 260여 곳 군법당의 법회 등을 운영한다. 또한 후원 사찰과 포교사 결연사업도 범불교적으로 확대된다.

군포교 재정확보를 위해서는 매월 1만원씩 후원하는 '만인동참'운동이 적극 전개된다. 군종교구는 이를 통해 매달 1억 원씩 총 12억 원 이상의 군포교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계층별 군불자 관리시스템도 도입된다. 군종교구는 장군 불자, 영관급 불자, 부사관 불자 조직을 통합 관리해 국군불교총신도회 조직을 대폭 확대한다. 이를 통해 입체적인 불자 연결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보직변경, 타부대 전출시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군 신도회 조직을 강화한다.

군승들에 대해서는 포교 인센티브제도도 도입된다. 군종교구는 군승들에 대한 보수교육과 신세대 장병포교 효율화를 위한 연수교육 등을 실시하고 포교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군종교구는 현재 16만명 수준인 군불자수를 매년 1만 명씩 늘려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종교구는 군승후보생에 대한 입대 전 교육체계도 새롭게 정비한다.

또한 군종교구는 최근 군포교 전략 마련을 위해 자문위원단과 상임위원회를 구성했다. 자문위원단은 종책과 포교전략, 교육, 대외협력, 수익사업에 대한 전략 등을 개발하는 역할을 맡으며 상임위원회는 군종교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종책을 입안한다. 또한 군포교 전담연구원을 확보해 '군포교연구실'도 설치, 운영된다.

군종교구 주지 일면 스님은 "타종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포교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군법사 등 군포교 담당자들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범불교적으로 힘을 모으기 위해 이웃종단 군승파견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성사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종교구는 11월 30일 군승의날 기념법회에서 7군단 군종참모 경연수 법사에게 총무원장상을, 육군훈련소 박동진 법사와 공군교육사령부 박대용 법사에게 포교원장상을 수여했다. 글 · 사진=강유신 기자



'제2 도약을 다짐하는 '군불심(軍佛心)'. 11월30일 열린 제 37주년 군승의 날 기념법회에는 700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한 · 대만 불교 교류 활성"

리자이팡 대표 지관스님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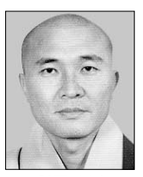
리자이팡(李在方) 주한 대만대표부 대표가 11월 29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해 양국 불교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리자이팡 대표는 "바쁜 일정이 지나면 제일 먼저 대만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관 스님은 "대만 불광산사는 사회사업 뿐 아니라 수행 등에서 뛰어난 활동을 펼쳐 마음으로 늘 선망했다"며 "대만 방문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남동우 기자

조계종 교육부장에 법장 스님

종삼 스님 등 종책특보 임명


법장 스님


현종 스님

조계종 교육원은 12월 1일 새 교육부장에 법장, 불학연구소장에 현종, 교육국장에 성혜, 연수국장에 법상, 불학연구소 사무국장에 명연 스님을 각각 임명했다.

한편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1일 종책특보에 중앙종회의원 법경, 법민, 성직, 원담, 토진, 운달 스님과 구례 화엄사 주지 종삼 스님을 각각 임명했다. 또 호법부 상임감찰에 혜만 스님을 임명했다. 남동우 기자

10·27 법난 진상규명 '노력'

대책위 종단지원 요청

조계종 10 · 27법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추진위원회는 11월 30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해 종단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삼보 스님(당시 상원사 주지)은 "사무실이 없어 10 · 27 법난 백서 등을 발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역사기념관이나 조계사 부속 건물에 추진위 사무실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남동우 기자

내년 예산 1억8천 의결

미륵종 중앙종회 개최

미륵종(총무원장 송정) 정기 중앙종회가 11월 28일 김해 관음정사에서 19명의 종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미륵종은 이날 2006년도 예산안 1억 8천여만원을 의결하고 종단기구 개편, 창종기념행사 개최, 2006년 해외성지순례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강유신 기자

태고총림 방장 혜초 스님 취임

중앙율원장 수진 · 강원장 금용스님 등 임명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이 태고총림 순천 선암사 방장으로 추대됐다.

태고종은 11월 30일 태고총림 선암사 대웅전에서 10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태고총림 선암사 방장 혜초 스님 추대법회를 봉행했다. (혜초 스님 법문 24~25면)

태고종은 이날 총림 인사도 단행했다. 선암사 중앙율원장에 수진(담양 용화사 주지, 해동율맥 제 11대 율사), 불교전문강원장에 금용(선암사 주지), 정수원장에 승조(선암사 부주지), 종정예경실장에 상명(前 선암사 주지) 스님이 임명됐다. 중앙선원장 지허(前 선암사 주지) 스님은 유임됐다.

수진 스님은 1969년 지광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묵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와 비구, 보살계를 수지했다. 금용 스님은 55년 석운 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뒤 광주 전남 종회의장 등을 역임했다. 김원우 기자

덕암 스님 부도탑 제막

선암사 부도전에 봉안

태고종은 11월 30일 종정 혜초 스님을 비롯 원로회의 의장 일우 스님 등 10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선암사 부도전에서 덕암당 흥덕대종사 열반 2주기 추모기념 부도탑 제막식을 봉행했다(사진). 이날 제막된 부도탑은 북한산 태고사 태고보우 국사 부도(보물 제749호)와 같은 형태, 같은 크기(높이 4m)로 조성됐다.

글 · 사진/선암사=김원우 기자

▌조계종 국립공원입장료 폐지 요청 배경과 전망

자연·문화유산 효율적 보존위한 조치
조계종 관람료 수입 30% 감소…대안 마련
정부 "이용자 부담 원칙"내세우며 난색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노무현 대통령과 이재용 환경부장관에게 잇달아 국립공원입장료 폐지를 요청하면서 그 배경과 후속 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합동징수 따른 민원 해소

조계종은 먼저 국립공원입장료 및 문화재관람료 합동징수와 관련된 각종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공원입장료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2000년 참여연대가 국립공원 지리산 천은사와 설악산 신흥사에 대해 문화재관람료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합동징수에 대한 국민여론이 악화돼 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조계종은 국립공원이 이미 연간 2천만 명 이상 방문하는 국민휴양지이기 때문에 '이용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국가가 국립공원을 지정 · 관리하는 만큼 국가에서 입장료 수입액 약 240억원을 부담하는 것이 원래 지정취지를 살리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조계종은 입장료 수입액을 국가재정으로 부담하고 효율적 관리방안을 도모한다면, 국립공원 가치를 증대할 뿐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 또한 높일 수 있다고 전망한다.

▲체계적 공원관리 가능

조계종은 또 국립공원입장료를 폐지하면 자연문화유산 보존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이 성수기 대부분을 매표업무에 매달리고 있는 현실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가공원청'으로 승격시키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공원을 관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국민 서비스 또한 향상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입장료를 폐지하면 탐방예약제 또는 공원 입장객 총량제 등 국립공원 생태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보호조치가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생태체험, 문화해설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더불어 역사문화유산 보호 및 특성별 전문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조계종 대안 마련 준비 중

조계종은 이미 1997년 '관람료 위원회'에서 국립공원입장료 폐지를 결의했다. 또 2007년 입장료 폐지를 대비해 대안 마련을 위한 예산을 책정해 놨다.

조계종은 입장료를 폐지할 경우 문화재관람료 징수액 또한 약 30%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이를 감수하더라도 국민의 이해와 요구, 자연 · 문화유산의 효율적 보존을 위해 문화재관람료 징수방법, 징수위치 등 합리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관련 환경부도 입장료 폐지를 찬성하고 있고, 기획예산처에서도 올해 실제 이를 검토했지만 폐지에 따른 예산확보 문제와 '이용자 부담원칙'을 내세우며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공원관리공단측은 "입장료 폐지에 따른 추가 비용을 정부에서 보조해준다는 전제하에 입장료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7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황우석 박사님!

당신을 세계난치병환자의
등불이며 우리의 영웅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희망이라 부릅니다.

부산불교사회복지기관협의회

회 장 혜 총 스님
기획실장 박용하
사무국장 이춘성
간 사 김영곤, 서은해

■ 개금사회복지관 : 관장 혜문스님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 관장 정여스님
■ 낙동종합사회복지관 : 관장 임광수
■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 관장 정련스님
■ 부산시청소년쉼터 : 소장 지장스님
■ 사회복지법인 보현도량 : 이사장 정여스님
■ 사단법인 선양복지원 : 이사장 김수현
■ 사회복귀시설 컴넷하우스 : 원장 윤숙자
■ 양정청소년수련관 : 관장 범산스님
■ 용호종합사회복지관 : 관장 혜총스님
■ 함지골청소년수련관 : 관장 지일스님
■ 공창종합사회복지관 : 관장 명현스님
■ 금정청소년수련관 : 관장 정만스님
■ 두송종합사회복지관 : 관장 지현스님
■ 부산보현의 집 : 원장 이기표
■ 부산서부노인학대예방센터 : 소장 김영곤
■ 사회복지법인 혜원 : 이사장 원허스님
■ 상락저배산실버빌 : 원장 박용하
■ 양정재가노인복지센타 : 관장 혜총스님
■ 영주암어린이집 : 원장 범산스님
■ 화명종합사회복지회관 : 관장 유정스님

"현등사 사리구 내가 훔쳤다"

공주교도소 수감 서모씨 본지 인터뷰서 주장

가평 현등사(주지 초격)가 삼성문화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사리구 반환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등사 사리구를 본인이 훔쳐서 판매한 것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귀추가 주목된다.

이 사람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사리구는 명백하게 현등사 소유이며, 삼성문화재단의 장물 구입을 증명하는게 되어 향후 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행 문화재법에는 장물 문화재를 구입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공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서모(46)씨는 11월 24일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1980~81년에 나를 포함 4명이 현등사에 가서 3층 석탑에 있던 각종 문화재들을 훔쳤다"며 "그중 현등사 사리구가 있었고 사리구를 비롯한 문화재들을 중간 판매상 정모씨에게 넘겼다"고 주장했다.

"현등사 3층 석탑 주위를 삼각 크레인으로 고정시켜 놓은 뒤 유압기로 탑을 들어 올려 그 안에 있던 문화재들을 꺼냈다"고 설명한 서씨는 "사리구는 은제로 돼 있었으며 사리구 표면에 '현등사'라는 글자가 음각돼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서씨는 또 "최근 언론보도를 보고 현등사 사리구가 삼성문화재단측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필요하다면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 당시 상황을 증언하겠다"고 밝혔다.

현등사의 본사인 봉선사 총무과장 혜문 스님은 "서씨의 당시 정황에 대한 설명이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것으로 보아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서씨의 주장대로라면 삼성측이 장물을 구입해 보관하고 있는 것인 만큼 사리구는 현등사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또 "서씨를 증인으로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강신태 문화재청 문화재사범 단속반장은 "서씨의 발언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현등사는 지난 8월 22일 삼성문화재단을 상대로 "사리 2과와 사리를 보관한 은제 원통형 사리함, 사리를 담는 수정 사리호 등 3종의 불교유물은 사찰 내 3층 석탑에서 나온 것인 만큼 사찰에 반환해야 한다"며 서울서부지법에 민사조정신청을 낸 바 있다. 그러나 삼성문화재단이 반환을 거부해 민사조정이 결렬됐다.

공주=유철주 기자 ycj@buddhapia.com

천성산 또 표류하나

정부 "조사결과 문제없다" 공사 재개
대책위 "공식 보고서 안나와…약속 깼다"

천성산 문제가 또다시 표류하는가?

최근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청와대 측이 환경조사와 관련한 발언들을 쏟아내면서 천성산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1월 24일 조선일보는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의 말을 빌려 "환경조사 결과, 공사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오는 30일 공사를 속개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같은 날 "지율 스님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조사 결과가 회의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천성산 대책위는 약속을 깬 행위라며 흥분된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재철 간사는 "아직 공식 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결과가 어떻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은 결과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 어떤 발표도 하지 않기로 했던 약속을 깨는 것"이라며 "발언에 대해 사과하지 않을 경우 향후 모든 일정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간사는 또 "단식 후유증으로 고초를 겪고 있는 지율 스님에 대한 비상식적인 발언은 과연 정부가 문제해결의 의지가 있는 지를 의심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천성산 대책위는 12월 6일 부산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입장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 남기명 토목처장은 "조선일보의 보도는 기자가 기사를 잘못 작성한 것이어서 정정보도를 냈다"며 사과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한편 울산지법 형사3단독 장경식 판사는 "천성산 관통터널 공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지율 스님의 신병확보 차원에서 지난 3월 1차 영장 발부에 이어 10월 13일 2차 구금영장을 발부했다"고 11월 29일 밝혔다.

유철주 기자

익명의 불자 독지가 금강대에 1억원 쾌척

칠곡 삼명사 신도로 알려진 익명의 독지가가 금강대 장학기금으로 1억원을 내놓아 화제가 되고 있다.

삼명사 주지 성공 스님은 "장학금은 삼명사의 독실한 신도로 평생 농사를 지으면서 간부를 역임했던 부친 이동영 불자(3년 전 작고)의 유언에 따라 아들 이씨가 기증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생명나눔실천본부의 '생명의 날' 행사는 생명나눔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로 회향됐다.

생명나눔 두배이상 늘었다

2005생명의날 행사 개최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12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2005 생명의 날' 행사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지현 스님 등 각계 인사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지관 스님은 "많이 아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함께 생명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법어를 내렸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올해 전년보다 2배 이상 각막 · 시신기증 등의 장기기증희망신청자를 받는 성과를 올렸다.

김강진 기자

재가연대, 대중화 박차 총회서 내년사업 결의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 이하 재가연대)가 2006년에는 다양한 사업을 통한 대중화에 박차를 가한다.

재가연대는 11월 26일 우리함께 회관에서 2005년 정기총회를 열고 △재가불자 108인 종책모니터 그룹 결성 △청소년 종교문화제 개최 △한국참여불교대회 조직위 구성 등을 담은 2006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또 우리함께회관 2층에 'NGO 교육센터'를 개관해 각종 불교 강좌를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02)2278-3417

유철주 기자

불교계 황우석 교수 격려 이어져

황교수 수도권 사찰서 아침 · 저녁 108배 수행

부산불교복지관협, 지지선언

11월 24일 공식 기자회견 이후 칩거에 들어간 황우석 교수가 12월 2일 현재 수도권 지역의 한 사찰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우석 교수와 돈독한 인연을 맺어온 계성 스님(대구 유가사 주지)은 "황 교수는 아침 저녁으로 108배를 하면서 평상심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스님은 또 "황 교수의 의도와 다르게 일들이 벌어지면서 많이 힘들어 하는 것 같다"며 "불자로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황 교수를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교계 안팎에서 황 교수에 대한 지지와 격려도 이어지고 있다.

11월 25일 '황우석 교수를 위한 한국재가불자들의 모임'이 외호를 선언한데 이어 21개 복지기관으로 구성된 부산불교사회복지기관협의회(회장 혜총)도 황 교수를 지지하고 나섰다.

혜총 스님은 "불치병 환자들과 중증 장애인들의 유일한 희망인 황 교수의 업적이 손상되는 것을 막고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 의견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관련 단체들과 함께 황 교수 지원활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불자 네티즌들의 격려도 계속되고 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www.laybuddhist.net) 게시판에 글을 올린 ID길상화 네티즌은 "전화위복이 되어 더 큰 성취를 이루길 기도드린다"고 전했으며 ID법향은 "과학과 윤리의 벽을 넘어 자유자재한 진리의 세계를 열어 달라"고 부탁했다. 또 ID강명철은 "부처님의 보살행과 자비심을 늘 실천하시는 황 교수님, 힘내시고 연구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시기 바란다"고 힘을 실었다. 유철주 기자

내원암 담당판사 "소송제기 의문"

친일파 후손 땅찾기소송 현장검증 실시

친일파 이해창 후손들의 내원암 땅찾기 소송에 대한 1심 선고가 12월 중으로 내려질 예정인 가운데 담당 판사가 소송 제기에 대한 의문을 표시해 귀추가 주목된다.

11월 30일 내원암에서 열린 현장검증에서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2부 강민구 부장판사는 내원암 주지 재문 스님으로부터 사찰 현황을 듣고 "현장을 직접 보니 내원암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정당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강 부장판사는 또 "원고측 관계자들이 직접 와서 봤으면 소송제기를 안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봉선사 총무과장 혜문 스님은 "최근 연이은 친일파 후손들의 땅찾기 소송이 패소로 끝나고 있는 만큼 내원암 소송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원암 소송의 결심 공판은 12월 9일 열리며 올해 안에 최종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친일파재산환수에 관한특별법이 12월 7일경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유철주 기자

화재피해 흥복사 목조삼존불 좌상
문화재지정 해제 싸고 갈등

지난 10월 3일 발생한 김제 흥복사 대웅전 화재로 손상을 입은 목조삼존불좌상(전북유형문화재181호)의 문화재지정해제 여부를 둘러싸고 조계종과 전라북도가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계종과 흥복사(주지 우진)는 전라북도의 지정해제 움직임에 반발하며 "문화재지정 해제는 최후의 행정조치인 만큼 목조삼존불좌상의 지정해제는 복구 후에 판단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 유철 문화재전문위원은 "10월4일과 28일 두 차례 현지조사를 통해 보존관리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한 바 있다"며 전라북도가 복원 노력 없이 지정해제만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을 일축하고, "12월 7일 열릴 문화재위원회에서 삼존불좌상의 문화재적 가치의 존속 여부를 판단하면 이를 존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계종은 11월 24일 전라북도에 보낸 공문을 통해 △훼손된 삼존불좌상 복구는 문화재보존 · 복구에 있어 중요 사례가 될 것 △지정해제로 인해 삼존불좌상 보존 · 복구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 등의 이유를 들어 지정해제 진행 유보를 요청했다.

박익순 기자

조계종 사회복지대회 토론·유공자 공로패 수여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12월 14일 세검정 하림각에서 2005 사회복지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중앙승가대 김응철 교수가 '불교사회복지전문화를 위한 제언'을 발표한다. 이어 2부 축하 기념법회는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치사, 보건복지부 김근태 장관의 축사와 함께 불교사회복지 유공자 공로패 수여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02)723-5101 김강진 기자

4대 종교 이웃돕기 공연 15일 역사문화기념관서

불교와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등 4대 종교 성직자들은 12월 15일 역사문화기념관 문화공연장에서 '이웃과 함께 하는 오색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각 종단의 창작시와 연극, 합창 등의 공연이 선보일 예정이며, 부대행사로는 성직자들의 활동을 담은 사진도 함께 전시된다. 이날 수익금 전액은 국내 종교복지시설과 북한 동포 돕기 기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유철주 기자

동아시아불교학회 발족 9일 부산서 창립법회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적인 불교학회가 창립된다.

불교학을 비롯해 불교문화 전반에 대해 연구하게 될 동아시아불교학회는 백련불교문화재단(이사장 원택)이 후원하고 장성욱 교수를 비롯해 동의대 박문현 교수, 부산대 조명제 강사와 일본, 중국 등의 불교학자들이 참여한다.

동아시아불교학회 창립을 기념해 9일 오후 2시 부산 고심정사에서는 창립법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051)464-0068

박익순 기자

追 老天 月下 大宗師 2주기 추모재 募



〈월하대종사〉

月下 大宗師님의 茶毘式이 奉行 되던 날 밤, 하늘과 땅을 연결하여, 生 · 死가 하나임을 設해 주시던 일곱줄기 瑞光이 선명했던 기억이 어제 같은데, 벌써 2年이란 時間이 지났습니다.
다음과 같이 추모의 정을 올리고자 하니 四部大衆의 많은 동참을 기다립니다.

불기 2549년 11월 25일

● 일 시 : 12월 11일(음력 11월 10일) 오전10시
● 장 소 : 통도사 설법전
전화 : (055)382-7182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본사
영축총림 통 도 사
축산문도회 회원일동

방장 초 우
주지 현 문
합장

축산(구하) 문도회 명단

월은 월정 월주 월인 추봉 호경 혜각 월저 남호 월제 평곡 만성 경우 월남 월봉 월국
월면 보해 월륜 월성 재용 월공 월파 중광 중래 의천 지강 선우 청하 홍법 영철 초우
서주 현파 도열 목산 태응 상우 성파 운하 법초 종진 운성 성림 진철 혜남 현문 태봉
산옹 천진 철환 청운 상수 법진 법혜 법조 영도 지명 능연 성기 덕암 수안 일봉 법산
법천 현근 여산 동원 용문 현오 회암 가열 기후 지원 현초 중선 정산 대원 호성 신행
양일 석봉 덕수 진오 일현 자하 만성 종일 항조 목주 우인 성오 수원 동하 경담 자성
양진 영실 성윤 양우 영노 해원 관우 오심 만천 성현 남천 성본 노우 증도 증악 지운
방원 해중석 현광 지수 자고 기현 구성 해두 진명 오성 이지 삼해 이수 병천 성구
종원 기호 성열 성화 성법 양우 벽해 가열 소암 정우 재경 상경 영재 지용 현근 상운
진성 도응 문성 현기 현원 혜오 혜용 재진 도안 향과 도천 남현 삼경 동주 영수 지운
본원 준수 범해 정안 효선 원근 묘경 묘일 묘원 묘영 보문 묘행 묘산 양관 양행 보안
선준 묘신 호암 재원 재문 재홍 보화 보안 보응 보각 보광 명신 명일 명안 지문 도원
도웅 원천 양현 진산 장해 일승 진오 여해 영화 영월 영도 영봉 영경 석산 석담 수연
동륜 종원 등운 혜원 혜장 홍선 보덕 남도 남곡 남주 신광 정학 원정 원진 혜우 원묵
원범 정주 시광 명오 신화 원무 선운 마벽 선오 진성 상원 덕진 덕우 도문 덕월 덕문
시공 진공 우보 우학 보덕 남월 동진 효범 대안 조월 삼석 명덕 매물 광산 광석 시원
만행 대운 정로 증관 무진안 우진 범철 혜초 법진 정헌 태암 우암 소암 중암 성일
주봉 임성 유경 안치 동우 만오 만영 만초 진범 진목 진응 진명 진통 진무 현담 일과
일성 지범 지상 지봉 범준 보명 보원 지석 지성 지해 지철 범용 남곡 혜원 혜일 혜봉
혜안 혜월 혜안 혜종 혜광 혜인 무위 정인 정원 정무 설문 설운 영봉 영곡 영명 영선
광우 다원 성무 초중 혜완 선근 선행 선일 선오 선혜 선업 선열 선석 선원 선림 선종
선보 종봉 규봉 종선 종은 서상 서호 용은 서중 서초 도산 도행 도유 도국 현고 도선
만제 도연 도설 무심 도계 도증 자원 자금 혜성 혜원 영봉 영곡 영명 만일 각원 무유
각광 각현 무영 성원 성법 각성 각문 성지 성화 성전 각평 성안 성민 성밀 각심 성념
성재 성륜 각림 성래 원행 무천 신행 지무 무중 도피안 선철 선각 일법 세진 수운
자견 보인 도영 동일 동수 동명 명조 일법 진성 하유 한수 범우 랑림 용성 용주 용린
용제 용봉 용파 지성 만성 효성 종백 지묵 풍운 삼재 지선

축산승가회
오심 원진 지범 묘경 용은 현담 선혜 남곡 지봉 지수 선오 보화 태암 서호 대안 각평
도국 삼해 원범 보안 양현 주봉 매물 진성 청우 영랑 양관 만오 정무 남도 광석 각림
오성 도진 만초 무위 수연 각현 무적 자고 혜봉 지상 수운 성화 지욱 진범 〈무순〉

※ 축산문도회원은 수첩제작용 사진을 필히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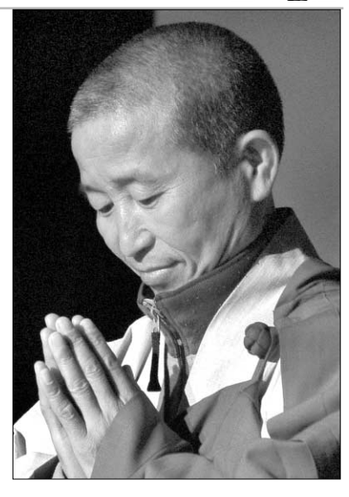
-부처님 10대 제자와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

제9강 : 이와같이 들었다 - 다문제일 아난다

강사 : 도법 스님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공동주최 : 광주 동구불교협의회- 현대불교

일시 : 2005.11.30 / 장소 : 광주 KT정보센터



'21세기형' 수행자 … 비구니출가에 결정적 역할



11월 30일 빛고을불교아카데미 아홉번째 강의에서 도법 스님은 "아난 존자야말로 21세기의 수행자들이 배워야 할 모든 것을 갖춘 분"이라고 말했다.

부처님 십대 제자 한 분 한 분 모두가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 가운데 아난(阿難 Ananda) 존자의 역할은 너무나 크고 중요합니다. 아난 존자가 계시지 않았다면 어쩌면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부처님, 그분의 가르침이 아득한 옛날 얘기로만 전해져 올뿐 그 내용을 직접 접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지도 모릅니다.

경전 자료들을 보면 아난 존자가 관계하지 않은 경전은 없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如是我聞)' 모든 경전의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난 존자가 부처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엮어 경전이 된 것입니다. '다문(多聞)제일'로 불리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가장 많이 들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들은 내용을 하나도 잊지 않고 온전하게 다 기억했습니다. 들은 내용을 그대로 기억하고 외우기도 하고 설명하기도 했던 아난 존자의 이런 역량이 없었다면 오늘날 불교경전은 성립되기 어려웠을 것이고, 성립되었다 할지라도 아주 작은 부분만 모아졌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난 존자에 대해 다시 알고, 깊은 고마움을 간직해야겠습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이후 20년쯤 되어 아난 존자가 부처님을 시봉하는 소임을 맡게 됩니다. 그때 아난 존자는 부처님을 잘 모셔야 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이기에 감당할 수 없다며 사양합니다. 그러나 선후배들이 간곡하게 부탁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때 '네 가지 원하지 않는 조건과 네 가지 원하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네 가지 원하지 않는 것은 첫째, 부처님께서 받으신 좋은 음식을 그에게 주지 않을 것, 둘째, 부처님께서 받으신 좋은 의복을 주지 않을 것, 셋째, 부처님이 거처하는 곳에 함께 지내지 않을 것, 넷째, 부처님을 신도들이 개별적으로 초청했을 때 함께 가자고 요청하지 않을 것 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을 시봉하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기대하거나, 오히려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을 불만스럽고 억울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난 존자는 정반대입니다. 부처님을 시봉함으로써 자기에게 돌아올 수 있는 유리한 조건들을 거부합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가 대단히 주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부처님 시봉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해줘야 한다고 제시하는 조건입니다. 첫째, 부처님을 청했을 때 받아주실 것, 둘째, 신도나 스님들이 찾아와서 부처님을 뵙고자 청했을 때 말씀드리면 부처님이 받아주실 것, 셋째, 의문이 생기는 것이 있을 경우 질문하면 부처님께서 기꺼이 대답해 주실 것, 넷째, 아난 존자가 함께 하지 아니한 자리에서 설법을 할 경우 그 법문의 내용을 아난 존자에게 다시 들려줄 것.

이런 네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정리하자면 자기에게 현실적인 이익이 돌아올 수 있는 편한 것, 좋은 것은 근본적으로 거부하고, 불교를 공부하는데 필요한, 또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부처님께서 해주십사 하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난 존자의 면모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아난 존자는 비구니 출가를 허락받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마 아난 존자가 아니었다면 비구니 스님은 불교 역사 속에서 탄생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느날 부처님을 키워준 어머니가 부처님을 찾아와 여성도 수행을 하고 싶다며 여성의 출가를 청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아예 그런 이야기를 두 번 다시 하지 말라고 냉정하게 말하고 길을 떠나버립니다.

그래도 부처님 양모와 부인 야소다라, 석가족 여인들은 출가를 작심하고 출가사문들처럼 머리 깎고 낡은 옷을 입고 맨발로 500리 길을 걸어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부처님은 거절을 합니다.

이때 아난존자가 부처님께 여쭙니다.

"세존이시여, 여성도 수행을 잘 하면 해탈할 수 있습니까?"

"여성도 해탈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여성출가를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중생들로 하여금 해탈의 삶을 살도록, 깨달음의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펴는데 왜 여성에게는 그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이것은 옳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과의 관계속에 나 존재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셨습니까?"

아난 존자의 적극적이고 간곡한 청으로 마침내 부처님이 조건부로 여성의 출가를 허락하게 됩니다. 아난 존자의 인간적이고 지성적이고 현명한 노력에 의해서 비구니 스님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불교는 한마디로 '있는 사실을 제대로 아는 것' 입니다. <법화경>에 나오는 '여실지견(如實知見)' 입니다. 존재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고 아는 이것이 불교의 전부입니다. 무엇을 알고 무엇을 봐야 될 것인가. 먼저 자기 자신, 자기 생명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보다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이며 절실한 문제인 '나'와 '내 생명'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반야심경>에서 이야기하는 '전도몽상(顚倒夢想)'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생명은 내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네 생명은 너에게 있다고 하여 네 생명 따로, 내 생명 따로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것을 전도몽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이 없으면 내 생명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물에 의지해서 내 생명은 존재합니다. 이렇게 보면 물이 곧 내 생명입니다. 물이 병들고 썩고 죽으면 그것을 마시는 내 생명도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타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해가 없으면 내 생명은 절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태양에 의지해서 내 생명은 성립되고 태어나고 살아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일러 부처님은 '이것이 있음을 조건으로 저것이 있게 되고 저것이 있음을 조건으로 이것이 있게 된다'며 연기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명의 존재는 연기의 존재입니다. 온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내 생명은 존재합니다. 내가 곧 우주요, 우주가 곧 나라는 말입니다. 또 다른 표현을 하자면 자타불이(自他不二), 너와 나는 둘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이런 나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제대로 보고, 이해하고, 경험으로 터득하는 것을 불교에서 '지혜'라고 합니다.

어떤 것도 내 생명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내 생명을 이루어 주는 모든 대상을 내 생명처럼 존중하고 보호하는 삶을 불교에서 '자비'라고 합니다. '동체대비의 삶'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불교를 지혜와 자비의 종교라고 합니다.

부처님을 일러서 '복과 지혜가 원만구족한 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즈음에는 돈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큰 집, 많은 재산, 좋은 자동차, 세상 떠들썩한 명예와 출세하는 것 등등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을 복과 지혜를 구족한 분이라고 하는데 부처님이 돈이 많고, 큰 집이 있고, 권력이 있고, 재산이 많을까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의 논리로 보면 부처님은 그야말로 박복한 인간입니다. 밥그릇 하나 들고 집집을 돌아다니면서 밥을 얻어먹고 살았는데 얼마나 박복합니까.

그런데 그분을 우리는 지혜와 복덕이 원만구족한 분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분은 평화롭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돈 권력 명예 재산으로는 결코 우리삶이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도몽상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목을 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할까. 그것은 곧 지혜와 자비입니다.

지혜와 자비의 길을 통하지 않고서는 행복한 삶도 불가능합니다. 진정한 복은 지혜와 자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도몽상을 버리고 떠나면 바로 해탈이요 열반이며 부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에서 이해되어지고 실천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삶을 온전히 보여줬던 분이 부처님이고, 그런 내용을 가르쳐 줬던 분이 부처님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고스란히 잘 듣고 잘 기억해서 우리에게

질의응답

문 : 아난 존자는 25년간 부처님을 모시고 길을 다니시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도법 스님께서도 선재동자처럼 생명평화탁발순례를 다니시며 수많은 '부처'를 만나고 계십니다. 탁발순례의 의미를 들려주십시오.

답 : 저는 2004년 3월1일부터 전국 순례를 시작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만 리 가까이 걸었고, 이런저런 자리를 통해서 4만 여명 정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근본 가치이고, 궁극적 이상이기도 한 '생명평화의 삶을 어떻게 실현해 낼 것인가?'를 주제로, 우리 시대가 생명평화의 문화로 물결쳐서 흘러 갈 수 있도록 해보자는 취지로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걸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발로 건강하게 걷는 삶을 살지 않고서는 우리의 정신과 육체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사회의 많은 병과 많은 모순들이 양산되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걸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걸음의 중요성을 스스로 경험하고 우리사회에 걸음의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해 보자는 생각입니다

또 우리의 귀가 두 개인 것은 하나는 자기 소리, 하나는 바깥 소리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의 자기 소리를 듣는 귀는 거의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온통 바깥 소리만 듣고 있습니다. 자기 소리를 듣지 않는한 삶의 진실이 보이지 않아요. 걸으면서 듣고자 합니다. 정리 · 사진=이준엽 기자

중앙승가대학교 2006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정시모집 "나"군> 신입생 모집요강

본교는 대한불교조계종 교육법 제67조에 의해 종단에서 운영하는 종립대학으로서 대한불교조계종 「기본교육기관」 입니다.

① 모집학과 및 정원

계 열	학 과	일반전형	특별전형 정원외(재외국민등)	비 고
인문 사회	불 교 학 과	21	2	
	역 경 학 과	21		
	포교사회학과	21		
	사회복지학과	21		
합 계(명)		84	2	86

※수시모집 합격자 및 정시모집 동일학군 타 대학 지원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② 응시자격 및 전형방법

▣ 일반전형

◇ 지원자격

- 조계종 승려로서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06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위의 학력을 갖춘 타 종단의 승려로서 해당 소속 총무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전형방법

- 입학정원의 100%를 다음의 방법으로 선발함

고교내신성적	면접(인성)고사	합 계
40% (400점)	60% (600점)	100% (1,000점)

- 고교내신성적은 고등학교(검정고시 포함) 성적 중 학인이 지정한 우수과목 4과목만 평가함.

③ 원서교부 및 접수

◇ 장 소 : 본교 교학처

◇ 교부기간 : 2005. 12. 5(월) ~ 2005. 12. 28(수)

◇ 접수기간 : 2005. 12. 24(토) ~ 2005. 12. 28(수) 17:00까지

※ 단, 토 · 일요일은 접수하지 않음

④ 제출서류

1)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 1 부
2) 고교졸업(예정) 증명서 ····· 1 부
- 대입검정고시 합격자 : 합격증 사본과 성적증명서 각 1부
3) 고교생활 기록부 사본 (2006년 졸업예정자포함) ····· 1 부
4) 승적증명서 (• 타 종단 승려는 해당 총무원에서 발급) ····· 1 부
5) 주민등록등본 ····· 1 부
6) 사진(종단 의제규정에 따른 의제를 수한 반명함판 3×4cm) ····· 5 매
(2매 원서 / 3매 별도)- 사미(니)스님은 의제규정 준수 제출 요망
7) 총무원장 추천서(조계종 스님 외 타 종단 스님에 한함)

⑤ 입학원서대 및 전형료

1) 원서대 및 입시요강 : 3,000원
2) 전형료 : 60,000원

⑥ 전형일정

◇ 예비소집 : 2006. 1. 18(수) 13:00 ~ 14:00

◇ 면접 및 인성검사 : 2006. 1. 18(수) 14:00

※ 수험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비소집, 면접을 하루에 마칩니다.

⑦ 기 타

- '06학년도 신입생은 전원 수행관 입방 생활을 하여야 함.
단, 편입생 및 타 종단 지원자는 수행관 입방을 할 수 없음.

편 입 생 모 집 요 강

① 모집학과 및 정원

계열구분	학 년	학점코드	학 과	모집인원
인문 · 사회계열	3학년 (일반편입)	13	불 교 학 과	00명
		23	역 경 학 과	00명
		33	포교사회학과	00명
		43	사회복지학과	00명
	3학년 (학사편입)	14	전 학 과	00명

② 지원자격

- 일반편입 : 2006년 3월 대한불교조계종 승납 만 2년 이상 승려로서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 및 4년제 대학 2년 이상 수료자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학사편입 : 학사학위 소지 및 예정자로서 2006년 3월에 조계종 승납 만 2년 이상인 자

※ 타 종단의 승려도 위와 동등한 자격 및 학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편입 지원 가능

③ 전형방법 및 일정

- 신입학 전형일정과 같으며 서류(전적대학 성적) 및 면접전형으로 선발

④ 기 타

- 대한불교조계종 승려 중 2006학년도 사미(니) 편입생은 졸업 후 구족계를 받을 수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처(입시담당자)로 문의하시거나 학교 홈페이지 (www.sangha.ac.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법인 승가학원 중앙승가대학교

415-070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159-1 / ☎ (031)980-7713~5

종합불교복지타운 건립 본격화

사회복지법인 내원 '마하재활의료원' 기공
명상·참선 프로그램 도입 내년 10월 완공


마하재활의료원은 11월 26일 기공식을 계기로 종합불교복지타운 건립을 본격화했다.

5만여평의 부지에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장애인 재활의료원, 노인요양시설 등을 두루 갖추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펼치게 될 종합불교복지타운이 거제시에 건립추진 중이다.

사회복지법인 내원(이사장 정련)은 11월 26일 거제시 동부면에서 지역사회의료재활시설인 '마하재활의료원' 기공식을 갖고 종합복지타운 건립을 본격화했다. 이 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내원이 200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종합불교복지타운 건립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불교계 최초의 재활의료시설인 마하재활의료원은 서울 국립재활원, 경기도 삼육재활원에 버금가는 규모와 시설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재활 기구나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자부담 15억을 감내할 정도로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의지가 높다.

2006년 10월 완공 예정인 마하재활의료원은 1천여 평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로 60병상의 입원실과 진료실, 운동치료실, 임상심리검사실, 운동물리치료실, 산책로, 각종 부대시설 등을 갖추고 장애인의 재활을 돕게 된다. 특히 불교적 가르침이 녹아있는 명상, 참선 프로그램을 도입, 심신의 조화로운 재활이 이뤄지게 함으로써 재활의 신개념을 정착시키겠다는 포부다.

사회복지법인 내원이 거제시 동부면에 둥지를 튼 것은 지난 2000년. 미인가시설이던 '치자마을'을 인수해 2004년 최신시설을 갖춘 '반야원'으로 재건립했다.

내원 이사장 정련 스님은 "한때 마을 주민들의 반대도 심했지만 장애인들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소외계층에 대한 인식이 변화됐다"며 "복지타운 건립을 통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글·사진/거제=천미희 기자

사단법인 '동련' 불교구연동화대회 성료

상명 스님·장초희씨 공동 대상



사단법인 동련으로 새롭게 출발한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는 26, 27일 경북 청소년수련원에서 제40차 전국어린이지도자 연수회를 개최했다(사진).

전국의 어린이법회 지도자 3백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열린 이번 연수회의 하이라이트는 27일 열린 제1회 불교동화구연대회. 첫 불교구연동화대회임에도 78명이 예선을 거쳤을 정도로 관심이 높았던 이번 대회 본선에는 상명 스님을 포함 총 8명이 참가해 관심을 모았다. 경전 속 이야기와 부처님 가르침을 주제로 한 창작 동화를 구연한 참가자들 중 '관세음보살님의 선물'이란 동화를 구연한 장초희씨와 '모두 함께 아기새를 구했다'를 구연한 상명 스님이 각각 조계종 총무원장상과 조계종 포교원장상으로 공동 대상을 차지했다.

한편 사단법인 동련은 제1회 불교동화구연대회를 계기로 불교구연동화모임을 결성하고 구연 동화 전문가 양성에 나섰다. 대한불교교사대학 불교구연자격반 지도교사 박서영씨, 최숙희씨를 비롯 제1회 구연동화 대회 본선 참가자 8명 전원이 회원으로 참가했다. 천미희 기자

해인사 골프장 재추진 방지 설명회

가야산 국립 공원내 골프장 건설 재추진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주민설명회가 12월 1일 덕곡면 노인회관 앞에서 열렸다.

지난 7월 일부외지인사에 의한 부지 매입과 주민 설득 등 골프장 건설 재추진 움직임이 포착되자 골프장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응에 들어간 덕곡면 주민들은 주민설명회를 통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마음을 모으고 의지를 다졌다.

현재 해인골프장 건설 재추진의 정황은 보이지 않지만 지난 여름부터 일고 있는 소문에 대한 현 상황을 모든 면민에게 상세히 알려 만일의 사태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것. 현재 마을 주민 900여 세대의 반대서명도 모두 받아 놓은 상태다.

덕곡면 지역기관단체장과 지역 면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주민설명회는 골프장 반대추진위원회 여보연 위원장과 김병환 총무의 정황 설명과 골프장 건설 반대 구호 제창 등 면민의 마음을 모으고 의지를 다지는 행사들로 진행됐다. 배지선 기자

'맑고향기롭게' 신년사업 발표

불교시민단체인 맑고향기롭게 대구모임(본부장 고경순)이 11월 25일 법당에서 '2005년 맑고향기롭게 대구모임 만남의 밤'을 갖고 2006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2005년에는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하는 자원봉사 활동에 많이 치중했다면 2006년에는 마음을 맑고향기롭게 하는 사업에 좀 더 신경을 쓰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법정 스님이 선정한 '맑고향기로운 책'을 읽고 토론하는 '책읽기 모임'과 '불교공부모임'을 결성할 계획이다. 또 요가 명상 퀼트 등 다양한 문화강좌를 개최해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자기개발의 기회를 주고, 일반인들에게는 문화강좌를 통해 자원봉사자 활동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 11월 11일은 농민의 날을 기려 국적불명의 빼빼로 대신 우리 쌀과 농산물을 주고받는 운동을 전개하는 등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하는 사업도 펼쳐나간다. 배지선 기자

법왕사 15회 백고좌법회 회향

대구 수성구 파동 법왕사(주지 실상)는 11월 30일 해인사 율주 종진 스님을 계사로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하고 제15회 백고좌 법회를 회향했다.

2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열린 보살계 수계법회에서 종진 스님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다섯 가지 기본조건이 신(信), 애(愛), 경(敬), 화(和), 인(忍)"이라고 강조하고 "힘든 일은 좋은 일을 하기 위해 씨를 뿌리는 작업으로 알라"고 법문했다.

지난 8월 20일 입제한 제15회 백고좌 법회는 매일 200여명의 불자들이 꾸준히 동참하는 가운데 100일간 100명의 대덕 스님들이 초청돼 화엄경과 법화경 법석을 열었다. 배지선 기자

'공룡세계엑스포' 성공기원

2006년 경남 고성 '공룡세계엑스포' 성공기원 대법회가 고성군사암연합회(회장 법진) 주최로 11월 27일 고성종합운동장에서 20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다.

통도사 방장 초우 스님은 이날 법어를 통해 "만국의 공룡들이 한자리에 모이니 동서고금의 일을 한 생각 속에 알 수 있다"며 공룡엑스포 개최로 나라와 가정의 평안을 발원했다.

이에 앞서 사암련 회장 법진 스님은 "공룡엑스포의 성공으로 심각한 환경문제를 온 인류가 반성해 세계평화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봉행사를 낭독했다.

이날 법회에는 고성군사암련 소속 70여개 사찰 사부대중 2000여명과 이학렬 고성군수, 김명주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재호 고성군의회 의장, 박창흥 사암련 신도회장 등이 동참했다. 조용수 기자

"실버와 그린의 행복한 만남"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부산여대, 독거노인 초청 파티


부산여자대학 호텔푸드코디네이터과 학생이 어르신을 위한 요리를 나르고 있다.

11월 28일 부산여자대학 관광교육센터 연회실에서 홀로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한 특별한 파티가 열렸다. 생기발랄한 여대생과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만남이 이뤄진 '실버와 그린의 아주 특별한 가든파티'가 그것.

사회복지법인 불국토(대표이사 혜총)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소장 김영곤)와 부산여자대학이 공동을 마련한 이날 파티에는 홀로 사는 어르신 55명이 초대됐다. 어르신들을 위한 음식준비는 부산여자대학 호텔조리과가 담당했고, 호텔푸드코디네이터과는 칵테일과 테이블셋팅, 서빙 등을 맡았다. 사회복지과 차문화복지과 학생들과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 자원봉사자들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거들며 분주한 모습이었다.

음식 나르기를 마친 호텔푸드코디네이터과 1학년 백선애 학생은 "흡족해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뵈니까 광주에 계신 부모님 생각이 난다"며 "정성을 다해 준비한 음식으로 대접을 해드릴 수 있어 너무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이날 어르신들과 함께 특별초대 된 손님도 많았다. 부산여자대학 김경삼 기획실장, 박홍재 국회의원, 부산여자대학 원기연 사회복지학과장 등이 함께 해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와 다과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불국토 대표이사 혜총 스님은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세대간 화합과 교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의성 고운사 직원연합연수

의성 고운사(주지 혜승)는 산하 복지기관 직원들의 연합연수를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고운사에서 실시했다.

영주장애인종합복지관과 의성군노인복지회관 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연수는 사찰예절 교육과 예불, 사경, 발우공양, 법문, 차담 등의 일정으로 고운사에서 진행됐고, 12일 의성군 구봉공원에서의 체육대회를 끝으로 회향했다.

의성 고운사는 앞으로 내년부터는 어린이집까지 모두 동참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배지선 기자

김장김치 나누며 공생 실천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쪽방거주 세대에 전달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한마음선원 대구지원(지원장 혜거) 지하 강당에서 50여 신도들이 김장법회에 몰입했다(사진). 신도들이 이른 새벽부터 출동해 이틀간 꼬박 담근 김치는 모두 3000포기다.

700개의 작은 박스에 개별 포장된 김장 김치는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 대구쪽방상담소의 도움을 받아 대구시내 쪽방 거주 세대에 모두 전달하고, 일부는 노숙자를 위해 무료급식소에 전달됐다.

한마음선원 대구지원은 2000년부터 매년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 등 어려운 이웃에게 김장김치를 나눠왔다. 지원장 혜계 스님은 "어려운 이들을 단순히 물질적으로 돕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스스로 깨어나 자생적으로 힘을 키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내 활동함으로써 둘아닌 도리를 체험하고 인과를 배워가는 마음공부의 장"이라고 설명했다.

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통도사 삼삼조사 추모재 봉행

부처님으로부터 육조 혜능까지 법맥을 이어온 33 조사를 추모하고 뜻을 기리는 삼삼조사 추모재가 통도사 극락암(주지 명정) 조사전에서 봉행됐다.

통도사 방장 초우 스님, 통도사 부주지 태봉 스님, 영축총림 전계사 혜남 스님, 경봉문도회 회장 원산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된 삼삼조사 추모재에서 지안 스님은 "가섭존자부터 육조 혜능조사까지 33조사를 기리는 이 추모재는 경봉 스님 생전부터 아주 중요하게 여기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극락암에서 지내는 행사"라며 "불조부터 33 조사로 이어진 불법의 근본 가르침을 따라 정진하여 기필코 부처님 은혜를 갚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삼삼조사 추모재가 봉행된 극락암 조사전에는 부처님을 비롯 조사의 영정이 모셔져 있다. 극락암은 내년부터 삼삼조사 추모재의 규모를 보다 키워, 앞서간 선지식들의 뜻을 선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 천미희 기자

2006학년도 특차모집
세계에서 제일 큰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2006년 의료시장 개방 / 한국 개원 가능

중국 남경 한의과대학 학생모집

www.njutcm.edu.cn

1. 모집요강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20명 (내신 80점 이상)	· 건강진단서 1통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통 (영문) · 입학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10매
석사과정	3년	5명 (평점3.5이상)	
박사과정	3년	2명	

2. 학교 소개
· 세계 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특징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한국식사 제공
· 군입대 연기가능
· 현지 생활 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3.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주지스님 추천자

4.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건강진단서)
· 접수마감 : 2005년 12월 20일까지

5. 문의처
· 주 소 : 中國 南京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 전 화 : 25-86322539 / 팩스 : 25-86798168
♣ 한국상담 안내처 : 조계종 삼화불교대
·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511-2026~7, 1080 / 팩스 : 02)511-2028
·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 남경중의약대학 자매대학
원광대
대전대 한의대학
삼화불교대학 분교

한국 총장 손혜인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藥大學)

“가진건 없어도 나눌건 많아요”

청원 석문사 혜전 스님의 농촌생활 이야기



11월26일 혜전 스님이 정성껏 담근 김치를 지역 어르신들에게 전하고 있다.

충북 청원군 남이면 가좌리는 50여 가구가 모여 사는 말 그대로 ‘촌동네’다. 가좌리에서도 꼬불꼬불하고 울퉁불퉁한 좁은 길을 따라 들어가면 가정집 같은 절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 석문사다. 이런 절을 소위 인법당(因法堂)이라고 하는데, 얼핏 보기에도 넉넉해 보이지는 않는다.

11월 26일 오전, 석문사 마당에 주지 혜전 스님과 10여명의 보살들이 옹기종기 둘러앉아 김장을 담그고 있다. 마을의 독거 어르신과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나눠주기 위해서다. 이날 담글 김장은 배추 360포기.

“맛있네요, 역시 우리 보살님들 음식솜씨는 알아줘야 한다니까.”

혜전 스님이 분위기를 띄우자, 신도들은 “이렇게 다 퍼주고 스님은 뭘 먹고 사시려고요”하며 볼멘소리를 한다. 하지만 신도들 입가에 흐르는 미소로 보아 말 속에 따스함이 배어 있음을 금방 눈치 챌 수 있다.

석문사 신도들은 혜전 스님을 두고 “부처님이 따로 없다”고 말한다. 가진 것은 없으면서도 남 주는 데는 ‘일등’이라고. 가만히 있어도 될 일을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라면 내 일처럼 나서고, 마을 어르신 모시는 데는 자식보다 더 효자고, 아픈 사람은 눈 뜨고 못 보고 마을 애경사에는 결코 빠지는 일이 없다고 하니 그런 말을 들을 법도 하다.

작년에 석문사에 온 혜전 스님은 오자마자 청원군민 초청 경로잔치부터 열었다. 봄가을 두 차례 열었으니 올 가을까지 네 번째다. 이것도 모자라 마을 회관에서 정기적으로 어르신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경로당에는 기름을 보내 준다. 마을 어르신들이 절에서 마음껏 공양할 수 있도록 반찬에도 온갖 신경을 다 쓴다.

마을에 아픈 사람이 생기면 병원비도 부담한다. 먹고살기가 어렵다보니 병원비를 받아 다른 곳에 쓰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래도 스님은 개의치 않는다. 교통사고로 3개월 간 병원에 입원해 있었을 때 병실에서 만난 한 보살의 딱한 사연을 듣고는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었다. 즐가 전 모아놓았던 사재도 어느 덧 이렇게 다 써버렸다.

최근에는 중풍을 앓는 한 어르신이 움푹 패인 길가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 집으로 모신 뒤, 연로한 어르신들이 불편없이 다닐 수 있도록 도로를 놓아 달라고 면에 요청을 했다.

이런 자비행이 알려지면서 혜전 스님의 ‘팬’들이 하나 둘씩 늘기 시작했다. 이날 담근 김장 배추도 혜전 스님의 ‘팬’인 양희림 거사(52 · 신탄진 철도정비창 근무)가 주말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것이다.

“대단한 분이여. 말로 어떻게 다해…”(한덕현 · 79, 가좌리 4반 반장)

“남이 못하는 일을 많이 해. 참 고마운 분이여.”(천창식 · 66, 가좌리 3반)

점심공양을 하던 마을 어르신이 기자에게 귓속말로 속삭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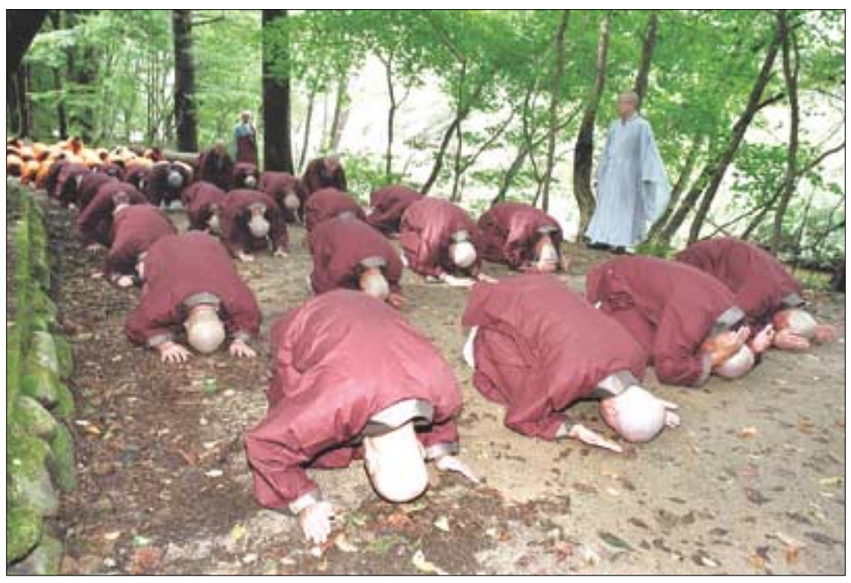
김월운(66 · 가좌리) 관음화(55 · 가좌리) 만덕화(54 · 청주시 복대동) 수월행(49 · 대전) 보살 등 김장을 하던 신도들도 혜전 스님 자랑에 침이 마른다.

“아니에요. 뭐 한 게 있다고…” 말꼬리를 감추는 혜전 스님에게 조르듯이 그렇게 ‘퍼 주는’ 이유를 물었다.

“몸이 약해 부모님 속 많이 썩여드렸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도요. 어르신들 보면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요. 어르신들

지역민과 함께하는 열린불교

강원 원주·평창·영월·횡성



월정사 단기출가에 참가한 사람들이 삭발식 후 월정사 일주문에서 사찰까지 3보1배를 하는 모습. 1년에 네 차례 진행되는 월정사 단기출가는 매회 10대1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인기가 높다. 현대불교자료사진

원주 지역 특성 맞게 다양한 포교전략 구사

평창 월정사, 단기출가로 '수행불교' 새바람

영월 법흥사·보덕사, 인근 지역별 신도회 구성

횡성 보광사·광제사, 유치원서 불교 씨앗 틔워

원주

원주불교는 비교적 활발한 편이다. 사찰들은 나름대로 특성을 갖고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사암연합회도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또 종교 간의 교류도 활발하며, 지역 참여도 적극적이다.

우선 원주불교의 기초를 다졌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 도심포교당 성불원은 교육·복지 활동으로 불교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성불유치원과 명륜·금강·연꽃 어린이집, 청소년 수련원인 강원도 자연학습원 등 5개의 어린이·청소년 교육시설과 함께 원주시립복지원·명륜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 어린이·학생·청년 법회도 활발하다.

영서지역의 대표적 사찰인 구룡사는 원주불교대학과 템플스테이에 주력하면서 교육과 문화를 특성화해 지역 포교에 나서고 있다. 특히 외국인, 기업체, 관공서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식 템플스테이는 인기가 높다. 또 종교간 교류를 통해 열린 사찰의 이미지를 심었으며, 환경보호 운동도 활발하다.

신흥 포교도량 성문사는 어린이·학생·청년·가족 법회와 합창단으로 지역포교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에는 산사음악회와 호국영령위령제 등의 문화행사로 지역민에게 다가서고 있다.

또 군법당인 법웅사도 군부대가 많은 원주지역의 특성에 맞춰 적극적인 군 포교 활동을 벌이고 있다.

신행단체들의 활동도 활발해 원주불교신도연합회를 축으로 불교여성회, 정각회 등 재가불자 단체와 경찰서 법우회, 시청법우회, 교도소 불심회, 교원불자회, 개인택시법우회, 연초제조창 불자회 등 직장직능단체들, 그리고 이들의 연합체인 원주신행단체연합회가 원주불교 신행을 주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원주불교사암연합회는 정기적으로 불이이웃과 독거노인 돕기에 나서는 등의 활동으로 불교 이미지를 높이고 있다.

평창

평창불교의 전부는 월정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60여 말사를 거느린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는 2년 전 정념 스님이 주지로 부임한 이후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면서 평창불교뿐만 아니라 강원불교의 모습을 바꾸어놓았다.

지난 2년 간 월정사가 벌인 활동은 가히 전방위적이다. 수행·신행·교육·포교·문화·복지·국제교류 등 전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수행분야에서는 단기출가를 빼놓을 수 없다. 월정사하면 단기출가를 연상할 정도로 단기출가는 월정사의 상징이 됐다. 수행분위기 확산과 출가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1년에 네 차례 진행되는 단기출가는 매번 10대1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인기가 높다. 또 한암·탄허 스님의 승풍을 이어받기 위해 수행학림과 휘호대회도 열고 있다.

불교문화축전, 주지배 축구·족구대회를 통해 지역민들과 함께 하는 포교전략도 성공을 거뒀다. 또 지역 청소년들의 신행조직인 '문수청소년회'를 조직해 젊은층 포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문화사업도 활발하다. 오대산 천년의 숲길 걷기대회와 함께 산사에서 처음으로 영화제를 열고 특성 있는 음악제를 개최하는 한편, 박물관 문화대학을 열어 불교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 그리고 불교대학을 열어 신도교육에도 적극 나서면서 올바른 신행문화를 정착시켰다. 이와 함께 템플스테이를 열어 불교문화를 확산시켰다.

국제교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중국 오대산, 미야마 마하시 수도원과 결연한데 이어 조만간 대만 불광산사와도 자매결연해 복지와 포교분야에서 교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행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9월 기공식을 갖고 선원건립에 들어갔다. 장기적으로는 재가 수행공간도 확보할 계획이다. 그리고 시대흐름에 맞춰 웰빙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

영월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영월불교는 이름뿐이었다. 그런 영월불교가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 불교계 목소리가 지역 현안에 반영될 만큼 위상이 높아졌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법흥사가 있다.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진 우리나라 5대 적멸보궁중 한 곳인 법흥사는 적멸보궁으로서뿐만 아니라 포교도량으로서 영월불교 발전에 기여했다.

각종 불사를 통해 사격을 갖춘 법흥사는 영월, 제천, 원주 지역에 신도회를 구성해 조직적인 포교에 나서면서 기반을 넓혀가고 있다.

또 신도들을 대상으로 기초교리 강좌를 여는 한편, 템플스테이를 통해 불교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약사전을 지어 24시간 열린 법당으로 활용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매년 영월 단종문화제 기간중 추모 영산대재를 열어 지역민과 함께 호흡해 온 보덕사도 최근 신도회, 청년회, 거사림회를 토대로 신행분위기 확산에 나섰다. 또 사암연합회는 불우이웃돕기 등을 통해 불교 이미지를 높이고 있다.

횡성

횡성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이자 군부대가 많은 특징을 지니고 있는 곳이다. 인구는 4만이지만 계속해 감소추세를 보이면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불교 역시 이런 지역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전통적으로 기독교세가 강해 횡성불교가 입지를 넓히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찰 수는 10여개로 그리 많은 편이 아니며, 사암연합회도 없다. 다만 경승활동이 그런대로 이뤄지고 있고, 횡성을 대표하는 보광사와 광제사가 불교유치원을 운영하면서 불교의 명맥을 잇고 있다.

특히 88년 세워진 보광사 룸비니 유치원은 자연친화적인 교육환경과 전인교육으로 불교의 이미지를 높이면서 어려운 여건의 횡성불교에 희망을 싹틔우고 있다. 보광사에서 직접 재배한 농작물로 아이들의 먹거리를 제공하고, 야외학습과 자연학습으로 불성을 심어준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지역불교 이끄는 주역들

바람직한 교구본사 모델 제시

정념 스님 (평창 월정사 주지·강원불교연합회장)



정념 스님은 강한 추진력, 미래지향적인 사고, 열린 마인드로 월정사 주지 부임 2년 만에 강원불교를 한 단계 도약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조계종 교구본사 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이면서 '바람직한 교구본사의 모델'을 제시했다. 말사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각종 지원을 통해 군림하는 본사가 아닌 함께 하는 본사 이미지를 만들었다.

또한 본사 종무회의와 교구종회를 의견수렴 기관이자 결정기구의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기구로 만들었다.

'대중과 함께 하는 불교'가 돼야 한다는 소신으로 지난 2년간 월정사의 역할과 방향을 제시했다면, 남은 임기 동안에는 이를 뿌리내리고 심화시키는데 주력할 생각이다.

타종교인과 활발히 교류

원행 스님 (원주 구룡사 주지·원주사암연합회장)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 해박한 지식과 식견을 가진 원주불교의 리더. 원주사암련 회장, 한일불교교류협의회 상임이사, 월정사 부주지, 강원경찰청 경승단장, 원주교도소 교정위원 외에도 NGO 단체 활동 등으로 몸이 열개라도 모자라다.

대중과 함께 하는 열린 사찰이 돼야 한다는 것이 원행 스님의 구룡사 운영 철학. 특히 교육과 문화, 국제적 안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불교대학, 템플스테이, 해외교류에 주력하고 있다.

지역의 개신교 가톨릭 종교인들과도 활발히 교류하면서 종교화합에 나서고 있다.

그늘진 곳 찾아 불법 전해

현각 스님 (원주 성불원 주지)



현각 스님은 원주불교의 대명사다. 성불원을 창건하고 20년 동안 포교에 대한 열정과 헌신적인 자세로 원주불교의 초석을 다졌다. 특히 교육과 복지에 진력하면서 불교위상을 높이고 지역사회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논리정연하고 시대감각과 앞을 내다보는 안목이 뛰어나 지역과 불교계에서 자문을 구하는 일이 많다.

'서민불교'가 돼야 한다는 확고한 소신으로 그늘진 곳을 찾아다니고, 원주시청법우회 등 여러 신행단체 지도법사를 맡아 지역불자들의 신행을 이끌고 있다. 원주시민회의 공동대표, 환경청 환경위원, 철도청 녹색자문위원 등을 맡아 활발한 사회활동도 벌이고 있다.

12년째 룸비니유치원 운영

계호 스님 (횡성 보광사 주지·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올바른 성품을 심어주고, 좋은 교육환경을 갖춰주고,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그야말로 '사람'을 키워온 계호 스님. 이렇게 룸비니 유치원을 지켜온 지 벌써 12년 째. 운문사에서 12년 간 강사로 있으면서 후학들을 가르치기도 했던 계호 스님은 천상 교육자다.

군법회와 경승 활동 그리고 지역의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독거노인을 위한 후원도 빠뜨리지 않고 있다. 현재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영월 불교 발전·화합의 중심

도완 스님 (영월 법흥사 주지·영월사암연합회장)



영월지역 스님들은 "도완 스님 없는 영월불교는 생각할 수 없다"고 잘라 말한다.

8년 전 법흥사 주지로 부임, 이름뿐이었던 법흥사를 수행·포교도량으로 가꾼 한편, 사암연합회를 만들어 지역불교 발전과 화합을 일궈냈다.

특히 '명함'도 못 내밀었던 영월불교의 위상을 높임으로써 지역 스님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토대를 갖췄다. 지역민들과도 격의 없이 어울리면서 친근한 불교 이미지를 심었다.

불교대학을 개설하고 신행공간을 마련해 질적인 포교에 나설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마을주민들과 '농사법인' 구성

정선 스님 (원주 극락암 주지)



극락암이 위치한 원주 문막 궁촌리에는 교회가 없다. 정선 스님이 20년 간 마을 주민과 함께 해왔기 때문이다.

마을주민과 함께 농사법인을 구성해 농산물을 공동저장하고 판매해 오면서 가족처럼 지내왔고, 그러다보니 마을 주민 거의 모두가 극락암 신도가 됐다.

요사채만 남아있던 극락암 자리에 법당을 짓고 사찰을 일으킨 정선 스님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독거노인들에게는 쌀과 생필품을 지원해오고 있다.

강의교재 직접 만들어 교육

경혜 스님 (원주 성문사 주지)



성문사를 원주의 중심도량으로 발돋움시키면서 활발한 포교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원주사암련 상임부회장을 맡아 지역불교 발전에도 진력 중이다. 가족교리법회에서는 강의교재를 직접 만들어 교육에 나설 정도로 신도교육에 대한 열정이 깊다.

경혜 스님은 매달 원주교도소 법회도 빠뜨리지 않는 등 재소자 포교에도 열심이다. 반가상 좌불을 조성하고, 정기법회 때 불교의식을 갖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불경, 금책, 금병풍



실물크기(3.5×5cm, 5×7cm)
금강경 24매·천수경 12매·반야심경 8매



(관세음보살 보문품) 2폭금병풍 크기 (1폭 가로37cm 세로74cm) (광명진언 지장본원경)

영가천도 소장용 호신용 불사용 상량식 복장의식

금강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의 99.9%순도의 금으로 만든 초소형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여 화제다. 불경금책은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묘법연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등이 있으며 3.5×5cm 5×7cm 7×10cm 크기로 있어 소장 및 휴대가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한다. 불경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한다. 소법당, 스님방, 불자님의 가정에 개인소장용으로 기도정진 재례용 등 여러 용도로 사용 가능한 최고급 금병풍(관세음보살보문품, 광면진언 지장본원경)도 제작 판매한다.

●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02)722-1850

바로보인의 책들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 저작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어김의 무명을 일깨우는 통쾌한 禪법문!



바로보인 전등록 5권
바로보인 무문관
바로보인 벽암록
바로보인 천부경
바로보인 금강경
바로보인 신심명
바로보인 환단고기 5권
바로보인 중도가
바로보인 반야심경
영원한현실
선을 묻는 그대에게 1권
바로보인 선문염송 (30권 중 7권까지)
세월을 북채로 세상을 북삼아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첫눈 희다



2005년 12월 4일 일요일 오전 11시에서 12시 사이에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반야심경 법회가 있습니다.
선(禪)으로 깨우치는 반야심경 법문에서
이 시대의 야부 선사로 불리는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진면목을 엿볼 수 있습니다.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바로보인

“평상심이 곧 道” 혁명적 가르침으로 禪 황금시대 ‘활짝’



9월17일, 마조도일 선사의 원적도량인 석문산 보봉선사 바로 옆에 위치한 마조 스님 사리탑을 참배하고 기념촬영한 한국의 선사들.

선원강, 禪의 원류를 찾다

– 중국 선종 초조에서 8조까지 (끝)

8조 마조도일 : 인각 스님 (범어사 금어선원 유나)

마경대·우민사·보봉선사

깊은 강은 고요하다. 졸졸졸 흐르는 얕은 시냇물과는 달리 깊어서 고요한 큰 강줄기는 시공을 가로질러 흐르고 흐른다. 천년의 세월을 품은 중국 강서성의 서강(西江:현재의 감강을 부르는 별칭으로 감강은, 지역의 번호판에 첫글자 ‘강’이 들어갈 정도로 유명한 강이다))이 그랬다.

한국을 떠나온 지 7일째가 되던 9월 13일 강서성 최대의 강인 서강앞에 섰을 때, 잠시도 머물지 않는 그 도도한 강줄기의 흐름을 바라보고 있으니 유마힐 거사와 마조도일(馬祖道一 709~788) 스님과의 선문답이 생생하게 귓전에 되살아났다.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는 자 누구입니까?”

“그대가 한입으로 서강의 물을 머금어 다하면 그때 이르리라.”

‘일구읍진서강수(一口吸盡西江水)’라는 화두다. 강물은 ‘흐름’으로 생명력을 얻는다. 부단한 서강의 흐름을 바라보며 ‘일구읍진서강수’라는 화두 또한 수행납자들의 ‘고인’ 사고를 그 어디에도 집착함이 없는 ‘흐름’으로 전환시키면서 그 생명력을 이어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조 스님의 행화도량으로 널리 알려진 우민사(옛 개원사) 옆을 흐르는 서강은 마조 스님이 중국 선종사(禪宗史)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웅변하듯 빛을 내며 유유히 흐르고 있었다.

지금까지도 생불(生佛)로 추앙될 만큼 존경을 받고 있는 마조 스님은 본래 사천성 한주 시방현 사람이었다. 속성이 마씨여서 마조라고 불리는 스님은 비록 비천한 농가에서 태어났지만 용모나 모든 것이 다른 사람하고 달라서 기이하고 비범했다.

걸음은 소걸음과 같고 호랑이 눈빛을 가져서 빼어난 기상을 가지고 있었다. 혀가 길어서 코끝을 지났고 발바닥에는 2개의 법륜 표시가 있었다. 어려서 고향마을의 나한사로 출가하여 지극한 구도심으로 여러 곳을 다니면서 두타를 행하였다. 가는 곳마다 좌선을 하였는데 당 개원 연중에 형악의 전법원에서 선정을 닦던 중 남악회양(南嶽懷讓)스님을 만나 공부하여 심인을 이어받았다.

▲일상적인 삶 속으로 내려선 禪

이번 답사에서는 마조 스님의 득법도량인 마경대(磨鏡臺)와 행화도량인 우민사(佑民寺), 그리고 원적도량인 보봉선사(寶峯禪寺)를 다녀왔다.

제일 먼저 찾은 곳은 전법원이라고도 하는 마경대였다. 마경대는 마조가 좌선을 했던 초암 앞에 있던 바위였다.

마경대가 있는 남악은 육조 이후 남종선의 뿌리를 내린 마조 선사와 석두 선사 등이 득법 행화한 선불교 성지다.

마경대는 마조의 득법도량이자 조사선의 원천이라고 해서 ‘조원(祖源)’이라고 한다. 그 바위에는 조원이라는 두 글자가 음각의 붉은 글씨로 크고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그러나 바위는 반쯤 묻히고 그 바위 가운데를 가로질러 길이 나 있었다. 안타까웠다.

길 밑으로 반 정도 드러난 마경대에서서 지극한 신심으로 좌선 수행에 전념했을 젊은 마조 스님과, 마조 스님을 지켜보며 때를 기다렸을 회양 스님을 그려본다. 스승과 제자가 만남이 이뤄지고 법이 전해졌던 역사의 현장에 서니 회양 스님의 기왓장 가는 소리가 바람결에 다시 들려오는 듯 하다.

당시 초암 앞에서 마조 스님은 좌선에 몰두하고 있었다. 비구계를 수지하고 공부를 이어가던 마조 스님이 좌선정진하던 곳 근처에는 복엄사라는 큰 절이 있었고 남악회양 스님은 그 절의 방장이었다. 젊은 마조가 정진하는 것을 항상 눈여겨보던 회양 스님은 하루는 근기를 달아보기 위해 마조 스님이 좌선중인 초암을 찾았다. 그리고 그 앞에서 말없이 기와를 갈기 시작한다. 분명히 이목을 집중시킬만한 일대 사건이다.

방장스님이 기와 가는 것을 보고도 마조 스님이 좌선만을 고집하며 아무런 반응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그러나 마조 스님은 어김없이 회양 스님이 던져 놓은 그물에 걸려들었다.

“기와를 갈아서 무엇을 하시렵니까?”

“거울을 만들어볼까 하네.”

“기와를 갈아서 어떻게 거울을 만들겠습니까?”

“기와를 갈아서 거울을 만들 수 없다면 좌선을 해서 어떻게 부처가 되겠는가?”

이때, 마조 스님의 심경을 헤아려보기란 어렵지 않다. 자신의 전부를 걸었던 좌선 수행이 기와를 갈아 거울을 만드는 일처럼 부질없는 것이었다니, 크게 한방 맞은 셈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 수레가 가지 않을 때는 수레를 때려야 하겠는가? 소를 때려야 하겠는가?”

대답이 없자, 회양 스님이 다시 묻는다.

“그대는 좌선(坐禪)을 배우고자 하는가? 좌불(坐佛)을 배우고자 하는가? 만약 좌선을 배우고자 한다면 선은 앉거나 눕는 것에 있지 않으며 좌불을 배우고자 한다면 불은 정해진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네. 그대가 좌불을 구한다면 부처를 죽이는 것이고 좌선에 집착한다면 이치를 깨닫지 못할 것이네.”

마조 스님은 이 가르침에서 활연대오했다. 회양 스님의 선기 번뜩이는 단칼에 마조 스님은 좌선이라는 유의조작의 포박을 끊고 몸과 마음을 일으킬 수 있었다. 훗날 ‘도는 수행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다만 청정한 자성을 더럽히지 않으면 된다’며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라는 상당법어로, 수행으로 부처가 되겠다고 조작을 일삼던 사람들의 얽매인 사고를 해방시키는 출발이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선은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는, 지극히 일상적인 인간의 삶 속으로 내려섰다.

이 때부터 마조 스님은 선의 황금시대를 여는 행화를 펼치기 시작한다. 홍주의 우민사(옛 개원사)에 18년간 주석하면서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냈다. 특히 스님은 그곳에서 ‘즉심즉불(卽心卽佛)’이라는 심지법문을 펼쳤다. 남창시내 한복판에 있는 우민사는 마치 타원형의 운동장같이 생겨 고층 빌딩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도심의 제일 번화가에 고층빌딩들이 절을 외호하는 신장처럼 사방을 둘러싸고 있어 아주 인상적이었다.

▲법회시 4만명 모여드는 우민사

우민사는 마조 스님 회상으로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듯 현재에도 법회때면 3만~4만 명의 대중이 모여든다고 한다. 현재도 중국을 대표하는 도량인 셈이다. 그리 크지 않은 규모지만 법당을 참배하고 나오는 사람들과 뒤를 이어 들어가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 중국불교 제2의 태동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이다.

‘평상심이 곧 도’라는,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중생의 전도된 견해를 일시에 무너뜨리는 혁명적 가르침으로 선의 황금시대를 열었던 마조 스님 행화도량에서 스님의 법문을 다시금 새겨보았다.

“도는 닦는 것이 없으니 물들지만 말아라. 무엇을 물듦이라 하는가? 무언가를 알려고 하면 모두가 물듦이다. 그 도를 당장 알려고 하는가? 평상심이 도니라.”

이것이 마조 스님의 골자 법문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평상심이라 하는가? 조작이 없고 취사가 없고 범부와 성인이 없는 것이다. ‘자성은 본래부터 구족되어 있으므로 다만 선악(善惡)에 머물지 않기만 하면 도 닦는 사람이라 할 것’이라고 설파하며 좌선이니 수행이니 하는 일체의 조작을 걷어낸 인간 본래의 가치를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달마 스님으로부터 시작된 중국 선종사가 6조혜능 스님에 의해 꽃을 피웠다면 사상적으로나 교단적으로 중국 선조의 실질적인 형성은 남악회양의 선법을 계승한 마조 스님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평상심이 곧 도’라는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중생의 전도된 견해를 일시에 무너뜨리는 혁명적 가르침을 열어놓았기 때문이다.

스님의 이러한 사상은 중국 강서성 중앙부에 위치한 홍주 우민사에서 뿌리를 내려 백장회해, 황벽희운, 임제의현으로 이어지면서 중국선의 큰 줄기를 형성했고 그 줄기는 우리나라까지 뻗어왔다.

이처럼 중국 선불교의 황금시대는 마조에서부터 개막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고 현지에 가보니 그러한 것들이 더욱 확연히 느껴졌다. 조사선이라 불리는 마조선은 강서선 홍주종이라고 한다.

한국 선종 신라말 고려초 구산선문 중 일곱 개 사찰이 마조 스님의 법을 이어왔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하고도 마조 스님은 대단히 인연이 많은 스님이다. 우리나라 무상 스님의 제자라는 말도 있지만 확인할 도리는 없었다.

간 이상을 꼬불꼬불 계속 올라가면서 ‘다 올라가면 참 경치가 좋겠다’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정상에 올라가니 또 내려가기 시작했다. 40분 여분 내려가니 분지가 나타났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개원사 방장 18년을 마감 하시고 마지막에 석문산에 올라가서 골짜기의 평평한 땅을 가리키면서 “이 늙은이의 몸을 옮길 때가 되었느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석문산에다 보봉선사를 창건했다고 한다. 보봉선사 산문에는 큰 글씨로 마조의 화두인 ‘즉심즉불(卽心卽佛) 비심비불(非心非佛)’이 쓰여져 있고 산문 중앙에는 ‘마조도량’이라는 편액을 커다랗게 걸어놓았다.

▲보봉선사 1백여 스님 하루 8시간 참선

보봉선사에서는 법명이 순랑이라고 하는 젊은 스님에게 안내를 받았다. 40대로 보이는 그 스님은 예의바르고 침착하며 교리적으로도 정리가 돼 있었다. 그런 스님을 중국의 절에서 만날 수 있어 기분이 좋았다. 내가 상좌를 하자고 하니 그 스님도 나를 따라다니며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오랜 친구처럼 느껴졌다.

이번 답사에서는 아주 드물게 점심을 보봉선사에서 대중공양으로 했다. 빙 둘러앉아 공양을 했는데 음식은 담백하고 먹기에 괜찮았다. 다섯 가지 정도의 반찬을 하나의 발우로 먹었는데 발우속의 반찬을 다 먹어갈쯤 다시 반찬을 갖다 주었다. 한국은 네 개의 발우로 먹는데 발우를 하나만 사용하느냐고 물으니 본래 자기들은 두개로 먹는다고 했다.

대중공양을 마치고 나니 한사람도 빼놓지 않고 대중 전부에게 공양금을 돌리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보봉선사 선방을 둘러보았다. 깔끔하게 잘 정리된 선방에서 현재 1백여 명의 대중이 하루 8시간 정도 정진하고 있었다. 종파는 임제종이며 화두는 주로 ‘염불시수(念佛是誰)’를 한다고 했다.

보봉선사의 중국스님들은 마조의 강서선이 당나라 이후 중국불교를 대표했다는 자부심이 대단했다. 자긍심과 의욕으로 넘치는 그 사람들에게서 새롭게 중국불교의 희망을 보았다.



보봉선사 선방에서 인각 스님이 잠시 참선에 들었다.

보봉선사 바로 옆에 마조 스님의 사리탑이 모셔져 있다. 바로 절 옆에 위치한 사리탑은 4면 단층 석탑이다. 사리탑은 백옥탑인데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문화혁명 때 파괴되었던 것을 다시 복원한 까닭이다. 파괴할 당시 탑을 보호하는 정자는 그대로 두었고, 사리는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사리탑을 복원하면서 다시 모셨다는 설명이었다.

탑 전면에는 ‘마조도일대적선사사리지탑(馬祖道一大寂禪師舍利之塔)’이라고 금으로 음각을 해놓았고 뒷면에는 마조의 화두인 ‘심외무별불(心外無別佛) 불외무별심(佛外無別心)’이 써 있었다.

▲각 분야에서 禪정신 살려야

마음으로 흠모해왔던 마조 스님의 득법 · 행화 · 원적 도량을 둘러보면서 선이라는 것은 ‘일종의 개혁’이라는 생각을 했다. 구태의연한 사고를 뒤흔들어 스스로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삶을 혁신하는 가르침이 선이다.

날로 새로워야 한다. 그것이 선법이다. 마조 스님의 ‘평상심시도’나 ‘즉심즉불’이라는 가르침을 당시의 사람들이 추종했던 이유도 ‘새로움’에 기인한다.

오늘 우리나라도 선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러한 때 마조 스님의 혁신적인 법문을 되살려서 우리 생활에 선의 ‘새로움’이 생동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정치나 교육은 물론 각 분야에 선의 정신이 살아있게 하는 것, 이번 중국 선종사찰 답사가 우리 모두에게 던져준 과제다.

“대중들이여, 각자 자신의 마음이 부처이며 이 마음 그대로가 부처임을 확인하라.”

마조 스님의 고구정녕한 말씀이 오늘 다시 ‘중생심’에 물든 우리의 견고한 사고의 틀을 흔들어 깨우고 있다. 깊은 무명에서 깨어나 늘 새로운 오늘을 살라고…

정리= 천미희 기자

사진제공=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일체의 조작을 걷어낸 명쾌한 언어로 인간 본래가치 만천하에 드러내



마조 스님의 행화 도량인 우민사. 중국을 대표하는 사찰 중 하나다.



보봉선사에 모셔진 8조 마조도일 선사 좌상. 진신상은 아니다.

인각 스님은 1940년 충남 공주에서 태어나 범어사에서 나옹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범어사 강원 대교과 졸업후, 태안사에서 범룡 스님을 모시고 화엄경을 열람했다. 송광사 해인사 통도사 봉암사 등 제방선원에서 30여년 수선안거했다. 현재 범어사 금어선원 유나이며 조계종 기본선원 운영위원장이다.

대구불교방송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은석초등학교 불교반 연화어린이회 학생들이 11월30일 서울 서대문구 녹음실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녹음도서를 CD로 제작했다. 사진 뒷줄 왼쪽부터 연화회 지도법사 송화 스님, 이슬기 교사, 은석초등학교 김한기 교감, 최성희 교사.

■ 은석초등학교 연화회는

불교활동 펼치는 유일한 종립초등교
눈높이 맞춘 교리 · 체험교육 중점

서울 은석초등학교는 불교계에 유일한 초등교육기관이다. 초등학교는 의무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종교를 수업시간에 가르칠 수 없고 전임교법사도 따로 둘 수 없는 것과는 달리, 은석초등학교는 연화어린이회(이하 연화회)를 중심으로 종교활동을 펼치며 불교계 유일의 종립 초등학교의 위상을 떨치고 있다.

연화회의 회원은 200여명에 이른다. 전 학년이 모여서 법회를 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일주일에 3번 나눠서 두 학년씩 법회를 보고 있다. 교법사는 뜻있는 동국대 학인 스님과 자원교사가 맡고 있다.

은석초등학교 연화회를 4년째 이끌고 있는 지도법사 송화 스님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교리를 지도하고, 불교적 체험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불교를 배우는 데서 멈추지 않고 직접 느끼고 체험하도록 강조하는 스님의 교육철학 덕택인지, 연화회 아이들은 일찍부터 보시행을 실천하는 일에 익숙하다. 이번 불서 녹음도서 제작에도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였고, 연화회 회장인 6학년 연형이는 장학금의 절반을 복지시설에 쾌척하기도 했다.



은석초등학교 ‘연화회’ 어린이들의 낭독봉사 현장

“친구들아! 우리 목소리 듣고 힘내”

치열한 오디션 거쳐 선발된 12명, 시각장애인 위해 음성 봉사

“슬플 때 나에게 오너라. 위로받고 싶을 때 나에게 오너라. 나는 언제까지나 네 곁을 떠나지 않아.” <꼬마판다의 깨달음> 중에서

나이어린 불자들이 앞 못 보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불서(佛書)를 직접 구연하고 녹음도서로 만드는 음성공양에 나섰다.

음성공양에 참가한 어린이는 은석초등학교 불교반 연화회 회원 12명이다. 이들은 어린이용 불교동화인 <행복해지는 거울><꼬마판다의 깨달음><이 땅에 오신 석가모니>를 읽는 녹음봉사를 지난 11월 10일과 30일, 2차에 걸쳐 펼쳤다.

11월 30일 서울 서대문구 ‘서라벌 녹음실’에 모인 아이들은 지도법사인 송화 스님에게 매달려 연신 장난을 쳤다. 그러나 녹음을 하기 위해 스튜디오로 들어서자 두 눈을 반짝이며 진지한 모습으로 목을 가다듬는다. 모두 낭독봉사에 참가하기 위해 치열한 오디션 과정을 거쳐 선발된 아이들이다.

“하고 싶다고 자원한 친구가 많았는데 제가 뽑혀서 정말 기뻤어요”라고 3학년 민경이는 말했다. 곁에서 성윤이는 “전 합창대회에서 동요 부르는 실력을 인정받아서 오디션 거치지 않고 바로 뽑혔어요!”라고 자랑한다.

“자, 다른 사람들은 소리 내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처음부터 녹음하겠습니다. 해설, 큐!”

녹음감독이 손으로 큐 사인을 보내자 해설을 맡은 4학년 경현이가 <꼬마판다의 깨달음> 대본을 읽기 시작한다.

다른 어린이들은 행여 녹음에 방해라도 될까봐 숨 한번 크게 쉬지 못하고 대본도 조심스럽게 넘긴다.

발음을 지도하는 은석초등학교 최성희 교사는 어린이들이 잘못 발음하거나 조그만 잡음이라도 들리면 어김없이 불호령을 내린다.

“상윤아, 너 방금 전 발음할 때 혀가 엉켰잖아. 입술과 혀에 더 힘주고 발음 또렷하게!”

“라경아, 너는 긴 지문을 읽으면 호흡이 가빠져서 나중에는 점점 빨리 읽어. 그러면 다른 아이들하고 속도에서 차이가 나니까 호흡에 주의해야 해.”

“동규는 오늘 왜 그렇게 목 상태가 안 좋지?” “감기 걸렸어요.” “성우로 뽑혔으면 목 상태에 신경써서 감기를 조심했어야지!”

급기야 녹음이 잠시 중단되고 4학년 동규가 스튜디오에서 나왔다. 하지만 동규는 “꼭 낭독봉사를 다 마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결국 임시방편으로 따뜻한 물로 목을 축이고 코를 푼 뒤에야 다시 스튜디오로 들어설 수 있었다.

동규는 “시각장애 친구들에게 내 목소리가 선물이 됐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다.

낭독봉사는 장시간 정확한 발음으로 책을 읽고 구연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성인봉사자들이 주로 활동하는 영역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녹음도서는 지금까지 성인을 위한 책이든 어린이를 위한 책이든 어른들에 의해 녹음돼왔다.

그러나 지도법사 송화 스님의 생각은 달랐다. 평소에도 연화회 학생에게 ‘보시행’을 강조하는 스님은 “이를 계기로 어린이들이 ‘봉사하는 삶’을 이해할 수 있기를” 희망한 것이다.

이때부터 송화 스님은 어린이들에게 낭독봉사방법을 지도해줄 불교계 봉사자를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4개월이 지나도 불교계에서 낭독봉사자를 찾을 수 없자 스님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음성공양 방안을 찾기에 나섰다. 동화작가이기도 한 은석초등학교 이슬기 교사는 좋은 불서동화책을 선정했고, 최성희 교사는 아이들의 발음을 지도했다. 또 아이들은 매일 점심시간마다 모여 낭독봉사 연습을 했다.

<이땅에 오신 석가모니>에서 춘다역을 맡은 라경이는 “점심에 친구들하고 노는 대신 녹음연습을 했지만 재밌었다”며 “내년에도 낭독봉사하면 꼭 참가하겠다”고 다짐한다.

연화회 학생들과 지도법사 스님의 뜻을 듣고 각계에서 지원도 잇따랐다. ‘어린이는 낭독봉사자로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시각장애인도서관 녹음실 사용을 거절당하자 서대문구의 작은 녹음실에서 장소를 제공했다.

대여비는 연화회 학부모들이 십시일반으로 낸 회비로 충당했다. 또 CD제작에 들어가는 그림과 동화저작권은 BB출판사에서 무료로 보시했다. 녹음도서 배경음악도 풍경소리가 지원했다.

이렇게 온정이 모여 제작된 녹음도서는 전국에 42곳 있는 시각장애인도서관과 12곳의 맹인학교에 무료로 배포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책을 읽을 수 없는 환자나 노인, 미취학 아동도 녹음도서를 들을 수 있도록 불교 병원과 노인복지시설, 불교유치원 등 총 100여곳에 보내진다.

글=이은비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 송화 스님 지도로 어린이 불교동화 녹음
- 어려운 친구들 도우며 봉사하는 삶 이해
- CD 제작…전국 100여곳 무료배포 예정

蓮
연<련>

최고급 천연 연꽃 미백기능성 화장품 蓮

흙탕물에서 고운꽃을 피워내는 우수한 정화능력과 중금속에 대한 저항이 놀라운 연꽃에서 정제추출한 연꽃 추출물은
피부에 대한 보습효과가 매우 우수하며 지속사용시 피부의 탄력을 증대시켜 활기차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게 합니다.
여기에 천연월귤나무에서 추출되는 미백성분인 알부틴을 함유시켜 피부를 맑고 희게 유지시키는 기능성 효과를
부여함으로써 피부 항상성에 대한 최선의 만족을 느끼게 합니다.
옛부터 연꽃향은 정신을 맑게 하고 안정되게 해준다하여 정진(精進)하시는 분들이 늘 가까이 하였다고 합니다.


- 50g -

최고급 천연 연꽃 미백기능성화장품 蓮
– 식품의약안정청 미백 기능성 허가
– 날듯 말듯한 은은한 연꽃향
– 천연 식물성이므로 모든 피부타입에 적합
– 피부에 보습과 영양을 주어 생기있는 피부유지



순식물성 천연연꽃 미인비누
– 연꽃에센스오일이 첨가된 순식물성 천연 연꽃 비누
– 연꽃향이 아주 좋으며 뛰어난 보습효과가 있음
– 세안시 당기는 감이 없고 피부보호막이 형성하여 부드럽고 촉촉하게 해주어 생기있는 피부를 느끼게 해줌
– 알레르기나 민감한 피부에도 좋음

※스님, 불자님, 공부하는 학생, 진한 향을 싫어하시는 분 등을 위해 만든 최고급 천연 연꽃미백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구성 천연 연꽃 미백기능성화장품 蓮 1개 + 순식물성 천연연꽃 미인비누 2개
종류 여성용, 남성용
가격 ~~78,000~~ → 48,000원 (출시기념)

문의전화 (02)420-4460 (농협) 128-02-202744 김화경
제조원 : (주)스킨케어 판매원 : 연꽃미인

잘 되는 곳엔 특별함이 …

모범신도단체 노하우는?

서울 조계사와 봉은사, 불광사, 능인선원, 안국선원,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안양 한마음선원 등은 많은 신도수를 자랑하는 대표적인 사찰들이다. 이들은 체계적인 조직과 신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등 모범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크게 달라 보이지 않으면서도 뭔가 다른 그들만의 노하우는 무엇일까.



그림 · 박구원

 # 절에 가면 할 일이 있다

이들 사찰의 최대 장점은 불자들이 그 사찰에서 분명한 할 일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불자들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며 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더 열심히 신행활동을 펼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재적사찰 또는 불자로서의 자긍심이 유독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신(信) 해(解) 행(行) 증(證)'을 강조하는 영남불교대학 관음사의 경우 신도들은 60여 봉사단체 가운데 한 곳에 적을 두고 간병, 호스피스, 급식, 기도봉사 등을 도맡는다.

출판사, 꽃집, 찻집, 탁아방, 상담소, 시민선방 등도 신도들이 알아서 관리 · 운영토록 하고 있다. 아무리 궂은 일이라도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신도들은 '나도 사찰의 구성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갖게 된다.

일에 대한 책임감 · 주인의식 투철
철저한 교육 통한 '열혈 신도' 육성
특수성 살린 조직체계로 힘 발휘

 # 몰라야 다루기 편하다? No

뭣 모르고 따라하는 시대는 지났다. 대부분의 불자들은 많은 정보를 접하면서 시대흐름을 파악하는 등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능력을 이미 갖췄기 때문이다. 오히려 불자들은 사찰에서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얻거나 체험하고 싶어한다. 조계사, 불광사, 능인선원과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안국선원, 한마음선원 등의 신도교육은 이같은 불자들의 욕구를 잘 충족시켜주고 있다.

조계사와 능인선원, 관음사의 불교대학을 통한 신도교육은 엄격하기로 유명하다. 불교대학의 체계적인 모든 과정을 이수해야 신도로서의 자격을 얻는다. 그런데도 불자들은 기꺼이 교육과정을 거쳐 개개인이 '열혈신도'가 되고, 가까운 사람들을 사찰로 이끈다. 능인선원과 관음사의 성장을 이룬 가장 큰 동력이 바로 불교대학이다.

 # 핵심은 체계적인 조직 관리

체계적인 조직관리를 통해 신도간 서로 관심을 갖도록 한 점은 다른 사찰로 옮기지 않는 중요한 모티브다. 체계적인 조직관리의 포인트는 '관심'이다.

5만여명의 신도가 있는 한마음선원 본원. 200여 동단위 신행회를 묶어 37개 구단위 신행회를 이루고, 구단위 신행회들이 모여 서울, 인천, 경기 지역신행회를 형성한다. 지역 신행회는 600여 거사로 구성된 법형제회와 청년회, 학생회, 어린이회와 함께 전체신도회로 운영된다. 조계사, 봉은사, 불광사, 관음사 등도 지역에 기반을 둔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다. 신도회 자체적으로 관리토록 하는 자율적인 운영으로 효율을 높이는 점도 큰 특징이다.

반면 능인선원과 관음사는 교육체계를 그대로 신도조직체계로 연결하고, 지역단위 신행을 결합시켜 조직을 운영하는 형태다. 안국선원은 입문과정을 이수한 신도를 40여 신도조직에배속시켜 활동하도록 하고 있다.

 # 주변환경 · 특수성 십분 활용

많은 신도를 갖고 있는 사찰들은 각기 다른 환경과 특수성을 갖고 있다. 이는 때로 신도조직 관리에 있어서 장애가 되기도 한다. 조계사와 봉은사가 대표적인 사례.

'한국불교 1번지'라는 상징성 때문에 신도회에 가입되지 않은 일반 불자들이 많은 서울 조계사. 1만 5천 세대가 신도로 등록돼 있지만 신도조직에 포함된 인원은 1천여명에 불과하다. 신도조직체계를 갖추기 전부터 다니던 신도와 신도회에 몸담지 않은 기도 위주의 신도가 많기 때문이다.

조계사와 봉은사는 조직체계를 갖추기 전 신도들을 억지로 조직체계에 끼워 넣지 않고 새로 등록한 신도를 중심으로 조직을 만들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인 셈이다. 조직체계로 귀속된 신도들은 많지 않지만 신도회가 막강한 힘을 가질 수 있게 된 중요한 이유다. 신도조직체계를 십분 활용하기 위해 주변환경과 특수성을 살려 운영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불교산악인련, 청소년 환경 산행
12월 18일, 청양 칠갑산서

대한불교전국산악인연합회(총재 김진관)는 12월 18일 청양 칠갑산으로 '청소년과 함께 하는 환경사랑 산행'을 떠난다. 올해로 3회째인 이번 산행에는 산악인불자들과 회원 자녀, 청소년불자 등 100여명이 함께 한다.

특히 불교환경연대와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의 협조를 받아 환경교육과 오락시간이 마련되며 청소년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칠갑산내에 위치한 장곡사에서는 산악인불자와 청소년불자가 함께하는 법회도 열릴 예정이다. (02)735-1108

청불회, 12월 14일 송년법회

청와대불자회(회장 김병준)는 12월 14일 오후 7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2005 송년대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에서는 김병준 청와대불자회장(정책실장)의 인사말, 발원문 낭독, 감사패 증정에 이어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법어를 내린다. 법회 후에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으로 자리를 옮겨 송년사, 축배 등 송년리셉션이 진행된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등 각 종단 총무원장, 김의정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윤원호 열린우리당 이타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봉영 기자



"직장인들이여, 수요일엔 봉은사로"

서울 강남 봉은사(주지 원혜)는 직장인을 위한 수요야간법회인 '반야심경찬' 강좌를 11월 30일 시작했다. 박인성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의 강의로 열리는 이 강좌는 내년 2월 22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법왕루에서 열린다. 봉은사는 이 강좌가 끝난 이후에도 매주 수요일 직장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진은 11월 30일 첫날 60여 직장불자들이 강의를 듣고 있는 모습. (02)511-6071~3 박봉영 기자

우리단체 이사람



조종만
전력인불자연합회 사무국장

교류 · 인재양성 필요성 절감
일터불교 활성화에 진력

18개 한국전력공사 소속사업소와 전력그룹사로 구성된 전력인불자연합회(회장 이인규 · 김영만, 이하 전불련). 최근 김영만 한전 본사 영업본부장을 공동회장으로 추대, 본사 반야회와 전불련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게다가 지난달 열린 연합법회에서는 불자모임을 준비하고 있는 강원지사가 참석해 전력인불자들의 사기는 어느 때보다 높다.

조종만 사무국장(47 · 한전 거래소 계통운영처 급전운영팀 부장)은 전불련내 이 같은 분위기에 누구보다 흡족하다. 2년 동안 사무국을 이끌어오면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내심 부담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전불련 관련 실무를 담당하면서 일터불교의 어려움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참석률이 낮아 활기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일이 쉽지 않아요. 다행히 모임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서서히 형성돼 전불련 활성화의 희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조 국장에게 일터불교의 현실은 여전히 막막하기만 하다. 불자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회원이 없으면 금방 활동이 중단되는 사례를 보면서 큰 힘이 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로 인해 전불련내 각 지회간, 회원간 교류활동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회사내 신행활동에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은 잦은 인사이동과 같은 외적인 환경이 아닌 우리 내부의 나태함과 소극적인 자세입니다. 이로 인해 참석률이 낮을 수밖에 없고 자생력 또한 키울 수 없었던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오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회원들로부터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를 들으면 부쩍 힘이 난다는 조종만 국장은 10년전 한전 반야회 성지순례에 따라 갔다가 도공(道空)이라는 법명을 받고 비로소 불자가 됐다. 부모님을 따라 절에 다녔던 기억으로 늦깎이 입문을 했지만 전불련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신심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돈독하다.

"일하는 곳은 서로 다르지만 모든 전력인불자들이 같은 뜻과 마음을 지닌 불자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전력인불자들이 불교로 인해 직장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도록 함께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박봉영 기자

"환자들에 자비의 연꽃 심어주자"

건국대병원 법당 개원, 12월 10일 점안식

지난 9월 문을 연 건국대학교병원에 불교법당이 마련된다.

건국대학교병원 불교실(지도법사 법경)은 12월 10일 오후 2시 병원 지하3층 대강당에서 법당 개원법회를 봉행한다. 이에 앞서 법당에서는 약사여래부처님 점안식이 열린다.

지하4층 5평 공간에 자리잡은 법당은 앞으로 직원불자는 물론 환자와 보호자들의 기도공간으로 활용되며, 병원내 포교당 역할을 하게 된다. 병상위문, 직원불자회를 결성하기 위한 활동 등도 법당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법당 지도법사로 위촉된 능인정사 주지 법경 스님은 "기독교 민중병원으로 불린 건국대병원에 법당을 개원하게 됨으로써 공식적인 포교활동이 가능해진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며 "직원과 환우, 보호자들에게 자비의 연꽃을 심어나가겠다"고 말했다. (02)2030-7963

박봉영 기자

한가지 소원을 이루는 도량

지장영험도량 성거산 성거사 복원불사 모연문

국내제일의 지장기도영험도량 성거산 성거사가 전기합선으로 인한 화재로 인하여 대웅전이 소실되었습니다.
촛대와 향로 범종마저도 녹아내리는 높은 고열속에서도 본존불인 석가모니부처님은 하나의 손상없이 그대로 보존되는 기적가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봉안중이었던 부처님의 진신사리(직경 2mm-3mm 정도)가 약 5mm-7mm로 두배이상 커진 사실이 이번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분명 제일기도도량의 면모를 굳건히 갖추어 중생포교에 더욱더 큰 불은의 가피력을 주고자하는 부처님의 깊은 뜻인가 싶습니다.
그동안 몇몇사찰에서 부처님의 사리가 증과된 것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번에 부처님진신사리가 커진 사실은 매우 희귀하고 보기드문 일로, 커진 부처님의 사리를 친견하는 것은 몇생을 거듭 다시 난다해도 다시 만나보기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커진 사리의 가피와 공덕은 복중의 최고의 복덕이요, 최상의 공덕인 것입니다. 또한 이를 모셔둔 사찰의 영험은 뜻하는바 소원성취가 반듯이 이루어지고, 커진 부처님의 사리는 가피가 뛰어난 매우 진귀한 사리인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불자님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뜻하는바 소원성취를 모두 이루시고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합장하고 발원합니다.


▌성거사 복원불사 조감도

▌석가모니부처님

▌부처님의 커진진신사리

▌가섭존자 ▌목건련존자 ▌부루나존자 ▌수보리존자 ▌아나율존자 ▌아난존자 ▌집단대사리 ▌부처님뼈사리 ▌부처님진신사리

복원불사 동참 목록
• 용마루 : 삼천만원 • 대들보 : 500만원 • 창 방 : 500만원
• 기 둥 : 500만원 • 석가래 : 100만원 • 도 리 : 200만원

불상 동참 목록
• 아 미 타 불 : 일천만원 • 관세음보살 : 일천만원
• 대세지보살 : 일천만원 • 문 수 보 살 : 일천만원 • 보 현 보 살 : 일천만원

불사 동참 계좌
• 농협 : 485110-56-018723 / 485049-56-017713 (예금주 : 성거사)

불사 동참자 현황
김화순 안희숙 최미자 안치영 고영인 유성용 이동우 장현순
백병국 김진옥 전경옥

◆ 시주 공덕자의 성함을 영구히 봉안해 드립니다 ◆

대한불교조계종 지장도량 성거사 불사위원회
충남 천안시 목천읍 송전리 ☎ 041)567-6820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문의 : TEL 02)2004-8213~6 FAX 02)737-0696
▷ 계좌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가격 : 1Box(4.4×4.4) 4만원

사찰의 각 행사 해드립니다
천도재, 49재, 점안식,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 회심곡, 호적
행사문의
010-4870-8359
범음범패 연수원장 덕산 합장

천도재, 점안식, 49재, 바라춤 학인스님, 행자모집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불교 범음·범패 교육도량
대구팔공산 구화사(한티재)
010-4816-6454

불교범음범패전통의식전수자모집
부산 경남 범음 범패 불음대학
의식스님 필요시 연락 바람
교육문의 011-584-5588 법수
행사문의
011-869-8560 진우

각 불공의식 해 드립니다
점	천도재 49재	수	각	사	바라나비	경
안		륙	시		춤	전
식		재	식	물		

학인행자모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역학 개인지도
'계절이 운명을 바꾼다'
저자 김창규 원장 강의
적중률 높은 학설로 누구나 쉽게 단기간 완성(역학·관상학)
미래음양회 010-9959-8894
02)2231-8894
서울 지하철(2,4,5호선) 동대문운동장 해송빌딩3층

사주명리학 확실하게 배우실 분
사주,신수,궁합,택일,작명 기타
주2회(1회2시간씩) 4개월간
초보에서 간명연수까지
책임완성 (수강과 동시 부업가능)
6호선 망원전철역 2번출구 인근
해동명리교육원 02)336-8484

급 안내
준비되어있는 아이템
무료로 유통사업하실 분
불교선물 상품
특허출원중 SBS방송된 상품
성공이 보장된 아이디어 상품
• 조건:불자님, 유통경험있는분
017-533-1356

역학개인지도
명리학,성명학,택일,풍수
개업 책임지도(고급반)
※ 스님. 특별우대 ※
반야선원. 혜공합장
02)421-8494

알 림
벌에서(양봉) 채취한
로얄제리 프로폴리스는
우리인체에 항균, 항산화,
면역증강을 시켜준다.
016-779-2237
일림사 도원 합장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눈
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노환으로 작은글씨 안보이시는 분
눈흐림, 눈건조, 눈부심, 침침함, 눈빨빨함, 눈곱, 충혈, 시력강화, 렌즈착용 하신분
섭취하고, 반응 없을시 100% 환불
구입문의 (02)2631-2205,1305

불교범음범패전통의식 전수자 모집
기초부터 특수반까지 여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도
바라무 작법무 기타 법무
개인지도 각 행사 대행해드림
영남불교전통범음범패전수원
051)554-1518
011-849-0961

정통 中國 六壬家의 소장비본 육임학 비법전수
- 평생운, 流年運, 인간사 吉凶의 정확한 예측법
- 육임 공부 후 課, 傳 해석이 안 되시는 분
- 타 지방 거주자 통신강의 가능
매월 2,4주 목요일 무료공개 강의
御定六壬學會
(어정 육임학 전문 연구학회)
055)362-2799
010-4850-3900

열린건강교실
(한국생활익지공협회)
생활기공수련비디오
테이프/CD/DVD - 국내최초
가격 : 1만원(무료건강상담)
※웰빙기공산삼요법-후불제
대구시(053)625-3118번
홈 www.gigong.ne.kr

황토베게
• 한방신침: 장수, 일명 수험생 베개
• 국화꽃: 두통 스트레스 해소
• 결명자: 눈 밝아짐, 숙면, 두통
• 녹차: 심신안정
• 약쑥: 신경통증
단체주문 할인 판매점모집
0505-817-1425

氣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 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원격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전세계에서 레이키(Reiki. 靈氣) 밖에는 없습니다. 9년 동안 스님, 거사님, 보살님등 많은 분들이 배웠습니다.
• 우스이 레이키 70만원 교육기간 2~3일
카루나 레이키 40만원 교육기간 1일
• 현대생활레이키 연구회 / www.reiki.co.kr
(한글검색어 : 레이키)
전화:02)720-5719/720-5682

모든 불공의식을 저렴한 보시금으로 지극정성껏 해드립니다
천도재, 점안식,
구병시식, 신명의식
011-850-0176

점안식, 천도재, 49재, 천수바라, 작법, 태평소, 사찰 재·의식
행사해 드립니다
010-9444-1608
무아 합장

학인스님 모집
한국불교태고종 양산교구 종무원에서 무보시 제 2기 학인을 모집합니다
1. 49재 의식, 천도의식
2. 다라작법 3. 사물
055)381-1199
055)383-6676

참선공부 하러 오세요
선방개방(무료)
매일 오후 1시~ 4시(3시간)
저녁 7시~10시(3시간)
참선수행을 배우고 싶은 분은 별도지도해드림
부산 북구 화명동 지하철 수정역 1번 입구
4층 여래선원
051)362-0339

불상(급)안내
지장대불을 모실분을 찾습니다
• 위치 : 경북
• 높이(좌대포함) 23석자 옥촛대, 향로, 다기-한세트, 초꽂이 180개
• 대불 모실분에게 3,000만원 드리겠습니다.
• 꼭하실분만 연락요망. (2회 분할가능)
010-6512-1237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055)854-1488

비구니스님 사찰임
(여)스님이 되시고 싶은 분을 기다립니다
011-727-1514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위치 : 조계사 앞
02)733-0108

야간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 전공하실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포항
017-502-731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전북지역
016-779-2237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기 이천
031)634-5728

각 지역에서 활동하실 화주보살 모십니다
(불사현장 답사환영)
010-6753-111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깊은 산속, 60세 미만)
011-696-8500

공양주, (女)사무직, 비구니부전스님 신원확실하고 건강한분 모십니다
(40~50대) 조계종 사찰
011-828-361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함께 생활하실
내외분도 환영합니다
(경북 청송군 진보면)
054)873-4838
011-538-2321

미국에서 주석하실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비자 가능하신 분만 연락바람)
042)282-9270
042)282-7188

인연찾음
자기수행과 도량을 살피고 이끌어갈 30대 전후 비구, 비구니, 공양주 구함
- 전통의식 전수, 지원
한국불교태고종 율림선원
031)867-1801~2

공양주 보살님
- 스님의 길에 뜻을 둔 30대 전후 여성
- 불교전통의식 수료 후 수계, 득도까지 지원
- 일본어 책임 지도함
한국불교태고종 율림선원
031)867-1801~2

총무보살님 모십니다
031)971-0208

팔공산 청정지역 비구스님이 운영하는 사찰에서 몸과 마음을 부처님전에 맡기시고 남은 여생을 마음편히 살아가실 불자님을 모십니다. 안락한 노후를 보장합니다.
011-790-4809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진해 신축 조용한 사찰임
▷보시금 월 70만원
052)282-8793(울산)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함께 생활하실
내외분도 가능합니다
▷부산 기장(조계종사찰)
011-875-9502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50세-60세)
010-7160-27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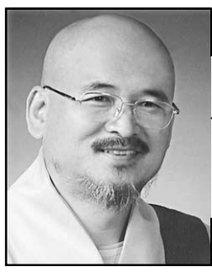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시 사하구 장림시장 근처 인구 밀집지역
• 건물 : 4층 건물 2층에 총 30평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 시설 : 사존불 및 각단 후불탱화 있음, 지장단,신중단, 영가전, 에어컨 및 고급 앰프 시설 일체 구비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2000만원(시설비는 답사후 절충가)
051)264-5540
016-318-0269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시 서구청 뒤
• 대지 : 약20평
1층 요사채 18평,
2층 법당 18평 예날 기와집
• 가액 : 9천5백만원 (융자 3천만원)
• 특징 : 국제,새벽,자갈치 시장 5분거리
• 노스님이나 비구니스님께 적합
약20년된 절
0502-244-3888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순천시 덕월동 897번지
• 임법당 30평, 삼존불, 약사전, 지장전, 신중단, 영가단, 산신각 10평, 방3개, 앰프 집기일체
• 즉시법회가능. 몸만오시면됨
• 시설비 800만원. 월 8만원
061)745-0108
010-8412-1357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내
• 대지 125평, 법당, 산신각, 독성각, 요사채 3동
• 가액 : 1억 5천 6백만원
• 사정상 급히 땅값이하 계산합니다.
011-380-5611

사주 운세 10초내 맞추면 입금
명리학질문 10초내 답변/사주첩경 통달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혼사지연, 이혼, 부부갈등, 학업성적부진, 가출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립니다.
굿이나 부적 등 부담드리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www.10cho-unse.com
24304-3396114 하나은행(예금주 : 김진동)
02)826-5067에서 전화상담 중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 사주, 작명, 궁합, 택일 • 기초부터 5개월
• 대상 : 누구나 가능 • 주4회, 1일 1시간씩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해서 보내드립니다.
FAX 051)867-7438
부산 송광정사 開設 051)867-8438
지하철 시청역 6번출구에 있는 골목 50m

사주특별개인지도
• 사주와 28숙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을 빠른시일내에 쉽게 알려드리며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대한불교전통조계종 행자모집
스님 되실 분 남 0명 · 여 0명
• 5개월 수행 후 전국사찰 소임 • 사찰 등록하고자 하는 분 환영
경북 칠곡군 지천면 황학리 황룡사
054)972-3174 / 011-502-3966

행자[예비스님, 남·여]모집
• 행자원 있음(엘리트 스님 양성목표 - 45세미만)
• 1인 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수행 • 산중 감포분원 및 대구 큰 절 중 택일
• 수행,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행자문의: 011-9852-0075(총무스님)
※ 단기 한시적 출가도 가능 ▷ 도심사찰 최신의 납골당 있음◁
전국 제1의 불교대학! 도심속의 7층 정법대사찰 TVbuddha.co.kr
대한불교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053)474-8228

사주통달책임지도(성수철학원)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국내외 제자 200명 왕성히 활동중)
• 지도교수 : 백운 성수 (회장) 부교수 약간명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 한달만에 모든것 완전 통달함. 교육 이수 후 월 250만원 보장
※전화 감정 대환영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전국 최대 회원 양성 교육기관임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제일악국(2층) 봉산동 가구 네거리
053)255-4784, 256-4784 휴대폰 : 018-531-2237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山蔘으로 효력을 못보셨다구요?!

蔓蔘(만삼)을 권합니다
최상의 신비스러운 영약!

저는 강원도 정선 불암사 신도로서 주지스님의 권유로 심심 산골의 山田을 마련하여 만삼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여자들에겐 산삼보다 효능이 좋다하여 명문대가 부인들만이 해산 후 몸조리에 사용할 정도로 귀한 약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삼은 독성이 전혀 없고 성질이 평하여 체질에 관계없이 男女老少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며, 어떠한 식품과도 궁합이 잘 맞는 좋은 건강식품이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만삼을 복용 후에 자랑을 하십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문헌에는 고려인삼보다 蔓蔘이 좋다고 실려져 있습니다. 장뇌산삼(長腦山蔘)을 복용하고도 별 효험을 못보신 남자, 여자분들이 만삼(蔓蔘)을 드시고 탁월한 영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아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 약효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 ✲

• 기관지가 좋아졌다.	• 변비가 나았다.
• 만성위염이 나았다.	• 혈색이 좋아졌다.
• 사지무력증이 나았다.	• 기력이 좋아졌다.
• 천식이 떨어졌다.	• 백혈병이 나았다.
• 만성피로가 없어졌다.	• 아프던 무릎관절이 안 아프다.
• 몸에 부기가 빠졌다.	• 손발이 저리고 시린 것이 없어졌다.
• 임파선이 나았다.	
• 자궁 물혹이 없어졌다.	

❖ 스님들께는 시주불사하는 마음으로 염가에 드리고자 합니다.
(생물 : 시중가 10㎏당 40만 원을 20만 원에 드리겠사오며, 단, 10㎏ 단위 이상만 택배가 가능합니다.)
❖ 사은행사 :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감사드리는 마음을 담았습니다.(100분 한정)

~~• 1Box(60포 : 20만원)~~ ~~• 2Box(120포 : 35만원)~~
1Box(60포 : 15만원) 2Box(120포 : 25만원)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동면 호촌리 323번지
• 연락처 : 033)563-8292 / H · P : 011-9242-8292
홈페이지 www.mansam.net
• 계좌번호 : 농협 315024-52-012392 (예금주 : 심정택)

불확실한 시대의 평생직업! 자격취득을 위한 절호의 기회!

무료역학사 양성 특별강좌
귀의 삼보하옵고 항상 좋은 만남이 되게 하소서!
금번 본원에서는 신도확보 및 포교의 일환으로 동양학 연구회의 자문과 강사진의 지원을 받아 역학사 자격취득을 위한 특별 무료강좌를 아래와 같이 개설코자 합니다.

무료역학사 양성 특별강좌

• 과 목 : 1.불교기초교리 및 예절, 동양철학 기초 (특별반, 일반인 대상)
2.사주명리학, 관상학, 풍수지리학, 상담비법/비방, 육효 구성 육임 등 (전문자격 취득반 대상)
• 개 강 : 2005년 12월 16일
• 기 간 : 특별반 1개월, 전문 자격반 5개월
• 자 격 : 불교 및 동양철학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학력 남여 년령 제한없음)
• 장 소 : 지하철 이수역(4,7호선 2번출구) 국민은행 뒷건물 4층(덕원정사)
• 특 전 : 우수자 본회 정회원 및 학술위원 위촉, 전문반 이수시 전원 취업보장, 전문상담실 개설시 전폭지원.
• 접수 : 전화접수 02)533-6258
• 접수기간 : 수시접수
※특히 사업기반이나 경험이 없고 직업이 없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주최 : 덕원정사 02)595-4167
지원 : 동양학 연구회

원시침술
인체의48혈을 한침하나로 활혈하여 모든 경락과 오장육부의 기혈을 소통시켜 만병을 다스리는 신법
• 자궁관정법 : 여자는 자궁이 제2의 생명이다. 자궁이 깨끗해야 검버섯, 기미, 등이 없어지며 면색이 윤택하며 자궁근종, 자궁암, 불임 등 이 예방된다.
• 대장관정법 : 약물을 대장에 기구를 이용직접 투입 하여 숙변을 깨끗하게 녹여 내어 대장암, 깨스, 변비, 설사를 멎게하는 대장청소법
• 추나요법 : 뼈를 밀고 당겨서 척추 측만증, 협착증, 목 디스크, 견비통.요통.오십견을 낫게함 (신체에 누적된 독소를 제거) 하는 혈자리 치료법으로 신체 나이를 되돌리는 법과 (머리에 누적된 어혈제거) 법으로 미용, 치매, 중풍, 간질병을 치료하는 신법

▶강의일정
(1차강의) 12월17일 저녁 5시 30분부터 ~ 12월 19일까지 3일간
(2차강의) 12월24일 ~ 26일까지 3일간
▶수 강 료 : 일금 95만원
※ 수강 신청은 선입금후 전화 요망
예약 하신분만 수강 가능함
농협 284-12-119538 (예금주 : 김애성)
• 찾아 오시는길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4동 229-1번지

동양 의학 교육원 016-552-2159

- 매일경제신문 인체 경영학 연재 -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 해독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몸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지면서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옥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희소식이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 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답답해 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원액은 우리땅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쓰레기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 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 록 원
www.chorokwon.com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 02)732-1522 (直), 02) 2004-8200 (代)
· 전송 : 02) 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 위치 : 경북	● 위치 : 경남
● 법당 : 64평	● 법당 : 20평	● 법당 : 70평
● 요사 : 80평	● 요사 : 50평	● 요사 : 30평
● 부지 : 430평	● 부지 : 125평	● 부지 : 33000평
● 가액 : 13억	● 가액 : 1억8천	● 가액 : 40억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미래공인중개소) 02)998-1994 011)713-5634

사찰안내

1.양평목조사찰3천평-8억
2.대구북구사찰350평-8억
*기도스님.노전,부노전스님
*공양주보살님,법당보살님,
화주보살님.종무행정직.경리,
운전직.사무장.시자보살.49재
천도재,점안식신속연결

※ 사찰일자리정보센터
현대불사 02)555-0575

사찰안내

● 위치: 경남 김해시 소재(장류)
● 부지: 140평 (종교용지)
● 법당: 30평(2층)
요사 90평(1,2층)
● 가액: 3억3천9백만원
(절충가능)
● 특징: 2개동 건물을 2층으로
신축한 사찰

011-9542-5726

사찰안내

● 위치 : 부산시 하단동
● 법당 30평
요사 20평
부지 73평
● 가액: 1억8천만원

010-8955-5535
055)338-3020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안강읍
● 대지: 약 100평
1층 34평 요사채
2층 24평 법당
● 특징: 시장옆 주택 밀집지역
● 가액: 2억2천만원

054)763-6655

사찰 안내

● 위치: 가평	● 위치 : 경남
● 대지: 97평	● 부지: 630평
● 법당: 30평	● 법당: 20평
● 요사: 46평	● 요사: 3동52평
● 가액: 1억9천	● 가액: 2억5천

※ 전국사찰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주세요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부근
● 4층 법당 45평-삼존불,
엠프시설등 제반시설완비,
5층 요사채 45평-에어컨 등
모든시설 완비
4,5층옥상사용가능
● 몸만 오시면됨. 즉시 법회 가능
● 시설비 절충가능

011-9527-3461

사찰(급)안내

● 위치: 부산 서구 남부민 1동
● 평수: 약 399평
● 법당 15평, 방4개, 산신각,
용왕각, 화장실, 총각등
시설완비
● 가액: 2억 6천만원
● 도로에서 50M로 전망
좋은 곳입니다

011-580-1407

포교원 안내

● 위치: 노원구 역세권.상계역 3분거리
최적의 위치. 주거 밀집 지역
● 2층-스님방, 종무소
3층-방3, 거실 겸 공양간, 세면실
● 2, 3층 사용시
보증금 1,100만원 / 월100만원
2층만 사용시
보증금 1,100만원 / 월80만원
● 시설비없음

02)952-8131

포교당 안내

● 위치 : 일산
● 평수 110평 (7층 중 3층)
● 법당 50평, 요사 60평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에
월 100만원
시설비 : 답사 후 절충
※ 최상의 포교당으로 사정상 안내함

011-9366-1129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 아파트 밀집지역 시장 사거리
● 평수 : 50평(3층 건물중 3층), 옥상 50평 사용 가능
● 큰방3개,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 법당 앰프시설, 법당 주지실, 에어컨 설치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1-9391-8117

사 찰 안 내

(토굴)

● 위치: 경남 김해시 소재(장유)
● 부지: 약 200평
● 법당: 40평(임법당, 방4개)
● 가액: 1억5천만원
● 특징: 도심인근의 조용한 토굴로
건물은 현대식으로 지었음

● 위치: 대구시 소재
● 부지: 약100평
● 법당: 30평(2층 임법당)
● 요사: 30평(1층)
● 가액: 1억 5천만원
● 특징: 산밑의 도심사찰임

좋은인연 됩시다 ※ 전국 소재 사찰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대구 018-689-0455/서울 018-536-4064

토굴터안내

● 위치: 대구근교 군위IC
5분거리
● 대지 : 169평, 임법당 : 25평
● 배산임수 명당절터
● 가액: 4천8백만원
전세가능

011-9585-4908
054)383-8553

포교당안내

(싸게 인수 하실 분)

● 위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 평수: 45평 3층건물중 2층
● 시설: 삼존불, 고급후불
탱화 3점, 집기일체
● 몸만 오시면 됨
● 보증금 1천만원, 월 30만원
3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 답사 후 절충

016-261-2068

사찰안내

● 위치: 해남군
현산면 고현리
● 대지 : 350평
● 건평 : 30평
● 가액 : 6,300만원

061)533-9046
011-631-2954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천안 통제
천안시내에서 15분거리
● 평수: 대지 62평, 법당,
산신각, 요사2채
● 가액 : 5천 만원

011-209-5506

포교당 안내

● 위치: 충남 예산군 덕산면 소재지
● 평수: 38평 3층
● 삼존불 각단탱화, 앰프, 집기일체
● 즉시법회가능, 몸만오시면됨
● 전세 1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500만원
● 덕산온천 옆 4일 9일 장날

041)337-8078

사찰안내

● 위치: 전남
● 부지: 1000평
● 법당: 40평(목조, 포집)
● 요사채: 50평
● 산세좋음, 역사깊음
● 양도가 10억

한국 011)688-3521
불사 011)530-1975

비구니스님으로 아담한 사찰안내

● 전주시 중심 단독상가주택 1층, 2층
● 대지 110평 8×8미터 코너접
건평 120평 1층상가 6개 2층법당
온돌난방 입체 100평, 칠성산금탱화 입체
50평, 신중산금탱화 입체 50평 부처님 법당,
홍송조각 3단 15자 부처님 삼신불 4자반
지신있게 갖춘도량임 와벽함
● 1층상가6개에서 매월 임대료 120만원 나옴
● 총가액 4억7천만원중 상가 보증금 빼고 2억6천이며
개인사찰 등기완료. 융자가능 답사해서며 의논바람

032)667-8485
011-650-8481

사찰(급)안내

● 위치 : 포천시 소흘읍
(의정부 근교)
● 대지: 350평, 하천부지: 180평
1층 요사채 80평, 2층 대웅전 35평
대웅전앞 반지하 70평
● 개인 위패반 및 부부 위패반 980단
● 가액: 13억5천만원
답사 절충 후 가능

011-9105-724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녕 유어면
● 대지 150평,
법당 목조 12평,
요사채 벽돌 25평
● 가액 : 7천8백만원

016-652-7547

포교당안내

● 위치 : 암사동 현대아파트 정문앞
지하철역 인근 대로변
● 법당: 35평 큰방1, 옥상방 3개
● 옥상: 35평 총 60평이상
● 스님 노환으로 사정상
● 가액: 보증금 5천만원, 월 80만원
시설비 2800만원

011-714-3635
02)481-3635

사찰안내

● 위치: 대구 팔공산
파계사옆
차로3분거리
● 절터 평수 662평
● 대로에서 산속으로 850m
인허가 받아줌
● 가액: 9억

010-3120-4017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지리산 면 소재지
● 평수 : 500평 건평45평, 법당1, 방4,
수세식 화장실(남 여)슬라브
● 절안에 4대 이상 주차, 물좋고
공기 맑음 경치 그만, 조경 잘되어 있음
● 가액 : 9천5백만원

018-565-2042

적은 돈으로 포교원 운영하실 스님

● 위치 : 서울 사당동
(전철역 3분거리)
● 법당 30평, 주방겸 방2개
● 아미타불, 관음, 지장,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 가액 : 답사 후 결정

0502-080-0205

토굴 안내

● 위치: 충남 청양군 대치면 개곡리
● 건물 39평, 심야전기보일러,
철근콘크리트 건물.
● 대지 400평, 전 300평, 임야 2천평
(준농림지 대지로 용도변경 가능함)
● 특징 : 칠갑산의 장곡사 인접지역과
행정복합도시 인접지역.
● 가액 : 2억

011-434-7209

사찰(급)안내

● 위치 : 울릉군 울릉읍 ● 대지 1,000평
● 법당25평, 산신각1분, 용왕각1동
요사채 40평(2채) ● 가액 : 3억 5천만원
● 공시지가 : 6억 (평당 6십만원)

사찰(급)안내

● 위치 : 해운대 벡스코(신시가지 입구)
시립미술관 2번 지하철 출구 앞
● 6층건물 6층 : 120평 공간에
법당,요사채가 65평, 몸만 오시면 됨
● 가액 : 전세 5천, 시설비 4천(양도가 9천만원)

011-500-1777

암자안내

● 위치: 경남 의령
● 산세 좋음 ● 가액: 절충

사찰(터)안내

● 평수: 600평 ● 종교부지 300평
● 기초공사 전기 물 되어있음
● 가액: 3200만원

010-3189-3525
055)573-7832

토굴,사찰, 선방부지 안내

● 위치: 지리산~덕유산 사이
백두대간 주능선 50m
● 관리지역 : 대지,잡종지,전 합1600평
● 건물현황: 황토방5동,강당1동,
창고2동,사무실1동,취사동1동
● 이전관계로 매매 합니다.
● 매매가격 5억2천

주인직 010-3684-9288
오후 2시 ~ 6시사이 통화

사찰(급)안내

● 위치: 부산 해운대구 석대동
● 대지: 2300평, 법당, 요사채
● 보증금 5천만원
시설비 4천만원
● 가액 절충가능
● 몸만 들어오시면 됨

051)525-8785
011-9533-2389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거창군 웅양면(일반주택 사찰)
● 대지: 150평
● 건물(시설) : 30평(건물 2동), 삼존불,
각단탱화
● 법당 : 사찰내까지 차들어감,
시세보다 싸게 급매
● 가액 : 6천 3백만원 (웅자 2천만원 포함)

019-503-7959

포교원 안내

● 위치: 서울 중랑구 망우3동
면목역 도보로 10분거리
● 평수 : 4층건물 3층, 약 70평
● 시설 : 법당, 방3, 거실겸주방,
욕실, 창고, 주차장, 환기시설,
에어컨, 주방시설 일체.
● 가액 : 전세 1천만원에
월 100만원
시설비 : 방문 후 결정

011-271-7603

포교원 안내

● 위치: 강원도 속초
● 건평 60평, 내부시설 황토,
전통 쑥뜸 좌욕기 시설 완비.
● 포교활동과 환자치료하실
스님은 더욱 좋은 곳
● 가액 : 1천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 몸만 오시면 됨

011-790-4809
033)631-4831

포교당 안내

● 위치: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포교원 35평 2층
● 전세 500만원 월35만원
● 포교당
(시설비 협의가능)

018-506-4059

토굴 안내

● 위치: 천안시 인접
(뒤 산, 앞 국도)
● 법당 15평정도 방4개
(입식 주방), 화장실(욕실) 2개,
살기 편하게 시설완비(종중 땅)
● 가액 : 4천3백만원
(시설비 포함)

010-3075-8951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사천
와룡산 줄기
(물 좋고, 경치 수려함)
● 대지: 3000평
● 대웅전(기와), 용왕전,
산신각, 요사채
● 가액: 2억 3천(절충가)

017-557-2386
010-2314-8402

토굴안내

● 위치: 북영천 IC에서
청송방향10분 산중턱
● 밭 632평
● 암자 한채
● 가액: 6000만원

010-2775-4035
031)253-3935

포교당안내

● 위치: 김해시 어방동. 아파트 밀집,
상가시장, 대형마트 동김해 최요지
● 평수: 46평. 5층건물중 4층. 방2개, 법당, 공양간,
시설1년, 냉난방시설완비, 주차시설완비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500만원(절충가)
● 최면, 사주, 요가, 풍수, 수맥,
대체의학 전수가능. 무료 전수

011-834-8545 / 055)337-8600

사찰터 안내

● 위치: 경북 김천시 구성면
● 면적: 2만평
● 산세가 수려하고
돌로둘러싸인 팔각정
천하절경명산으로
소문난 명승고적지
● 가액: 2억6천만원

054)433-3533
011-9570-3533

사찰(급)안내

● 위치: 대구 수성구 가창교 부분
● 대지: 60평, 채소밭 40평
● 법당, 삼존불, 방6개, 부엌2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또는 보증금 5000만원 월 30만원
답사후절충가능

011-9357-5677
017-504-4050

사찰안내

● 위치: 부산 연산동 (조용한 기도도량)
● 대지 30평 外 70평 사용가능
법당 14평, 공양간, 주지실, 산신각, 노천
약사부처님 7자반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에 월 40만원
(보증금 3천만원에 월 30만원도 가능)
● 시설비 답사후 결정, 차량진입 가능
버스, 전철 도보 8분거리

017-581-0173

사찰홈페이지 제작
법문, 불경 녹음
테이프, CD 제작
디지털음원편집
성금모금 ARS
(주)서광아이앤티
본사 :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3가 43-1 원광빌딩
Tel : 02-711-2922 Fax : 02-711-2924
녹음실 :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66-8 A동 103호
Tel : 02-336-7555 Fax : 02-336-2443
24시간 상담전화 : 0505-336-7555

사찰, 법당, 앰프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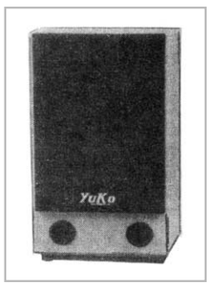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DX-707 스텐드 마이크 하나만으로도
법당의 소리가 3배 좋아집니다!



염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마이크 가격 : 250,000원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비구니스님 특별우대!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5-3235, 2601-8284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의성군 안계면
● 대지 : 150평
● 건평 : 54평중 조립식 7평
(방1, 수세식화장실) 목욕탕,
입법당 47평(재래식 화장실2,
창고1, 방1, 목욕탕1)
기름보일러, 거실 50명 수용가능
뒤는 산 넓은 마당
● 가액: 3천9백만원

019-265-2426

토굴부지안내

● 위치: 경기도 양평군 용두리
● 대지: 141평
● 재무부 소유
사용가능한 땅 150평
합 291평
● 30평 가옥,
콘테이너 한채

010-6393-9627

사찰(급)안내

● 위치: 강원도 정선군 인계면
● 법당: 20평 산신각 5평
● 요사채 18평 구가옥, 차고
● 산을 끼고 있음, 밭있음 총 3300평
● 가액: 3억 융자 7900만원

010-3179-297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덕군
● 법당 20평, 요사20평,
특기상 623평,
실평수 1500여평
www.yaksaam.wo.to (사찰전경)

사찰(부지)안내

● 평수 : 1천여평
● 바닷가, 수행처 적합,
전용허가 200평,
상수도 도로 완비

010-7109-3281

포교당 안내

스님 건강상 포교원을 운영하실
원력있는 스님을 찾습니다

● 서울 신림동 (2층중 2층)
● 석가모니, 관음, 지장, 삼존불과
후불 및 신중탱화 봉헌
지장보살 원불 297불
● 전체 30평 : 법당,주방,
방1,화장실
● 가액 : 보증금, 시설비 포함
5천만원에 월 50만원
※ 12년 포교한 곳

010-2304-2221

포교원 안내

● 위치: 경기도 부천시
● 평수 : 2층,3층 합 70평
● 2층 : 대중방, 접견실, 스님방
3층 : 법당(삼존불, 지장보살,
산신-각단탱화)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에
월 60만원. 시설비 2천만원

010-3167-1774

‘화두정신’ 상실 간화선 위기 불러

박성배 교수 “화두를 방법으로 보지 말라”

보조사상硏 국제세미나… 해외 간화선도 점검

최근 ‘간화선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다. 위빠사나를 필두로 다양한 수행법이 확산되면서 대표 수행법으로서의 간화선 위상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조계종이 <조계종 수행의 길-간화선>이라는 간화선 지침서를 펴내고, ‘간화선 기본 수행프로그램’을 내놓은 것도 그런 위기의식의 발로인 셈이다.

이 같은 ‘위기’ 상황에 대해 박성배 교수(미국 뉴욕주립대)가 간화선 수행 풍토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박 교수는 11월 26일 서울 법련사에서 ‘간화선 수행전통과 현대사회’를 주제로 열린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 국제학술대회에서 “간화선 위기는 다양한 수행법의 성행이 아닌, 화두정신이 실종된 장삿속 말장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오늘의 수행풍토를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기조강연에 이어서 라이용하이 교수(중국 난징대), 니시무라 에신 교수(일본 하나조노대), 종호 스님(동국대 교수), 서명원 교수(서강대)가 해외의 간화선 위상과 발전가능성을 점검했다.

▮화두정신 되찾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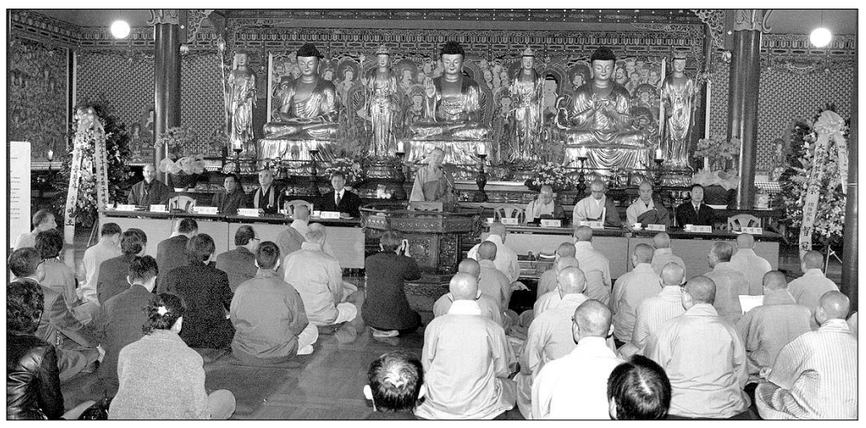
박성배 교수가 말하는 화두정신이란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중생을 즉시 부처님 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이다. 박 교수에 따르면 그 같은 화두정신만 있다면 새벽녘에 떠오르는 샛별도 화두요, 봄에 피는 꽃, 가을에 지는 낙엽 등 모두 화두 아님이 없다.

그렇다면 위빠사나, 간경, 사경, 염불, 주력 등의 형식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문제는 화두정신이 살아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간화선 수행자들 사이에서 화두정신이 실종돼 부처님으로부터 등 돌리게 하는 화두, 즉 사구(死句)만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 박 교수의 문제의식이다.

이 같은 병폐의 원인으로 박 교수는 화두를 하나의 ‘방법’으로 간주하는 풍조를 들었다. 3자 입장에서 말하면 화두가 방법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말길이 끊어지고 뜻 길이 끊어지고 마음 길이 끊어진 경지에 들어갔다면 화두를 방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





국제학술대회가 열린 법련사 법당을 많은 이들이 찾아 관심도를 반영했다. 왼쪽사진은 기조강연을 한 박성배 교수.

박 교수는 “화두를 방법으로 보는 것은 선에 대해 점(漸)적인 이해를 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라며 “시간의 틀 속에 갇힌 점적인 접근은 화두를 방법으로 보게 하고, 깨침은 그런 방법을 통해 나중에 이뤄져야 할 ‘어떤 것’이 돼버려 화두와 깨침을 둘로 만든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간화선을 절대화하기보다는 화두정신을 지키면서 각자 자기에게 맞는 수행을 택할 수 있도록 문호를 활짝 개방하는 것이 부처님 뜻에도 맞고 다원화 시대에도 맞다”고 강조하며 “간화선이라는 이름에 얽매이기보다는 화두정신만 갖고 있다면 그게 조계종이고 간화선이라는 정신혁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병헌 서울대 교수도 총평에서 “간화선의 역사는 도그마를 깨는 과정이었음”을 상기시키며, 도그마에 갇혀버린 간화선의 현실을 비판했다. 최 교수는 “당송대나 고려대의 간화선이 아닌 오늘날 우리 각자에게 해당하는 간화선이 절실하다”며 “화두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구에서의 전망 어둡지만은 않아

이처럼 국내에서 위기를 맞고 있는 간화선은 해외에서도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조강연에 이어진 발표에 따르면 유럽과 미국에서는 티베트 불교의 위세에 밀려 간화선 보급이 저조하며, 간화선 수행전통이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일본과 중국의 경우에도 간화선의 위상은 높지 않았다.

일본의 경우 임제종을 중심으로 간화선이 남아있으나 묵조선에 비하면 열세이며, 중국에서는 간화선 전통이 거의 사라진 가운데 섭심관정(攝心觀淨)과 염불선이 많이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간화선이 서양에서는 물론 동아시아에서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음에도 서명원 교수는 “서구에서 간화선의 전망이 어둡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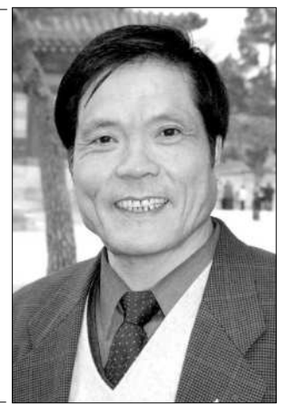
서 교수는 “인도의 불교가 중국에 들어와 정착하는 데 200여년이 걸렸듯이 간화선이 서양에 토착화하는 데도 수 세기가 걸릴 것”이라면서도 “서양에서 간화선의 미래는 밝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는 “서양 기독교의 은수생활(隱修生活)이 간화선 수용의 밑거름이 되고 있으며 기독교의 위기가 간화선 수용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은수생활은 숨어서 고행과 절제를 하고, 호흡에 맞춰 자나 깨나 예수의 이름을 외우는 ‘마음의 기도’를 기도방법으로 삼는, 일종의 기독교 쇄신 운동이다. 여기서의 마음의 기도가 간화선과 통하는 면이 있다는 것이 서 교수의 견해다.

서 교수는 “진리의 역동성을 상실하고, 추상화 · 절대화되고 있는 기독교를 쇄신하는 데 간화선이 큰 자극이 될 것”이라며 “불교와 기독교가 공존해야하는 오늘의 한반도 현실은 기독교인을 위한 간화선을 꽃피우는 데 유리한 조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글 · 사진=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불교의 현대화 ‘인간불교’가 코드” 첫 방한 라이용하이 中 난징대 교수



“인간불교가 지향하는 인격의 완성은 보살의 실현입니다.”

중국불교학의 권위자로 꼽히는 라이용하이(賴永海) 중국 난징대(南京大) 교수(사진)가 보조사상연구원 국제학술대회 참가차 처음 방한했다. 라이용하이 교수는 중국불성론 연구로 세계적인 학자 반열에 오른 중국의 대표적인 불교학자.

라이용하이 교수는 “전통불교가 현대사회와 맞지 않는 면이 많다”며 “중국에서는 전통불교를 현대화한 인간불교가 필연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와 관련해서 라이용하이 교수는 “인간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격완성이라는 점에서 불교의 요체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셈”이라며 “인격완성이란 ‘훌륭한 사람’과 구별되는 것으로 보살이나 부처가 되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어떻게 인격완성을 이룰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주어진 교육 · 학습 ·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인격적 각성을 도모함으로써 실현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불교에 대해 라이용하이 교수는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31>

허공의 과학

‘공’이라는 말 만큼 불교의 중요개념 가운데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없다. 많은 사람들은 비어있는 공간을 떠올리기도, 천체 물리학자들은 우주의 비어있는 공간과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자의 비어있는 공간에서 비슷한 허공의 패턴을 발견하기도 한다.

<능엄경>에서 부처님은 인간의 인식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우리의 인식 바탕이 모두 ‘공’함을 설명하신다.

육입 즉 외부 세계를 인식하는 여섯 가지 통로인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뜻이 모두 자체의 성질이 없음을 지루할 정도로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눈동자를 고정시켜 한 곳을 주시하고 있으면, 여러 가지 모양(경전에서는 헛꽃이라고 표현)이 보이기도 하고, 신비한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 참선을 하거나, 기도를 하다보면 경험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를 신비한 종교적 체험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를 허망한 것으로 설명하고, 오히려 이러한 체험을 우리가 인식하는 대상과 인식하는 주체의 실체가 없음을 깨닫는 계기로 하라고 가르치신다.

실체없음은 ‘고정된 성질’이 없다는 뜻

“지금 인식하는 모든 것이 변하는 하나의 모습”

실체가 없다는 것은 ‘모든 것이 없다’는 허무의 뜻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고정된 성질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러한 속성을 줄여서 ‘공’이라고 표현한다.

따라서 ‘공’이라고 하는 말이 물리학적으로 이야기하는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자체의 성질이 정해져 있지 않는 삼라만상의 존재하는 모습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공간을 정해 놓고, 먼지도 뽑아내고, 빛도 뽑아내면 남는 것이 전혀 없는 공간이 가능할까.

그런 공간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양자역학의 가르침이다. 기술적으로 완전히 진공을 만들기가 힘들다는 뜻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그런 상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완전한 진공에서도 양자역학적인 ‘가상적인’ 에너지가 존재해서 새로운 물질의 창조에 기여하게 된다고 물리학은 말한다.

양자역학은 또한 완전히 ‘정해진’ 상태를 거부한다. 소위 불확정성의 원리이다. 어떠한 고정불변한 상태는 측정할 수도 존재할 수도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는 허공’이라는 개념 또한 우리가 만들어낸 잘못된 개념이다.

이러한 양자역학적인 발견과 삼라만상에 대한 ‘공’의 존재론이 얼마나 모순 없이 일치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발견이다. 어떠한 것에도 정해진 실체가 없다는 것,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것이 변하는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매우 놀라운 체험이다.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는 마음들이 생길 때, 이 마음이 일어나는 곳을 관찰하자. 그러면 이 마음이 흐르는 물과 같이 쉼없이 변화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옛 선사들이 이야기하신 ‘만법귀일(모든 존재가 하나로 돌아가는 원리)’이며, 참 불성을 깨닫는 첫 단추일지도 모른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그림 : 문병성

깨달음(도통)과 불치병 난치병 각종암 신병(빙의 · 해리) 기적의 치유법 전수반 모집

참선공지도자

● 참선공(參善空) : 질병치유를 목적으로 영혼에 의지하여 전생체험, 전생치유법, 내생체험, 내생치유법, 신령의 세계체험, 빙의.해리치유법. 암질환치유법, 조상영가천도비법 등 기적의 치유법

영혼과 육신이 神人合一하여 무한한 대우주의 힘이 골수와 근육 신경, 세포조직에 들어가 머리부터 손발 끝까지 강력한 진동(파동)으로 스스로 각종 질병을 치유 정화하며 강력한 내공. 외공을 소유한다.

● 환혼동(幻魂動) : 조상 영가와 일체객귀신이 魂을 바꾸어 각종 신병(神病)과 실패와 이혼 불상사가 일어난다. 아뢰야식(영혼如來藏)에서 불생불멸의 신 비법 전수. 무량한 功德 비법 전수.

● 神치유명상 : 관법에 의지하여 영혼의식 속에서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 고통(불치병)을 벗어나 건강한 육체와 신령한 영혼을 소유한다. 특별한 자비의 손 치유법 개공 및 전수.

◆ 교육후 神치유명상사 자격증 참선공 자격증 발급
◆ 지도자 과정 전수 후 사회활동 하실분 협회에서 적극 추천, 후원 합니다
※ 불치병, 난치병, 신병 상담 환영. 주지스님이 직접 상담



現卍 신선암 주지
現 참선공 협회장
現卍 치유명상 협회장

神치유명상가

◆ 참선공의식 사례
① 48세 여성이 이렇다할 이유 없이 2년 동안 목이 180 ° 돌아가서 한의원,병원,기공,굿,각종 기도를 하였으나 돌아 오지 않았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 영혼의식에 의해 단10분만에 정상으로 돌아왔다.
② 60세 중진 스님은 젊어서부터 230mmHg의 악성 고혈압 환자였다. 참선공의식 10분 만에 정상 혈압으로 돌아와서 현재는 건강하게 포교 활동을 하신다.
③ 28세 미모의 여성이 원인 모를 이유로 7살부터 오른 쪽 다리가 통증이 심하여 20년 동안 걷지 못하였다. 그러나 간단히 참선공의식후 건강하게 통증 없이 잘 걸어갔다.
④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중2때부터 전혀 물도 못 마시고 얼굴에 여드름 피부각질이 만성화 되어 병원 등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전혀 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 후 깨끗하게 피부 각질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윤기 있는 얼굴로 바뀌었다.
⑤ 50세 중진 스님은 영가가 빙의 되어 눈에 뱀이 보이고 귀에서는 소녀의 말이 들리고 양다리와 양손이 항상 불안하게 떨리면서 불안하였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 후 증세가 완쾌되었다.

특별전수과정
토요반
15:00 ~ 18:30 (12회 과정)
● 전수비: 300만원

입 금 계 좌
조흥은행 995-04-648955
예금주 : 이영하

조상천도비법
자비손 치유법
음성 내공법
빙의 · 해리 치유법
칠차원 생명법
전생 치유법
내생 치유법

卍신선암 참선공협회. 神치유명상협회 ●전화 : 02)383-1319 / 011-379-1319 ●주소 : 서울 은평구 녹번동 55-9 (녹번역1번)

일주문



불우이웃돕기 송년법회서 법문

속초 신흥사 회주 오현 스님은 12월 5일 속초 한화콘도에서 열린 신흥사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송년대법회에서 법문을 했다.



2005 생명나눔의 날 행사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12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2005 생명나눔의 날' 행사를 열었다.



월하대종사 2주기 추모재

양산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은 12월 11일 오전 10시 노천당 월하대종사 2주기 추모재를 봉행한다.(055)382-7182



법왕사 불교종합복지관 상량식

대구 법왕사 주지 실상 스님은 12월 9일 오전 11시 법왕사 문화광장에서 불교종합복지관 상량식을 봉행한다.(053)766-3747



달라이라마 법문집 출판기념회

여수 석천사 주지 진옥 스님은 11월 25일 여수 노인복지회관에서 달라이라마 법문집 <깨달음에 이르는 길>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장학금 전달식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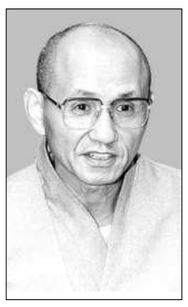
대전 비구니스님 모임인 청림회 회장 영진 스님은 2006년 1월 7일 충남대 정심화홀에서 중고등 및 대학생 14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한다.



독도사랑예술제 시부문 최우수상

서울 불심사 주지 혜인 스님은 11월 30일 서울 영동호텔에서 열린 독도사랑 예술제 시상식에서 시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조계종 제17회 포교대상에 월주 스님



월주 스님



정여 스님



김말환



안홍부



전안호



우종표



류성현



박수호



이정숙



김혁숙



기도켈러

■공로상- 정여 스님 · 안홍부 ■인터넷- 천불동
■원력상- 전안호 · 김말환 · 류성현
이정숙 · 우종표
■특별상- 매체분야 기도켈러 · 김혁숙
해외분야 법관 스님

조계종 제17회 포교대상에 前 총무원장 월주 스님(김제 금산사 회주)이 선정됐다.

포교대상(종정상) 수상자인 월주 스님은 불교시민운동의 선구적 역할과 지구촌공생회를 설립해 후진국의 생활환경 개선에 힘쓰는 등 46년간 사회복지사업과 시민운동을 전개해온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군불교 발전을 위해 군불교진흥회를 설립해 연무대, 35사단 등 전북지역 군부대 법회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한 공적이 인정됐다.

공로상에는 정여 스님(부산 여여선원장), 안홍부(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前 사무국장), 원력상에는 전안호(죽림사 신도회장), 김말환(교육사령부 자운대 주지법사), 류성현(전국불자교정인연합회 사무총장), 이정숙(경기포교사단 염불팀), 우종표(제12교구 청곡사 신도회장) 씨가 선정됐다. 또 인터넷 포교분야에서는 인터넷부처님터 천불동(www.buddhasite.net/대표 시삽 · 박수호)이 선정됐다.

또 특별상 부문에서는 프랑크프루트 세계도서전에 백운 경한 선사의 <직지>를 독일어판으로 번역해 출품한 기도켈러와 김혁숙 씨가 매체포교분야에, 아시아 유일의 기독교 국가인 필리핀에 불락사를 설립한 법관 스님이 해외포교분야에 선정됐다.

포교원은 11월 17일까지 △문화포교 △사회포교 △인터넷포교 △직능포교 △계층포교 △문화체육포교 등의 분야에서 총27명의 후보자 추천을 받았다.

심사위원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중앙종회 포교분과위원장 지현, 총무원 기획실장 동선 스님과 중앙신도회장 김의정 씨 등 10여명이 참가했다.

포교대상 시상식은 12월 9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봉행된다.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에 역점"

사단법인 '동련' 2대 총재 취임 혜총 스님



"어린이는 모든 인류의 꽃이고 희망입니다. 20년 동안 한길을 걸어오신 정관 스님의 원력을 받들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11월 27일 경북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제41차 전국 어린이지도자연수회에서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이하 대불어)의 후신인 사단법인 동련 2대 총재로 취임한 혜총 스님(부산 감로사 주지 · 사진)은 어린이 포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취임 소감을 밝혔다.

대불어 창립부터 어린이 포교에 관심을 갖고 어린이불교연구소 소장을 맡아 <불교어린이포교사>를 펴내기도 했던 스님은 "어린이 포교는 어린이들의 마음에 부처님의 혼을 심어주는 것"이라며 "어린이 포교를 위해 신심을 갖춘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연구 개발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누구나 어린이포교의 중요성을 말하지만 실제로 어린이 포교의지를 가진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며 어린이 포교 현실을 지적한 스님은 "어린 불자를 키우는 일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대작불사"라며 "사부대중 모두가 어린이포교 후원회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천미희 기자

샌프란시스코 전등사 수계법회



미국 샌프란시스코 전등사(주지 보광) 보살계 수계법회가 11월 27일 현지에서 봉행됐다. 중앙승가대 교수 보각 스님을 계사로 열린 이날 법회에는 인근 지역 불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보각 스님은 "오늘 오계를 받은 불자들은 항상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기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불기협 기자대상 서현욱씨

현대불교 '맞춤포교··' 특별상



2005불기협기자대상에 만불신문 서현욱 기자(사진)의 '불교 트렌드 따라잡기'가 선정됐다.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여태동)는 11월 28일 13개 회원사 120여 기자들을 대상으로 2005 불기협 기자대상 심사를 실시하고 대상에 서현욱 기자, 특별상에 불교신문 어현경 기자의 '재가열전', 현대불교신문 김원우 기자 외 편집국 기획특집팀의 '맞춤포교 인프라를 구축하자', 주간불교신문 유응오 기자의 '시네마 서방정토' 등 3건을 선정했다.

조용수 기자

법륜종 창종 17주년 기념법회 봉행



법륜종(총무원장 탄공) 창종 17주년 기념법회가 11월 30일 인천 힐하우스에서 봉행됐다. 정도사 합창단의 찬불가 공연, 반야심경 봉독, 발원문 낭독 순으로 진행된 법회에서 총무원장 탄공 스님은 "법륜종 창종 이념을 되새겨 종단발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어 종정 정각 스님은 원로원장 혜우 스님이 대독한 법어에서 "상생하는 종단, 한국불교를 선도하는 종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진해 나가라"고 당부했다.

이날 법회에는 법계고시위원장 혜우, 포교원장 혜봉, 종회의원 월산, 종회 수석부의장 성타, 교육위원장 계륜, 법규위원장 성쵤 스님과 삼계종 총무원장 일초 스님 등 200여 명이 동참했다.

강유신 기자

WFB 회장 등 열반종 총무원 방문



세계불교도우위회(WFB) 판 와나메티 회장(사진 가운데) 등은 11월 15일과 18일 열반종 총무원 용인 와우정사를 방문, 한 · 태국 불교교류 확대 방안 등 의견을 나눴다. 이날 열반종 해곡 총무원장은 "WFB를 통한 세계 불교도의 교류는 불교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충청지역 스님 교정교화 전문과정 수료



경기대 대학원 제3기 교정교화 전문화과정에 입학했던 42명 대전 · 충청지역 스님들의 수료식이 11월 25일 대전 유성문화원에서 열렸다. 3개월 간의 교육을 마친 스님들은 범죄예방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지역교도소에서 재소자 교화와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정토회서 인권활동 계속할터"

병역거부 오태양씨 출소



불자로서는 최초로 양심적 병역 거부운동을 전개하다 지난해 8월 30일 구속됐던 오태양(31 · 사진)씨가 1년 3개월여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11월 30일 충주구치소에서 가석방 출소했다.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 1시간 먼저 일어나고 1시간 늦게 자면서 참선 등의 불법(佛法) 공부에 매진했다"는 오씨는 "매주 목요일 불자 수형자들과 함께 법회를 진행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오씨는 "수감 전과 같이 정토회 상근활동가로 생활하면서 인권운동을 계속하고 싶다"며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과 북한 동포들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철주 기자 ycj@buddhapia.com

당신의 나이+4년= 새로운 미래보장

"인생의 재설계를 위해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대학에 다시 진학하는 것 입니다." (The Economist 2002년 6월호 표지 글)

인터넷 교육으로 대장금의 후예를 양성하는
한방건강학과



한약과 음식을 조화롭게 다스리는 약선(藥膳)전문가 양성

- 한방과 음식의 조화로 건강증진 및 질병의 예방 • 치료
- 약선사(藥膳師),자연치료사 자격증 취득 가능

인도정통요가와 함께하는 깊이 있는 요가교육
요가 · 명상학과



인도교수 직접 강의-인도 바나라스 힌두대학교와 학술교류 체결

- 인도교수 직접 강의를 통한 인도정통 요가교육
- 인도국제요가지도자, 명상지도자, 자연치료사 자격증 취득가능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도 가능해며, 약물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키운다!
약물재활복지학과



지역사회의 약물 의존자의 재활을 담당하는 약물재활복지사 양성

- 미국 워싱톤 주정부 알코올 및 약물 남용국과 업무 제휴
- 가칭 '마약지도사' 및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가능

얼굴을 경영하면 성공이 보인다
얼굴(印象)경영학과



로또보다 확실한 인생역전, 성공을 원한다면 인상부터 바꿔라!

- 인상학(印象學)에 대한 이론과 실습의 체계적인 교육
- 인상 상담사, 이미지 트레이너, 웃음 치료사 자격증 취득 가능

특전
- 학교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정규4년제 대학교
-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가능
- 일반대학교의 1/3수준의 저렴한 등록금과 다양한 장학혜택
- 각 지역별 교육센터를 통한 학습활동 지원 및 졸업 후 대학원 진학 가능
- 학자금 융자 가능 및 연말정산시 교육비 소득공제 혜택
- 재학생 병역연기 혜택

인터넷으로 수업하는 교육인적자원부 인가 정규 4년제 대학교
2006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 모집학과

웰빙건강학부
한방건강학과
요가 • 명상학과

공무원행정학부
경찰학과
공무원행정학과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학과
약물재활복지학과(신설)

문화예술학부
전통공연예술학과
한국복식과학학과
차(茶)문화경영학과

경영학부
얼굴경영학과(신설)
부동산경영학과

게임학부
게임학과

□ 원서접수기간 **2005년 12월 1일(목) ~ 2005년 12월 15일(목)**
- 기간내 접수하시면 입학금 (200,000원) 면제혜택을 드립니다.
- 원서접수 전형료(30,000원)는 환불해 드리지 않습니다.

□ 입학상담 : **080-285-2854(무료) / 1588-2854**

□ 홈페이지 : **www.wdu.ac.kr**

□ 지원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학상담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법인 원광학원 **원광디지털대학교** WONKWANG DIGITAL UNIVERSITY

인터넷 검색창에서 원광디지털대학교 검색 를 쳐보세요



불자 세상보기

송 일 호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겨울의 불청객 '물가 인상'

날씨가 쌀쌀해지고 연말이 가까워지면 해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 바로 공공요금을 비롯한 각종 물가인상 소식이다. 올해도 예외 없이 연말을 앞두고 중앙과 지방의 교통요금인상을 필두로 고속도로 통행료, 건강보험료, 전기료, 상하수도료를 비롯한 공공요금과 택시비와 담뱃값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모든 분야에 대한 물가상승이 예고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물가인상으로 인해 올해 서민들은 더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할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다.

물가인상은 수요적인 측면과 공급적인 측면에서 충격이 가해질 때 발생하게 된다. 먼저 공급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 중동국가간에 문제가 생겨 원유가가 인상되면 생산비용이 상승하게 되어 석유화학제품을 비롯한 제품생산에 대한 공급이 줄어 물가가 오르게 된다. 이것을 비용상승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한편, 경기가 침체된 상태에서 정부가 경기회복을 위해 정부지출을 늘리거나 시중에 통화량을 늘릴 경우에도 물가가 오르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을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수요와 공급적 측면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공급적 요인이 조금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물가가 오르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초래되게 되는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소비자의 실질소득이 하락하여 구매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소득의 변화가 없는데 물건값이 비싸지니 종전만큼 구매를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구매력이 떨어지면 공장에 재고가 쌓이게 되고 생산이 줄어 고용조정을 해야 한다. 자연히 실업률도 올라가게 된다. 경제는 침체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소비심리가 얼어붙어 있는 상황에서 공공요금을 비롯한 각종 물가에 대한 인상소식은 경제를 더욱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예측이야말로 경제에 가장 나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물가상승의 원인을 분석해 볼 때, 외부적 상황에 의해 물가가 오르는 것은 정부만를 탓할 수 없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부실과 비효율적 경영으로 인해 발생한 천문학적 누적적자나 손실로 인한 서민의 부담가중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 책임을 모면하기 어렵다.

특히 매번 죄없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서민들이 그 부담을 강제로 떠안아야 하는가에 대해 정부의 책임은 더욱 커지게 된다.

물가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때 서민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원유가의 인상으로 휘발유값이 올라가 교통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정부의 입장은 무책임하고 그 설득력이 약하다.

각종 요금인상으로 가장 타격받는 계층은 주로 서민층인데 이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다. 물가상승으로 인해 발생되는 국민부담 중에서 서민의 부담을 줄이는 정책적인 배려가 아쉽게 느껴진다.

한편으로, 과격한 요금이나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각 단체들의 목소리도 사회 전체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요금이나 임금의 인상은 물가의 상승을 초래하고, 또 다시 물가의 상승은 요금이나 임금의 상승을 초래하는 악순환의 되풀이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해가 되기 때문이다.

물가상승을 걱정하는 서민 곁에는 더욱 어려운 이웃이 우리 주변에 많다. 정부의 손길만으로는 이들의 추위를 녹이기에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 해마다 연말이면 불우한 이웃소식에 가슴이 아프다가도 선행을 베푸는 소식에 흐뭇해지곤 한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십시일반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 것 같다.

올해는 더 많은 불자들이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보시와 자비의 마음을 행동으로 실천하여 복덕이 충만한 사회가 되기를 기원해 본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가 '군포교 비전21'을 발표하면서 군포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다짐을 하고 나섰다. 스님들이 군을 대상으로 본격적 포교활동을 시작한지 37주년이 되는 11월 30일 '군승의 날' 기념법회에서다.

군포교 자체 역량 강화, 전 불교적 지원 시스템 확충, 조직적 군포교 시스템 확립, 계층별 군불자 관리 시스템 도입, 군승 활동 관리체계 확립, 포교성과의 범불교적 확산 등과 함께 다양한 사업을 펼쳐 나갈 것이라는 각오를 보였다.

한때 군승단이라면 불교계의 최고 엘리트 집단으로, 지난 37년간 군과 우리사회에 많은 업적을 이루었다. 그러나 일부 아직까지 불교계 안팎에서 적지 않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타종교 군포교와의 비교, 포교의 적극성 문제, 군승 수급의 문제 그리고 군승단에서 일어났던 얼마간의 잡음들이 그것이다.

군포교 비전 … "함께 젊어지자"

그런 가운데 군불교위원회가 군종특별교구로 바뀌면서 군포교에 변화가 예상되던 터에 나온 군종특별교구의 '비전21' 발표는 새로운 기대를 안겨 준다.

1만 명 회원이 한 달에 1만원씩 지원토록 하는 '만인동참회' 출범은 운영의 묘미만 잘 살리면 그동안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군부대와 일반 사찰과의 자매결연 사업도 현실적인 성과를 올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군이라는 첫 집단생활을 경험하게 되는 20대는 개인적으로는 종교적 심성이 깊어지고 종교적 가르침에 귀를 열게 되는 시기라고 보아야 한다. 또 군에서의 불교입문이 이후 사회에 나가서도 종교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군포교가 포교의 황금어장으로 불리는 이유이다. 불교계로서는 거사불교의 기반이 되는 큰 텃밭임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덧붙일 것은 신세대의 감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다. 무조건 전통을 고집하는 것은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군승의 감성과 능력개발이 뒤따라야 한다.

군종교구의 새로운 다짐도 중요하지만 사부대중의 관심과 지원도 큰 힘이 될 것이다. ■김징자(칼럼니스트)

특별기고

전통사찰 보존, 포괄적인 점검과 준비 필요

이병인(밀양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불사 심의 · 관련법 개정 · 환경평가 뒤따라야

불교계 · 국가기관 호흡 맞추기도 중요

그간 불교계와 정부관련 기관이 협의해 오던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이 11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대불교 554호 2면 기사 참조). 전통사찰의 유형적 관리뿐 아니라 역사적 · 문화적 가치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시의적절한 일이다.

전통사찰보존법의 개정은 역사문화보존구역 지정과 보존위원회 설치 · 지정취소제 도입 등을 골자로 했으며 이에따라 새로운 사찰환경(寺刹環境)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법적인 정비가 시작되고 있다.

오랜만에 종단차원에서 그동안의 경험과 현황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정비가 제대로 준비되고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반가운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다. 그러나, 아직도 이 시대의 정토(淨土)인 청정한 도량을 유지하고 관리해 가기 위해서 몇 가지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첫째가 우선은 내부적 불사(佛事)에 대한 자율적인 점검과 정비문제이다. 외부적 불사와 통제에만 위기의식을 느낄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진정한 관리자로서 책임있는 역할과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 종단에서도 '불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찰내의 내부적 불사에 대해서도 심의한다는 점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사실 그동안 일어나는 사찰의 무분별한 관리로 인한 문제는 전적으로 불교계 내부의 사부대중의 책임이다.

그런 면에서 사찰내부의 이기주의로서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불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사회적 공익과 공유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진행시켜나가야 한다. 그러기에 불사심의위원회가 단순히 불사를 추인하고, 형식적인 통과절차로서의 기능을 담당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엄정하게 운영되어 과거의 유산자원을 온전하게 지켜가고, 이 시대의 진정한 유산자원을 남기도록 함으로서 이 시대 불사의 바람직한 전형과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는 최근 개정된 전통사찰보존법에 규정된 내용을 충실하게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동안 발생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과 전통사찰보존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실질적인 법 시행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사법뿐만이 아니라, 유관된 관련법규정에 대한 개정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중의 하나가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에 대한 것이다.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지정내역과 범위가 불명확하다. 지금과 같이 개발위주의 관행을 추진하고 있는 시도지사들이 과연 얼마만큼의 관심을 가지고 보존구역을 지정하겠느냐?가 관건이 될 수가 있다. 그리하여 기본적으로 전통사찰로 지정된 모든 사찰에 대하여 보존구역의 지정 및 검토를 시행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 등에 관한 내용을 시행령 등에 구체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함께 전통사찰에 대한 실질적인 역할과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이다. 현실적으로 전통사찰의 관리를 위한 최종기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개정법에는 전체적인 윤곽과 역할을 기술하였을 뿐이기에, 실질적인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삽입할 필요성이 있다. 외형만 갖춰놓고 실질적인 운용의 미비 등으로 사찰환경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셋째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제정된 환경성 검토사항과 사전협의문제이다. 가능한 환경성검토의 초기단계이전에 전통사찰 또는 문화재 보호구역 등 불교관련보존지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수행하고, 더불어 개발시 보호지역에 대한 사전협의를 명문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규정에서도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를 위해 구체적인 지침 등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많은 개발사업들이 계획단계에서 사전협의나 고려가 없었으며, 사후에 협의하려는 관행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 점은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역사문화환경분야 뿐만이 아니라, 많은 경우 아직 불교계 내부의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돼 있지 못한 실정이므로 불교계 내부의 전문인력을 적절히 배치하고, 양성하여 조직화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 점은 우선적으로는 각 사회각 전문분야에 대한 기존의 전문가그룹을 잘 활용해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스님들을 중심으로 전문인력을 키워가고, 종무원 등 재가자들에 대한 전문성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지금의 시점에서 분명 전통사찰보존법의 개정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큰 진보이다. 그것은 또한 이 시대의 유산자원을 온전하게 보전시켜가는 활동이므로 이제 불교계내부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국가적이자, 국민적 관심사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명분과 당위성을 갖는 일이므로 대내외적으로 적극홍보하고 장려하여 우리의 청정도량이 삼세(三世)의 진정한 유산(遺産)으로 유지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현대' 만평 심 민 섭



圓鑑 釋解空 門徒會

모 임 공 고

귀의삼보하옵시고,
圓鑑(원감) 釋解空(석해공) 門徒會(문도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 문도님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안부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불기2549(2005)년 12월 29일 오전11시
◆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보현산 충효사 ☎ 054)338-8196

성석현(大聖) 김진수(大縣) 맹일균(大行) 조동국(大融) 김종권(大松) 문중호(大弘)
황태식(大宙) 신판우(普覺) 정낙수(大月) 신경철(大興) 김민규(大雄) 조평재(正目)
차일환(大國) 이록희(大愚) 도현숙(正妙) 김명철(能仁) 정재환(大目) 김수열(正休)
이수진(正心) 윤정희(大湖) 장일상(大印) 홍동완(正覺) 장경희(正目) 최영복(靑谷)
김점돌(大光) 남성희(大谷) 박동희(瑞明) 박용준(大覺) 박형규(大休) 김대선(正觀)
전봉선(瑞雲) 장인구(大輪) 하승배(大悟) 김상선(大靜) 박주미(正悟) 김동현(吉祥)
공상웅(大明) 송명섭(正道) 허정희(正大) 김인구(靑潭) 정종근(大默) 정성채(正眼)
배전국(大藏) 진순남(大峯) 지일수(閒默) 김종록(正印) 전용식(大宗) 이운영(大天)
김만현(正默) 권수태(正行) 남우식(雲覺) 강경례(正圓) 김정현(默潭) 김용묵(三輪)
강춘수(主山) 안봉근(能觀) 이수진(大岩) 조용찬(大鏡) 박우상(大觀) 이종일(能覺)
정태화(法修) 강춘수(主山) 김주섭(如山) 황정호(白雲) 최응백(道器)

圓鑑 釋解空 門徒會 門徒代表 : 默潭 合掌

재단법인 한국불교 법륜종

인사말씀 (불기2549년 11월 30일 창종 17주년 기념법회에서)

오늘 이 자리에 왕림하신 전 종도 및 사부대중과 내빈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불기 2532년(서기 1989년도) 11월 30일에 종헌인 헌장을 선포하고서 한국불교법륜종을 창종하여 시대에 적응하는 교단으로서 새로운 출범을 시작한지 벌써 17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돌이켜 보면 시련과 고난의 역경을 걸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더욱더 협력해서 모든 갈등과 이기심을 타파하고 장래에 한국불교에 우뚝선 종단으로서 손꼽히고 모범된 종단상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우리 종도 모두는 손에 손을 맞잡고 단결된 힘이 결집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동참하신 종도 사부대중께서는 서로 아끼고 협력하셔야만 합니다. 이렇듯 종단의 발전과 새로운 모습을 정립하여야 하므로 다소의 희생이 뒤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모두에게 인내와 이해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는 누구 한사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오직 종단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새 길을 다져가기 위함이므로 이해와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렇게 해서 온전히 종단의 기틀이 다져지고 종지종풍이 바로 서게 된다면 우리 법륜종은 앞날의 새로운 희망과 발전의 새벽이 밝아 올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와 번영의 물결 속에서 다함께 반야의 배를 띄울 것을 우리 모두 함께 다짐합시다. 감사합니다.

창종 17주년 기념법회에서 총무원장 탄공 합장



법어

扶宗樹教十七年, 以培其根達其枝
法輪瑞花無根蒂, 不待春功色自鮮

法輪宗風法香起, 引得宗僧到處集
猶如春歸上苑時, 鮮葩艷蔓滿枝枝

一堆紅焰亘淸空, 不問金銑銅錫堅
入裏盡教成水去, 箇中非正亦非偏

재단법인 한국불교 법륜종 총무원

주소 : 인천 연수구 연수동 520-6호 전화 : 032)822-5371 / 팩스 : 032)822-5373

나눔의 하모니 울려퍼진 빛고을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주최 소년소녀가장돕기 합창제 성황
출 · 재가-남녀노소 어우러져 합창 · 왈츠 · 음악극 등 펼쳐



소년소녀 가장돕기 나눔의 한 마당을 펼친 '제5회 한마음선원 불교합창제'는 훈훈한 열기 속에서 성공적으로 회향됐다. 사진은 음악극 '반디의 여행'을 공연하는 어린이 합창단의 모습.



딸 · 아들과 아빠가 하나된 '아빠와 함께 왈츠를'.



소년소녀 가장에게 따뜻함을 전달하고자 어른들과 어린이들이 함께 공연하고 있다.

소년소녀 가장과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이 모여 아름답고 가슴 뭉클한 무대를 연출했다.

11월 27일, 광주 5 · 18 기념문화센터 민주홀에서 열린 '제5회 소년소녀가장돕기 한마음선원 불교합창제'는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였다.

어린이와 부모, 스님과 신도가 함께 꾸민 이번 무대에는 합창, 율동, 왈츠는 물론 음악극까지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다.

'공심공체 둘 아닌 노래'를 주제로 열린 이날 합창제는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지원장 혜월)이 마련했다. 광주에서 유일하게 남녀 혼성으로 구성된 광주지원 합창단은 '삼세심을 전달하니' '그마음 그대로' '해수관음의 빛' 등 선법가(禪法歌)로 닫혔던 서로의 마음을 녹였다.

이어 어린이 합창단이 음악극 '반디의 여행'을 공연해 참석자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어린이들은 음악극에서 반디와 지구친구 물, 불, 바람, 흙의 만남을 통해 모두가 한마음임을 밝히며 대중을 향해 '지구환경을 위해 생활속에서 함께 실천하자'고 호소했다.

또한 청년회원들의 화려한 율동이 이어졌고 선덕사 유치원, 진주지원 어린이합창단이 찬조 출연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

매공연이 끝날때마다 관중석에서는 광주불교사암련 회장 혜향 스님, 동구불교협의회장 지각 스님 등 지역사암 스님들과 불자, 시민 등 1000여명이 박수와 환호로 답했다. 아들과 함께 출연해 '아빠와 왈츠'를 공연한 강경환 거사는 "지난 6개월간 아들과 함께 공연을 준비하면서 소외된 소년소녀 가장과 가족의 소중함을 함께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광주지원은 지난 1997년부터 소년소녀가장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발원하며 자비나눔의 합창제를 펼치고 있다. 그동안 4회에 걸쳐 소년소녀 가장 231명에게 5585만원의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해왔다.

지원장 혜월 스님은 "이번에도 모여진 수익금 전액을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글 · 사진/광주=이준엽 기자

언니위해 모아둔 헌혈증 54매 이웃에게…
당진 서정초등 교사 서미숙씨

"제가 모은 헌혈증이 조금 있는데, 좋은 일에 써 주실 수 있을까요?"

충남 당진 서정초등학교 교사 서미숙씨가 11월 25일 본사로 전화를 걸어왔다. 담담한 목소리로 본사에 헌혈증 54매를 기증하고 싶다는 뜻을 전한 서씨는 본사에 연락하게 된 사연을 전했다.

"큰 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유방암으로 9년간이나 고생하면서…. 언니를 위해 모은 헌혈증인데 쓰지를 못했네요. 그렇지만 다른 분들에게는 필요하겠지요?"

담담했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러나 서씨는 "언니가 생각이 많이 난다"며 다시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서미숙씨의 언니 고 서경숙씨는 '소문난' 불자. 임종 직전까지 교편을 잡았던 서경숙 씨는 항상 불법에 귀의하면서 주위에도 전달하려 애썼다고 한다.

그러나 서미숙씨와 형제 · 자매들은 서경숙씨의 뜻을 함께 하지 못했다. 그러던 올 9월, 서미숙씨는 언니로부터 달마도를 한 장 선물받게 됐다. 바로, 본지에서 '민수돕기 성금 모금' 행사의 일환으로 판매한 일허 스님의 달마도였다.

다른 형제들에게도 똑 같이 달마도가 한 장씩 전달됐다. 이제 남은 삶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감한 서경숙씨가 마지막 회향으로 민수돕기에 참여하면서 형제들에게 불법에 귀의하라며 달마도를 선물한 것이었다.

그 때부터 서미숙씨는 100일기도를 시작했다. 당진 흥국사에서 매일 새벽 108배를 한 후, 천수경 · 금강경을 독경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동생의 발심에도 서경숙씨는 11월 1일 세상을 떠났다. 동생의 새벽기도가 60일 정도 됐을 무렵이다.

"처음에 100일기도를 시작했을 때, 언니가 무척 좋아했어요. 하루도 빠지지 말고 열심히 하라고 격려하면서요."

이제 12월 13일이면 서경숙씨의 막재. 서미숙씨는 100일기도도 그 날 함께 회향하기로 했다. 이제 다시 볼 수 없는 언니 서경숙씨가 전해준 불심을 가슴에 안은 채, 또 병고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돕겠다는 마음을 간직한 채.

"사실 새벽마다 법당에 있는 언니 사진 보는 것도 제겐 참 의미있는 일이었어요. 이제 그렇게 얼굴 볼 날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앞으로 가슴 속에서 언니를 찾고, 불자답게 살아가야겠어요."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민수야, 부디 좋은 곳으로 가렴"
본사 나눔의 캠페인 통해 지원하던 백혈병 민수, 투병 7개월만에 세상 떠나



투병 생활 중에도 밝은 웃음을 잃지 않았던 민수. 11월 29일, 모든 고통과 불자들의 염원을 뒤로한 채 세상을 떠났다.

급성 골수성백혈병으로 7개월여 동안 투병을 이어온 민수(4)가 11월 29일 오후 5시 30분, 우리 곁을 떠나갔다.

6차 약물치료를 마치고 경과를 지켜보며 통원치료를 받고 있던 민수는 11월 28일, 구토와 복통을 호소하며 부산대학병원에 입원한 지 이틀만에 아빠 엄마의 손을 놓고 몸을 벗었다.

백혈구 수치가 지난 4월 처음 치료를 시작했을 당시보다 높은 10만까지 올라갔던 민수. 약물치료 부작용으로 예상되는 간출혈까지 겹쳐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말았다.

"독한 약물치료를 받으며서도 늘 웃기만 하던 민수였는데…. 민수가 바다를 좋아했으니까 바다로 보내줄 겁니다. 비록 민수는 갔지만 그동안 도움을 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뭐라고 감사해야 할지…." 민수 아버지 김형찬씨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그동안 민수돕기에 함께 했던 부산 대원정사 양재형 법사를 비롯 대원정사 염불봉사 모임의 신도들은 11월 30일 부산대학병원 영안실 빈소를 찾아 아미타경, 무상게 등을 염불하며 민수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양 법사 등은 또, 민수의 입관 · 발인 등 장례절차 동안 각종 의식을 집전해 주었다. 부산 대원정사는 민수 가족과의 상의를 거쳐 민수의 위패를 대원정사에 모시고 49재를 봉행하기로 했다.

양재형 법사는 "민수를 위해 마음을 모아왔지만 인연이 다했으니 민수의 극락왕생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갑작스런 민수의 소식에 그동안 달마 그리기를 통해 민수 돕기에 나섰던 일허 스님을 비롯한 불자들도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민수 돕기 성금 모연을 위한 달마도 100장을 전달하고, 직접 부산대학병원을 찾아 민수를 위로하기도 했던 일허 스님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민수 부모님보다 더 마음이 아프지는 않을 것"이라며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천미희 · 김강진 기자

생명나눔 12월의 환우 척추종양 이영설 군



생명나눔실천본부의 12월 환우로 선정된 이영설(7 · 사진) 환아. 생후 3개월에 부산 동아대병원에서 뇌종양 진단을 받아 수술했지만 올해 1월에 악성척추종양이 재발해 한양대학병원에서 또 다시 제거수술을 받아야 했다.

수술 후 종양은 제거됐지만 영설이는 하반신을 쓸 수 없게 됐다. 불자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02)734-8050

나눔의 손잡기 <동참문의 및 제보> 전화 (02)2004-8234/ 인터넷 홈페이지buddhanews.com '나눔의 손잡기' 동참계좌 :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 김원우 / ARS 060-700-1080(한통화 3천원) 나눔의 손잡기

스님신발 아이젠부착 수행화 출시
눈길 빙판길 간단히 아이젠만 열면 안전보행



겨울철만되면 산속에 계시는 스님께 고통을 주는것이 눈과 빙판길이다. 매년 많은 스님께서 미끄러져 골절상으로 큰 곤경을 당하곤 한다. 국내 최대의 전문성신발 메카인 삼양통상㈜에서 미끄러운 산길을 자유롭게 다닐수 있도록 만든 수행화는 그림과 같이 평상시에는 아이젠(미끄럼방지기)이 부착되어 있어 눈길 또는 빙판길에서 간단히 아이젠을 열면 걱정없이 안전하게 다닐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다. 고품격 천연가죽과 최첨단 신소재인 NOAH-TEX로 제작된 아이젠부착 수행화는 발열기능이 있어 외부온도가 영하-10℃일때 신발내부온도를 7.5℃상승시켜 겨울에 대단히 따뜻해 무척운 양말을 신을 필요가 없다. 99%방수되며 대단히 가벼워 장시간 산행에도 발의 피로가 없는 인체공학적으로 제작된 신발이다. 추운산속에 계시는 스님께 깨끗한 마음과 착한 정성으로 따듯한 수행화를 보시한다면 무명업장을 녹이고 병술년 새해 무량대복을 받음것입니다. 출시기념 할인가격 98,000원 전화로 신발싸이즈와 주소를 알려주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신청전화(02)735-6921 농협053-12-102911 김남룡

평생 부자지갑 관세음보살 福 지갑 영험
원하는 재물과 땅과 땅속에 있는 보물까지도 얻으리라!
2006 병술년 재운의 해



여성용(퍼나노징지갑 (진보라색) 남성용반지갑 (검정색)

존경하는분께 사업성공의 선물!
사랑하는 아내에게 평생부자의 선물!

2006 병술년은 재물로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이 고통에서 해방되는 재운이 오는 좋은해다. 관세음보살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중생들의 고민과 고통을 해결해주고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부처님이다. 세상사는동안 제일 큰 고통이 재물로 인한고통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영험의 비방이 관세음보살 여의주수진언이다. 자물이 없어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이 관세음보살 여의주수진언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곧 보배 재물과 땅과 땅속에 있는 보물까지도 얻으며 가지고 있는 재물이 헛되이 나가지 않는 영험을 담고 있는 법구다. 법구제작전문 불광사에서 기도와 축원불공속에 만든 관세음보살 복지갑은 지갑앞면에 재물로 인한 고통을 해결하는 영험의 여의주수진언을 부착하고 내부에는 단사를 방해하는 잡귀와 삼재를 물리치는 삼고금강저를 순금도금해 넣어 소원을 이루게 했다. 고급 천연 鱷나노 가죽으로 일반지갑과는 비교 될수 없게 심플하게 꾸며진 최고급지갑으로 출시 3개월도 안돼 아주 어렵던 사업과 장시가 잘되고, 고민하던 부동산이 팔리고, 부도직전에 귀인을 만나고, 제조업은 만들면 팔리고, 부동산과 증권으로 큰돈을 버는 등, 관세음보살의 영험이 나타나는 지갑이다. 여성용 鱷나노 보라색은 여성이 항상 지니고 다니면 가정이 번영하고 사업장은 자물이 끊이지 않는다는 뜻을 담고 있다. 전화로 사용하실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간 2006년 병술년 소원성취를 위한 새벽 축원불공을 드려 드리며 복지갑은 바로 보내준다. 남성용65,000원 여성용95,000원

전화(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SkyLife 위성방송 무료로 설치해준다.
최고의 화질 세계를 한눈에 난시청 사찰에서도 최고!



디지털위성방송 Sky Life설치 사찰이 크게 늘고 있다. 무궁화3호 위성에서 발신되는 고화질은 국내방송은 물론 세계를 한눈에 볼수 있으며, 기존의 아날로그와 비교할 수 없는 디지털고화질영상과 CD수준의 생생한 사운드로 TV를 볼수있고 디지털방송만이 가능한 쌍방향 서비스로 TV를 보면서 리모콘으로 각종게임과 각종정보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컨텐츠로TV화면을 통해 조작할 수 있다. 123개의 다양한 채널이 수준높은 문화를 만끽할 수 있으며 자녀들의 영어및 의국어 교육에도 큰도움이 되고 있다. 종전에는 위성방송 안테나를 설치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 손쉽게 볼수 없었지만 이제는 설치비 일이 월시청료 23,000원만내면 한국디지털 위성 방송에서 바로 설치해 준다. 산간벽지사찰 난시청지역에도 즉시 설치되며 이사할때에는 전국어디든 가지고 다닐수 있고, 본인이 직접 설치할 수 있다. 전화로 설치할 장소의 주소 성명을 알려주면 2일내에 전국 어디든 설치해준다. 12월말까지 Sky Life설치를 신청하는 분께는 가족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수맥파차단카드를 특별선물로 드린다.

문의전화(02)741-4477

금강저의 영험
험한세상닥쳐올 화를 미리 쫓는 수호신



삼재도 물리치는 삼고금강저

왜! 금강저를 가지고 다녀야 하나?
삼고금강저는 인드라신(神)의 밀교의식에 쓰이는 불퇴전의 승리의 수호신으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고 닥쳐올 화를 미리 쫓으며 영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를 받아 승리한다는 부처님 위신력의 법구다. 1분앞도 모르는 험한세상, 납치, 강도, 강간, 유괴, 각종사고등 근심과 걱정속에 사는 현실이다. 군에 있는 자녀, 딸자녀, 경찰관, 직장인, 학생,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분, 가정주부등 가정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영험의 수호신으로 여성은 핸드백속에 학생은 가방속에 남성은 지갑속 또는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도록 순금처리하여 축원불공을 마치고 불광사에서 전화로 판매하고 있다. 가격25,000원 문의 (02)741-4488

광주불교방송
BBS FM 89.7 MHz
www.kjbbs.co.kr



향기 도반의

중증장애 봉사 도우미

임정희

세상과 만나는 드라이브는 아이들에게 가장 즐거운 행사다. 드라이브 출발에 앞서 아이들의 상태를 살피는 임정희씨.

봉사에 '중독'된 빵빵 엄마

중증장애아동 태우고 드라이브 봉사 10년째
아이들 탈날까 신경쓰여 반야심경 틀고 운전
불교와 인연 맺어주기 위해 사찰은 '필수코스'
"오히려 많이 배워요, 가족 사랑도 깊어지고…"

오늘은 월요일. 임정희씨(57)는 아침부터 마음이 설렌다. 귀여운 '아이들'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이다. 동진, 남호, 복득, 종진, 지태, 똘이….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리면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이 아이들은 서울 홍파복지원내 중증장애아동 수용시설인 쉼터요양원에서 살고 있다. 아이들이라고는 하지만 나이로 따지면 20대에 접어들었다. 그래도 10살 남짓한 꼬마로 만나 10여년을 돌봐온지라 임씨에게 그들은 언제나 '아이들'이다.

임씨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쉼터요양원을 찾는다. 월요일에는 원생들을 목욕시켜주고, 목요일에는 4명씩 차에 태워 바깥바람을 쐬어주는 '드라이브' 봉사를 한다. 지난 10여 년간 임씨는 이 약속을 거의 어긴 적이 없다. 봉사문화가 확산돼 쉼터요양원을 찾는 봉사자가 한 달에 900명을 헤아리지만, 그 가운데 임씨처럼 꼬박꼬박 약속을 지키는 이는 드물다. 그래서 임씨는 요양원에 고맙고도 귀한 존재다.

시설이 지금 같지 않던 예전에는 보일러 고장으로 더운 물이 나오지 않아 목욕시킬 수 없는 날도 적지 않았다. 핑계 김에 목욕봉사를 거를 수도 있으련만 임씨는 상계동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로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목욕시켜오곤 했다. 이처럼 그의 봉사는 형식을 넘어선 것이었다.

아이들이 특히 좋아하는 것은 드라이브. 10년 전만 해도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매주 외출한다는 것은 감히 생각도 못했던 일이다. 요즘도 중증장애아들을 데리고 나가는 건 '연례행사'일 정도로 벅찬 일이다.

아이들에게 바깥세상을 보여 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한 드라이브봉사는 이를테면 임씨의 전매특허다. 임씨는 아이들을 태우고 수락산 자락에 있는 쉼터요양원을 출발, 의정부-포천-광릉내-장호원 등으로 이어지는 약 100㎞에 달하는 먼 길을 달린다. 덕분에 붙은 별명이 '빵빵엄마다. '빵빵엄마'와 드라이브를 나가면 아이들은 괴성을 지르거나, 굳은 몸을 흔들어 기쁨을 표현한다.

아이들에게 드라이브는 즐거운 '이벤트'일지 몰라도 임씨에게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시간이다. 병약한 아이들이 탈이라도 날까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임씨는 드라이브를 시작할 때는 반야심경 테이프를 틀어 마음을 가다듬는다. 물론 가슴 한 구석에는 "이 아이들이 불법과 좋은 인연을 맺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아이들을 태우고 도선사를 여러 차례 방문한 것도 그런 마음에서다. 매달 초하루와 관음재일이면 도선사를 찾아 새벽예불에 꼭 참여하는 임씨는 드라이브 코스에 도선사를 포함시킨다.

도선사 입구에 다다르면 임씨는 이곳이 절이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부처님 말씀을 들려준다. 아이들이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쉬운 것은 도선사 입구까지 가도 법당에 오르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다는 점.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는 아이들을 혼자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임씨는 차가 올라갈 수 있는 곳까지 가서 돌아나올 수밖에 없다.

이제 60세를 바라보는 그에게 드라이브는 이제 쉽지 않은 일이 돼 버렸다. 하지만 체력의 한계보다 임씨를 더 힘들게 하는 건 드라이브를 마치고 헤어져야 하는 순간이다.

아이들을 태운 승용차가 요양원에 다다르면 임씨의 옷자락을 끌어당기고, 울기도 하면서 아쉬움을 표현하는 아이들 때문에 가슴이 미어진다.

임씨가 봉사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991년. 의왕 복전원 주지스님을 따라 방문한 용인 연꽃마을에서 찾아오는 자식 하나 없이 쓸쓸하게 말년을 보내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한없는 슬픔을 느꼈다. 힘닿는 데까지 어려운 이들을 돕는 삶을 살겠다는 원을 세운 것도 그때다.

그 후로 임씨는 사회의 그늘진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갔다. 쉼터요양원 외에도 국립의료원 중환자실에서의 간병봉사, 종로지역 노숙자 밥 주기 봉사, 시민단체 상담봉사 등 가리지 않았다.

봉사이력이 오래된 만큼 잊을 수 없는 기억도 많다. 국립의료원에서의 일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임씨는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 한 사람을 8개월째 보살피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 환자가 의식을 회복한 것이다. 소리를 낼 수 없는 그 환자는 눈물을 흘리며 임씨에게 "고맙습니다"라는 입모양을 수차례 지어보였다. 임씨도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며칠 지나지 않아 그 환자는 눈을 감고 말았다. 봉사의 보람과 삶의 무상함을 동시에 맛본 순간이었다.

"봉사라고는 하지만 일방적으로 내가 주는 것은 아니에요. 나도 많은 것을 받고 있거든요. 다른 이들을 위해 활동하다보면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돼, 가족애가 더욱 깊어집니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에게 봉사는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 현실. 임씨는 마음을 돌리면 거리감이 사라진다고 말한다. "시작이 반이에요. 타인을 위해 땀흘려 보면, 흘린 만큼 기쁨도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쁨을 한번 맛보고 나면 봉사하는 날이 기다려져요. 그러고보면 봉사도 중독인 모양이에요."

임씨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다. 그것은 쉼터요양원의 동진이(24)를 대통령과 만나게 해주는 것. 그것은 동진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하다.

"밥을 잘 먹어야 대통령 만날 수 있다는 말만 하면 안 먹던 밥도 맛나게 먹어요. 거짓말하는 엄마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동진이가 대통령과 만날 날이 꼭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주세요."

글=박익순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동진이에게 간식을 먹이는 임정희씨.

Daewon Buddhist Academic Institute

2006년 전학기 대원불교대학 · 대학원 신입생 모집 안내



모집과정
- 입문과정 (서울 · 부산) : 불교입문과정 주.야간반 각00명 [주1회출석,6개월과정]
- 대학과정 (서울 · 부산) :
  - ◇불교학과 : 주간, 야간 각100명 [주2회출석 / 주간 오후2시, 야간 오후7시]
  - ◇불교상담심리치료학과 : 주간, 야간 각100명 [주2회출석 / 주간 오후2시, 야간 오후7시]
- 대학원 과정 : 서울,부산 야간반 30 명 [주2회 출석 / 야간 오후7시]
- 통신과정 : 00명 [대학원은 제외]

강의시간 ● 주간/오후2시부터 4시40분까지 ● 야간/ 오후7시부터 9시40분까지

지원자격
- 입문과정 : 불교기본 교육을 받고 싶은 초심자
- 대학과정 : 체계적인 불교공부를 원하는 자
- 대학원 과정 : 불교교양대학졸업자 및 해당학력이 인정되는 자[포교사 자격소지자 우대]

제출서류
- 입학원서 (본교 소정양식 1부)
- 학업계획서 및 졸업증명서 각1부(대학원 과정만 해당)

전형일정
- 원서교부 : 2005년 12월 1일 - 2006년 2월 20일
- 원서접수 : 2005년 12월 1일 - 2006년 2월 20일
- 입문, 대학, 대학원전형 : 서류전형
- 합격자 발표 : 2006년 2월 21일 (개별통보)
- 입학식 및 오리앤테이션 : 서울 / 2006년 2월 26일(일) 오전11시 3층 큰법당
  부산 / 2006년 3월 5일(일) 오전11시 2층 큰법당

전형료 및 수업료
- 전형료 : 입문과정 1만원 / 대학과정 2만원 / 대학원과정 5만원
- 수업료 : 입문과정 10만원[기성회비. 교재비. 행사비포함]
- 학기당 : 대학과정 : 30만원[기성회비. 교재비. 행사비포함]
  대학원과정 : 40만원[기성회비. 교재비. 행사비포함]
  ※ 수업료는 입학식전에 완불하셔야 입학하실수 있습니다.(카드결제 가능)
  1학기에 한하여 학사이전기념으로 입학생 전원 20% 장학혜택을 드립니다.

전형료 및 수업료 납부
- 서울 : 국민은행 098-01-0244-009 [예금주 : 한국불교대원회]
- 부산 : 기업은행 252-028746-01-017 [예금주 : 한국불교대원회]

원서교부 및 접수처
- 서울 : 서울 대원불교대학 교학과 02) 706-1570,1 / 754-1613 / 773-9171
- 부산 : 부산 대원불교대학 교학과 051)583-7700 / 583-7811~ 2

※ 전화 신청 시 입학원서 및 안내문을 발송 해드립니다.

문 의
- 서울대원불교대학 :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2층 ☎ 02)706-1570, 1571
  서울 용산구 후암동 358-17 ☎ 02)754-1613/773-9171 / 팩스 02)771-6796
- 부산대원불교대학 : 부산 금정구 장전1동 382-2 ☎ 051)583-7811 ~ 2 / 팩스 051)583-7700



대중불교운동을 선도하는
대원불교대학 · 대학원
www.idaewon.or.kr
www.buddhaschool.or.kr

나의 수행법

<법화경> 사경기도 체험기 - 최태숙 (上)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1년에 딱 두 번 초파일과 동지 때만 절을 찾는 줄 알았다. 그러고도 종교를 물으면, '불교'라고 서슴없이 적어내던 초심불자였다. 그러던 중, 불교를 알고 싶은 생각에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와 인연을 맺게 되면서 1주일에 한 번씩 강의를 듣게 됐다.

하지만 1시간 넘게 걸리는 대구 영남불교대학을 수시로 가기 힘들었다. 그러던 중, 내가 살고 있는 경산에 분원이 생겨 반가운 마음에 1기생으로 입학을 했다. 공부는 기초교리부터 다시 시작했다. 강의도 한 번 들은 내용이라 이해가 쉬었고, 스님께서도 재미있게 설명해줘 조금씩 불교공부에 흥미를 가지게 됐다. 사시예불에도 자주 동참하게 됐다.

영남불교대학 관음사는 1년 나중에 나와야 했고, 그것도 "아야야~" 하는 신음과 함께 일어나야 했기에, 3천배는 아예 할 생각도 못했다.

하지만 용기를 내봤다. 곧장 3천배를 했다. 하면서도 아픈 무릎을 많이 걱정했는데 신기하게도 무릎은 멀쩡했고, 오히려 안 아픈 다리가 아파왔다.

그렇게 기도의 묘미를 조금씩 느껴가면서 제대로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곧바로 스님께 말씀드리니 '신묘장구대다라니' 1자 1배를 21일간 해보라고 했다. 나는 매일 3시간씩 다라니 1자 1배를 했다.

마지막 날, 평소에 꿈을 잘 꾸지 않던 나였는데 꿈에서 사랑스런 아들이 없어졌다.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는데 결국 화장실에서 발견했다. 그런데 아들이 목을 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울며불며 아들을 부르니 아들이 눈을 떴다. 아직 살아 있는 것이었다. 너무나 반가워 "너 왜 이런 짓을 했니?" 하니 "엄마를 바뀌게 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선 꿈을 깼다. 너무나 엄청난 일이라 정신이 없었다. 아들이 목을 맸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다. '왜 내가 이런 꿈을 꿨나' 한동안 생각해보니, '부처님께서 세속에 물들어 살던 나를 바꿔 주시려는 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며칠 후, 다라니 기도한 사경지를 가지고 스님을 뵈었다. 스님은 잠시 보시더니 "며칠 쉬다가 기도가 하고 싶으면 다시 오라"고 했다. 며칠 뒤, 다시 찾은 스님은 "<법화경> 사경을 해보라"고 했다. 3천배 기도와 다라니 사경기도에 이어 <법화경>과 인연. 그렇게 시작이 됐다.(계속)

■ '법화경' 바른수행모임 회장

3천배 정진과 다라니사경 끝내고
기도 묘미에 빠져 법화경 사경 시작

체험통한 수행 안목 키우기가 핵심

'간화선 기본수행프로그램' 백배 활용하기

화두의 '화'자도 몰랐던 가정주부 류미자씨(48 • 수원 조원동). 조계종 포교원이 지난 7월 서울 조계사에서 시범운영한 '간화선 기본수행프로그램'에 참여한 뒤로, 막연했던 화두참구가 분명해졌다. '화두를 왜 들어야 하는지' '죽을 만큼의 간절한 의심을 왜 가져야 하는지' '자신이 본래부처임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등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최근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이 3년간의 준비 • 개발기간 끝에, '간화선 기본수행프로그램'을 내놓았다. 재가불자들이 책과 깊은 산속의 절집에서만 맛볼 수 있었던 간화선을 도심선방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기본수행프로그램은 재가자에게 맞도록 '눈높이'를 대폭 낮췄다. 프로그램은 교사가 체계적인 수업진행을 위해 만드는 학습지도안을 중심으로 도심사찰에서 1주에 한번씩 10주 과정으로 짜여 있다. (02)2011-1911



조계종 간화선 기본수행프로그램의 하나인 '수행담 나누기'. 각자의 경계를 드러내면서 스스로 공부를 점검하는 프로그램이다. 사진은 지난 3월 서울 금강선원에서 시범 운영된 간화선 기본수행프로그램의 한 장면. 사진제공=조계종 포교원

도심사찰서 주1회 10주과정, 눈높이 수행 체험
강의·질의응답·수행한담·점검표 작성 등 체계화

 # 어떤 내용 담겼나?

이번에 선뵌 '간화선 기본수행프로그램'의 전체적인 밑그림은 목차에서 확인된다. 1~5품까지는 △불교의 목적 △선이란 무엇인가 △불교수행의 목적 △나는 누구인가 △간화선의 특징 등이 소개돼있다. 간화선 수행에 앞서, 불법을 올바르게 이해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또 불교교리의 핵심인 중도, 연기법, 무아, 공 등도 담아, 재가자들이 정견을 바로 세우고 발심을 낼 수 있도록 했다.

첫 품 '간화선이란 무엇인가'에서는 간화선의 개념 정의와 목적, 본래부처에 대한 이해 등에 비중을 뒀다. 가령 '간화선에서 깨달음의 대상은 무엇인가'의 경우에는 깨침의 대상을 설명하는 한편, '왜 본래부처인가'를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 본래부처의 의미와 본래부처인데 왜 닦아야 하는지 등이 다뤄져있다.

지난 7월 조계사 시범운영에 참가했던 노귀분(51 · 인천 신현동)씨는 "이론적으로만 알던 '본래부처'를 프로그램 참가 이후부터 실생활에서 직접 체득했다"고 말한다. 즉 자성불(自性佛)을 확신하게 됐고, 간화선 수행에 대한 자신감도 얻게 됐다는 것이다.

"머리로만 '본래부처'라 여겼죠. 하지만 한 주 한 주 동참하면서 믿음이 생겼어요. 내 자신이 자성불임을 깨닫게 되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가 만들고 있음을 알게 됐지요. 인연법을 보게된 거죠. 그러니 상대방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더군요. 내가 본래부처인데, 화를 낼 것도, 슬퍼할 것도 없더라고요."

6품부터는 실참을 위한 단계들로 구성돼있다. 구체적으로, '화두 알기와 들어보기' '간화선의 수행체계' '생활 속의 화두' 등이 프로그램에 담겨있다.

7품 '화두 속으로'의 경우, 화두의 간택, 화두참구의 요령 등이 주 내용을 이룬다. 일례로 '화두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화두참구의 4가지 자세, 즉 △발심이 됐을 때 △선지식으로부터 받을 것 △화두를 이성(생각)으로 헤아리지 말 것 △'맞다 안 맞다' 분별하지 말 것 등과 함께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3월 서울 금강선원 시범운영에 참가했던 김인희(50 · 수원 파장동)씨는 "화두참구의 가닥과 감을 잡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일상을 사는 재가자들에게 화두가 갖는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됐다는 것이다.

"일상사에서 부딪치는 모든 문제와 경계 그 자체가 화두임을 알게 됐어요. 화두참구의 자세에 대해 듣는 순간에 그 이치를 깨닫게 됐죠. 그러니 내 안의 불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자각했어요."

 # 특징은?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간화선 수행의 '실제체험'과 '수행 안목 키우기'에 있다. 때문에 매 품 구성은 강의, 질의응답, 수행담 나누기 등 3교시로 짜여있고, 10품 및 회향은 전통사찰에 찾아가 수행체험을 갈무리한다. 두번에 걸친 시범운영에서도 회향 프로그램을 금강선원 홍천 선문장, 문경 대승사에서 진행했다.

'수행담 나누기'와 '매품별 수행과제 도출하기'는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수행담 나누기'의 경우, 초심자의 입장에서 간화선 수행을 알기 전과 그 이후의 변화 흐름을 공유하면서 자기 공부를 자연스럽게 점검할 수 있게 됐다.

금강선원 시범운영 참가자 최경수(49 · 수원 영통동)씨는 "수행담 나누기는 참가자 스스로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화두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살아서 펄덕거릴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한다.

매 품별 수행과제 도출하기 또한 기본수행프로그램의 장점이다. 단순 교리강의의 한계를 벗고, 프로그램 참가자 스스로가 '간화선 수행을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직접 이끌어내게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1품 '선으로의 초대'에서 '내가 본래부처라는 사실을 믿고 지켜보기'라든가, 4품 '간화선과 무한향상의 길'에서 '참회하며 나의 서원 실행해보기', 9품 '생활 속의 화두'에서 '화두 들고 일상경계에 깨어 있어보기'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각 품별로 예상 질의응답과 예화 등을 풍부하게 실어 참가자가 가질 수 있는 궁금증 등을 해결할 수 있게 한 것도 간화선 기본수행프로그램의 특징이다.

글=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 '일일수행점검표' 왜 써야 하고 어떻게 작성하나?

수행의지 굳히고 발심계기 마련…17개 항목 체크

'간화선 일일수행점검표'는 자신의 수행의지를 확고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그 과정에서 자기 변화를 체크할 수도 있어, 수행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일일수행점검표는 어떻게 작성하나? 먼저 월일, 시간, 장소, 화두 등을 기입한 뒤, 17개 점검항목에 따라 자기 진단을 '매우 잘됨(5점)' '잘 됨' '보통' '안 됨' '매우 안 됨(1점)' 등으로 나눠 적는다. 점검항목으로는 ▲내 자신이 본래 부처임을 알아차리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목마름이 간절한가 ▲좌선하고 화두를 들 때 잘 들리는가 ▲역경계를 당해 화를 내는 마음이 줄어들고 있는가 ▲아상이 줄어들고 있는가 ▲빈 시간에 망상하지 않고 화두를 들고 있는가 ▲나의 허물을 보고 일상에서 참회하는가 등이다.

간화선 기본수행프로그램 각 품 제목과 수행과제

품	제 목	수행 과제
1품	선으로의 초대	내가 본래부처라는 사실을 믿고 지켜보기
2품	양변을 여읜 자유로운 삶-간화선과 중도 연기	떠나자, 내려놓자
3품	지혜의 길, 자비의 길-간화선과 무아 공	허공으로 나가보자
4품	간화선과 무한향상의 길	참회하며 나의 서원 실행해 보기
5품	간화선 이해하기	매사에 불성이 움직이고 있음을 체험해보기
6품	화두 알기와 들어보기	이웃에게 보시하며 마음 살피기
7품	화두 속으로	두 번째 화살 맞지 않기
8품	문 없는 문을 열다-간화선의 수행체계	화두를 들며 인욕 실천하기
9품	생활 속의 화두	화두를 들며 일상경계에 깨어 있어보기
10품 및 회향	전통사찰에서 실참	

"승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갖가지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이 효능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 (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 (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한다.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 문의 경북 군위군 효령면 매곡동 팔공산 계곡
전화번호 : (053)324-1289 지수 대진 합장

당뇨병 희소식!!

당뇨로 고생하시는분 고통에서 벗어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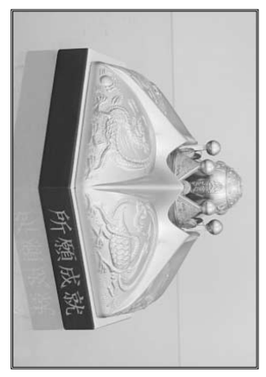
본 사찰에서
극비리 전해 내려오는
비법과 본인이 기도로
얻은 비방으로 당뇨를
해결해 드립니다.

1. 당뇨수치 높은 분
2. 합병증으로 고생 하시는 분
3. 발병한지 오래되고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되시는 분.
4. 당뇨때문에 생활에 지장이 있는 분

대한불교 해월정사
경남 마산시 성호동 73-4번지
전 화 : 055)241-0374
휴대폰 : 011-833-0374

※ 남여 행자 모집합니다.

명당을 만들어 주면 운이 바뀝니다 명당육氣방



◆ 본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바뀌면 좋은 운으로 변하여 하시는 일들이 잘됩니다.
◆ 관재나 삼재에 시달리신분. 운이 없거나 재수가 없는분.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는분. 사주가 안좋으신 분들은 명당육氣방 가묘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강한 명당을 만들어 주면 새 운으로 변하여 좋아지게 됩니다.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묘지터를 처방해 보십시오, 氣가 살아나면서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운, 명예, 사업, 재물 운이 옵니다.

이것이 처방이다. 명당육氣방 051)865-9933

천도재 49재와 같들인 처방법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당육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氣덩어리 북덩어리 황금덩어리 氣가막힌 북이틀어와 황금운으로 변합니다.

정화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의로 배우는 '무명'의 정체

과거 기억이 현재 지배하면 無明

"마음은 본래부터 청정하다. 그런데, 왜 무명(無明)이 일어나는가?"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 용수와 함께 보살로 추앙받는 마명이 중생들에게 대승에 대한 신심을 일으키게 하려고 쓴 논서다. 따라서 무명의 정체를 물은 첫 질문은 〈기신론〉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마명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기신론〉은 어렵기만 하다. 30년 넘게 〈기신론〉 연구에 매달려온 은정희 前 서울교대 교수도 "한 자 한 자가 암호 같았다"고 고충을 토로할 정도다.

11월 26일 오후, 정화스님이 지난해 10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기신론〉을 강의하는 서울 원남동 연구공동체 '연구공간 수유+너머' 강의실을 찾았다. (02)3673-1125



정화 스님이 11월26일 서울 원남동 연구공동체 '연구공간 수유+너머'의 강의실에서 〈대승기신론〉을 강의하고 있다.

 # 〈기신론〉, 너는 누구냐?

대승경전에서는 "불법의 큰 바다는 오직 신심만이 들어 갈 수 있다"고 했다. 신심이야 말로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모체라는 의미다. 〈기신론〉도 예외가 아니다. '믿음'의 강조에 있어 둘 째 가라면 서운할 정도다.

정화 스님은 마음의 본질과 무명에 대한 설명에 앞서, '믿음'의 중요성에 대한 말부터 풀어냈다. 마음이 일어나는 곳마다 깨달음의 봉우리가 되니,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대승경전에서 '내가 부처라고 하는데, 부처 같지 않다'라고 의심을 갖지요? 그래도 계속 일심(一心)으로 이어가야 해요. 그러면 '내가 진여, 그 자체로 부처의 활동이다'라고 점점 믿어 가는 마음이 생깁니다. 딱 믿는 마음이 생기면, '진여' '생멸' 일체가 부처의 활동이라는 인식 내용이 자리 잡습니다."

〈기신론〉은 모든 중생들의 본래적인 참모습인 진여심을 나타내는데 그 핵심이 있다. 즉 진여심이 근본바탕이 돼, 이 마음이 일체의 세간과 출세간법을 모두 포섭하고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 무명(無明)의 정체는?

"마음의 근본 특성에는 염(念:기억)이 없어요. 염이 없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법계가 하나인 것을 통달하지 못해 망념(妄念)이 생깁니다. '망념'은 과거의 어떤 것으로부터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홀연히' 일어나죠. '홀연히'는 마음이 바로 전 순간에서 다음 순간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염이 일어나 그 일어난 마음이 뒤로 이어져 무명이 되는 겁니다."

무명에 대한 정화 스님의 설명이다.

가령 이런 식이다. 무언가를 '인식한다'고 치자. 그런데 만약 한 순간이라도 과거에 기억돼온 영상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면 그건 다 무명이다. 과거의 기억과 배경이 현재 순간을 지배하면, 그것 자체가 무명이라는 설명이다.

마음자리 잘 관찰하면 마음 쉬고 무명 벗어나
'삶·죽음' '진여·생멸'은 하나…집착 벗어나라

 # 무명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현재 마음자리를 잘 관찰하면, 마음이 쉬게 됩니다. 그러면 늘 작용하는 '무명의 힘'이 줄어들게 되지요. 관찰을 열심히 하면 이 같은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정화 스님은 이런 어리석음의 원인을 '분리식(分離識:나눠 인식하려는 인식작용)'으로서의 의식에서 찾았다. 영원불변한 도리인 '불생불멸(不生不滅)'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의 변화상인 '생멸(生滅)'에만 집착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결국, '생멸'에서 '나'란 존재에 집착하게 되고, '항상 다르다'고 생각하는 '분리식'이 무명을 키운다는 의미다.

그럼, 〈기신론〉에서는 무엇으로 무명을 끊으라고 할까? 스님은 '한 마음(一心)'에 있다고 강조한다. 일심에 대한 이해가 무명을 끊어내는 '지혜의 칼'이 된다는 것이다.

"'생멸'을 강조하면, '불생불멸'을 못 본다고 했지요. 그래서 '생멸'만 보면서 고착된 삶을 사는 것을 범부라 합니다. 〈기신론〉에서는 '일심'으로 살라고 누누이 말합니다. 일심은 '삶과 죽음' '진여와 생멸' 등이 '다르지 않음(不異)'을 가르쳐줍니다. 그 구체적인 설명이 바로 진여문(眞如門)과 생멸문(生滅門)이지요."

두 개의 문, 진여와 생멸. 정화 스님은 "〈기신론〉은 '한 마음', 즉 일심을 이해하기 위해 두 가지의 길을 제시했다"고 말한다.

"두 개가 다른 게 아닙니다. 삶 속에 그 자체로 드러나 있습니다. '진여'에는 생멸문이 아닌 게 없고, 또 생멸한다고 해서 '진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여와 생멸의 혼재가 일심이지요. 우리네 삶이 끊임없이 변하고, 고통스럽다보니 '생멸'에 익숙한 나머지 '진여문'을 잠깐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잊어버린 사람을 범부라 하는 겁니다. 사실 한 마음에는 둘이 함께 있습니다."

 # 밖에서 찾지 말라

정화 스님은 '마음이 부처'임을 잊지 말라고 당부한다.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으면 외도가 된다고 강조한다.

"마음을 총섭(總攝:모두 포괄한다)이라고 합니다. '심성(心性)'은 인간의 마음을 떠나서 획득할 수 없다는 말이지요. 일체 마음 마음이 부처의 마음이듯, 내 마음이 부처의 마음인 것을 깨닫게 되면,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을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스님은 이어 일심의 일체 활동이 모두 '부처(佛)'라고 설명한다. 이 이치를 적게나마 경험하면 법신을 체득하게 되고, 깨달음의 힘을 얻게 된다고 말한다. 즉 부처는 단순히 이름이 아니라, 순간순간 깨어있는 상태에서 인식하는 활동이란 의미다.

글·사진=김철우 기자

소장학자에 경전강의 5년째

정화(正和) 스님은 2002년 조계종 기초선원에서 〈중론〉을, 올해는 〈금강경〉을 강의한 정화 스님은 30년전, 조계종 종정을 지낸 고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 도견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고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이후, 송광사 해인사 백장암 등에서 10안거를 성만하고, 현재는 제주도에서 전셋집을 얻어 10년 넘게 홀로 수행 중이다.

'연구공간 수유+너머'와의 인연은 2001년부터. 소장학자들에게 〈금강경〉 〈유마경〉 등의 불교경전을 수행의 언어로 풀어내 호응을 받고 있다.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46〉 세상에 나오는 엉터리 어록들

7~8년 전 한글번역본 두 권을 내 이름을 달고서 세상에 내놓은 적이 있다. 그 책 원저자인 혜홍각범(慧洪覺範 1071~1128)선사의 〈선림승보전〉은 처음엔 일백명의 선사행적을 수록했다. 그런데 대혜종고(大慧宗杲 1089~1163)선사가 책이 나오기 전에 먼저 읽고서 그 가운데 19명의 기록을 추려내어 불태워 버렸다.

의아하게 생각한 각범 스님은 황벽사의 지(知) 스님에게 편지를 보내 "무슨 이유로 종고 선사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는 넋두리를 한다. 하지만 이런 불쾌함을 뒤로 하고 출판할 때는 그 19명을 빼고 책을 냈다. 대혜 스님 안목과 고언을 기꺼이 받아들인 결과다. 이러한 감수자 대혜와 저술자 각범의 태도를 높이 평가한 이가 명나라 무온서중(無慍恕中 1309~1386) 선사였다.



무온 선사는 직설적인 언어를 사용했다. 한 시대를 같이 사는 승려들에게 내뱉기 쉽지않은 말을 할줄 알았다. 그는 세상에 나가기를 싫어했고, 행각과 안거로 일관한 삶을 산 까닭에 인정에 끄달리지 않고 할 말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간행후 눈밝은 이 만나면 가차없는 평가 따라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한 '귀담아 들을' 이야기

선사는 임제종 양기파 축원묘도(竺元妙道) 선사의 법을 이었다. 선승이면서도 역사적 안목을 가진 시대의 지성이기도 했다. 특히 선사는 안목없이 만연하는 어록의 무차별적 간행에 대해 가차없이 일갈하고 있다.

당시의 대표적 어록 생산가 삼인방으로 사명(四明)땅 출신 소천강(炤千江) 화상, 천태인(天台人) 원직지(圓直指) 화상, 양주(揚州)사람인 혁휴암(奕休菴) 화상 등이라고 구체적으로 그 이름까지 지목하고 있다. 더 심한 것은 이 세 사람에 대한 가혹하리만치 냉정한 인물평이다.

그들은 온갖 번뇌에 얽힌 범부에 불과하며 안목없는 머리깎은 외도일 뿐이라고 했다. 합량미달이라는 자질론적 언급인 셈이다. 공부한 바가 없으니 불조화두의 근본 뜻이 어디에 있는 줄도 모르면서 현학적인 말로 어리석은 자신의 해석을 잘못 붙여놓고 '제 마음대로' '어록'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그의 지적은 모골을 송연하게 만든다. 한 술 더 떠 간행비용을 신도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말도 빠뜨리지 않았다.

그의 직설은 성역이 없다. 보나마나 이 무리들은 당시의 세력가였을 것이다. 이들을 바로 잡아주어야 할 법상위 앉은 큰어른들까지 그들을 칭찬하고 심지어 어떤 조실은 엉터리 어록에다가 서문과 발문까지 써주고 있다고 당시의 흐름을 탄식하고 있다. 모두가 선문(禪門)에 끼친 죄로 인하여 함께 지옥에 떨어질 일이라고 통탄했다.

이처럼 비분강개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다. 드디어 방(棒)을 가차없이 날릴 기회가 왔다. 소천강 화상의 제자인 휘장주(暉藏主) 스님을 만난 것이다. 휘장주 역시 〈금강경〉을 조목조목 분석하고 제멋대로 송(頌)을 붙여 간행 배포한 전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가 무슨 일인지 무온 선사가 주석하고 있던 동곡사(桐谷寺)에 찾아왔다. 또 새 책을 얼렁뚱땅 한 권 만들어 감수라도 받으러 왔는지 모르겠다. 그렇잖아도 벼르고 있었는데 제대로 딱 걸렸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어떻게 이 경에다가 제목을 붙였으며, 무엇으로 종지를 삼았는가?"

덕담은 고사하고 예기치 못한 서릿발같은 질문에 아연한 휘 화상은 묵묵부답 좌불안석이었다. 덕산 선사가 곁에 있었다면 삼십방이 아니라 몽둥이로 찜질을 했을 것이다.

그러고보니 이건 명나라 시대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귀담아' 들어야 할 이야기다. 어떤 어록이건 간행이후 눈 밝은 임자를 만나면 가차없는 평가가 뒤따르기 마련이다.

괜히 선지(禪旨)도 없는 엉뚱한 소리 어설프게 늘어놓았다가 세세생생 등줄기에 식은 땀 흐르는 일 만들지 않는 것도 또 다른 '불립문자'일 것이다.

■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청동 불상 제작 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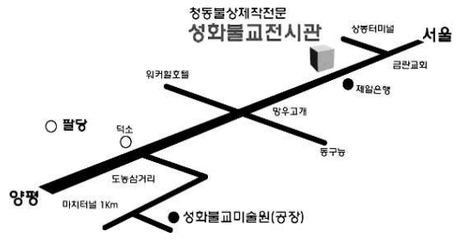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카다로그 필요하신 분 전화 주세요.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청동불상제작전문 성화불교전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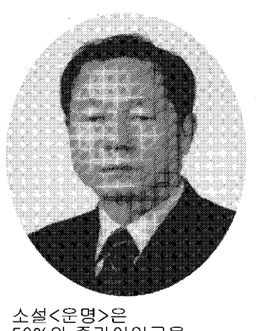


• 성화불교전시관 : 02)2209-0080
• 성화불교미술원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주 · 야 상담 합니다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133-33 태창빌딩 1층

"운명"을 읽고 나면 대길운(大吉運) 성공이 보인다!!!

마음과 운명을 바꾸어 주는 책 ○ 오희규 실화소설

운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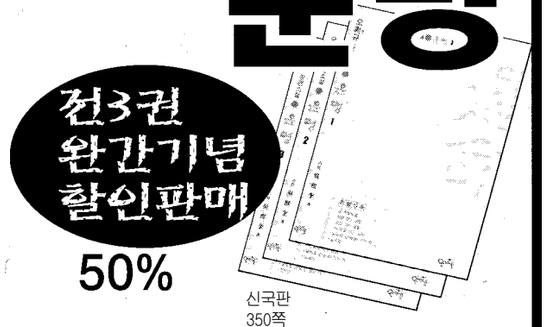
소설<운명>은
50%의 중간이익금을
독자에게 직접드리기위하여
서점을 통하지 않고
통신판매를 하고 있으며
책값은 책을 받으신 후
입금하시면 됩니다

■주요수록내용■
궁합이야기
성기가 말을 안들어요
딸이 미쳐가고 있어요
의처증 이야기
바꿔 놓고 생각하기
실수의 흔적
처제와의 불륜
육체란 무엇인가?
입시이야기
성형수술이야기
제발 시집가고 싶어요
세번 결혼한 검사님
잉태와 섹스의 비밀
남편과 제발 헤어지게 해 주세요
두번 태어난 보일러공의 행복
성공하는 사람은 다르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노처녀의 사랑이야기
넘치는 정력을 주체할 수 없어요
자신의 처지를 겸허히 인정하라
운명을 바꾸는 법

■책속 부록■
▶생일로 알수 있는 내 몸의 건강
▶꿈 해몽 비법 ▶띠로 보는 궁합
▶달로 보는 궁합 ▶시(時)로 보는 궁합
▶날짜로 손(살성) 보는 법 ▶삼재법



서울 · 마포구 아현3동 618-22
전 화 (02)365-8172
팩 스 (02)365-8173
홈페이지:www.indeenet.co.kr



전3권 완간기념 할인판매
50%
신국판 350쪽 각권정가 10,000원

전집구입시 15,000원 후불제!
(062)266-1083, 266-6693
으로 전화주시면 책 먼저 보내드립니다
입금계좌:(예금주:오희규)
농협 601175-52-016521

교도소 수감생활 하시는 분은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연락처(우편번호 500-500)
광주광역시 북구 청옥(망월)동374-2번지
전화: 062-266-6693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73)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 19강 불교로 세상을, 세상으로 불교를

'불교와 사회 포럼'에 대한 '후기'

지난 11월 23일 '불교와 사회'의 창립 포럼이 열렸습니다. 플래카드는 "현대사회에 있어 불교는 무엇인가"입니다. 장소가 조계사 옆에 새로 지어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이라는 것이 더욱 뜻 깊었습니다.

붓다의 옛 지혜에 무어 다시 보태거나 고칠 것이 있느냐고 우엑 하는 고함소리에, 몽둥이찜질이 날아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역사를 돌이켜 보십시오. 불교는 자신의 오래된 지혜를 자산으로 하되, 지역의 문화와 습속에 따라 적응하고, 그리고 또 변화하는 세상을 따라 면모를 달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불교'가 있게 된 것입니다. 불교는 그런 점에서 하나의 이름이 아닙니다.

불교와 사회는 불이(不二)

세상이 너무 변했으므로, 당연, 새 불교가 필요합니다. 그러자면 달라진 세상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활발발하게 소통해 나갈 일입니다. 이 회향(廻向)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불교의 물줄기를 바꾼 대승(大乘)이 바로 그런 혁신 마인드의 산물 아닙니까. 대승이란 출가 비구 비구니의 수행과, 재가 우바새 우바이의 삶의 현장이 연대된 새 불교운동이었습니다. 그것이 한국불교의 상징인 원효의 삶이었고, 또한 대승의 끝에서 최상승을 제창한 혜능의 무식(無識) 불교의 취지였습니다.

한국불교가 산중으로 유폐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불교는 불교의 길을 가고, 세상은 세상의 길을 가는" 격절이 심화되었습니다. 불교와 사회는 불이(不二), 둘이 아닙니다! 옛 어법을 빌리자면, 사회를 떠난 불교는 말라비틀어질 것이고, 불교를 떠난 사회는 썩어문드러질 것입니다.

창립 포럼의 화두는 크게 두 가지 노선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1) '불교의 현대적 적응(How to apply Buddhism to contemporary society)'이라고 부를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2) '현대사회의 불교적 경영(How to manage contemporary Korea in a Buddhistic way)'이라고 부를 만한 것입니다. 첫 발제는 1)에, 두 번째와 세 번째 발제는 2)에 촛점을 맞추었습니다.

불교와 현대사회

1. 조성택 교수님은 불교의 핵심 가르침이 공(空), 즉 비어있기에, 다른 문화와 관습에 유연하고 적응적일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서구인들은 바로 그 빈 자리, 혹은 최소한(minimalism) 위에, 생활의 지혜라는 이름으로, 개인주의적이고 엘리트중심적 불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일러줍니다.

글로벌시대에 한국의 불교도 기존의 관행과 권위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외국의 불교도 도입하고, 필요하다면 경전도 새로 쓰자고 권합니다.

이에 대해 김종욱 교수님은 불교의 사회적 목소리에서 대안을 찾습니다. 생활불교와 국제포교도 물론 중요하지만, 불교의 활로, 혹은 '새 적극적 패러다임'은 사회적 이슈를 선점하고, 국가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높이는데서 찾아질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 불교의 활로는 '사회적 비판'보다,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쪽, 즉 불교본연의 기능에 있음을 믿는다고 토를 달았습니다.

불교와 정치

2. 두번째 박세일 교수님은 "만일 부처님께서 2005년 한국의 이 땅에 오셨다면 무어라고 말씀하실까"로 말문을 열고, 붓다께서는 아마도 대중의 분노와 탐욕을 선동하는 포퓰리즘이 현재 한국정치의 근본병폐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자답했습니다.

아울러 경제 문제는 강남특구에 세금폭탄으로 해결하고, 교육은 서울대 폐지로 해결하고, 균형발전은 수도이전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단순 이분법의 위험을 크게 지적하실 것이라고 설파합니다.

과거사 문제 또한 우리가 안고 있는 공업(共業)이고, 그 연기법에서 누구도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자 합니다. 부처님은 연기법에서, 나는 지금 여기의 이 상황을 만든데 대해 전체적 책임을 지고 있으며, 거기 기여한 타자의 책임은 오히려 최소한이라는 지혜를 가르치지 않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각범 교수님은 이렇게 세상을 고치지기 전에, 자기 속의 원한과 독소부터 정화하는 노력을 우선해야 한다는 불교의 가르침에 근본 동의하면서, 전국민을 이 기묘한 동원의 역사적 공범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이 세션에 대해 성태용 교수님이 강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지금 두 분은 특정한 정치적 이념을 불교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또 다른 포퓰리즘'을 훤전하는 것이 아니냐고요. 성 교수님은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포럼이란, 특정한 주장에 대해, 이의와 반론이 잇따르고, 이것이 토론을 통해 부딪치고 화해하는 마당인데, 발제자와 토론자가 같은 이야기를 판에 박은 듯이. "나보다 잘 썼네"하고 합창하면 어떡하느냐고 말입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이고 있고, 저는 "저런, 사회자도 잘못 뽑으셨습니다"라고 눙치고 있는데, 저 뒷쪽에서 나이 지긋하신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토론이 랍시고 치고 받고 하는 것은 TV에서 신물 나게 보아왔소.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사회를 향한 불교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왔소. 두 분의 말씀을 막지 마시오."

불교와 경영

3. 세번째 발제는 '불교와 경영'입니다. 노부호 교수님은 기업의 목표를 불교식으로 업그레이드하자고 제안합니다. 경영의 목표는 이윤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것, 그러므로 효율을 따지기보다 가치를 중시하는 기업문화를 정착시키자고 역설했습니다. 그러자면 삶과 일의 의미에 대한 혁명적 전환이 필요하겠지요. 명상이나 충격적 경험, 그리고 타자와 전체에 대한 관계성의 인식이 깊어갈 때, 그 무상(無常)과 무소유의 비전 위에서 생산과 조직의 전 시스템이 혁명적 변화를 겪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지혜경영연구소 손기원 소장님은 이처럼 무아나 무소유같은 불교적 원리를 경영의 목표로 삼기보다 -아마도 실패하기 쉽다는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업경영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명상이나 지혜같은 전통불교를 가르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고 말합니다. 거꾸로 된 충고 하나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불교로 세상을 경영하겠다고만 말고, 불교집단에 기업경영의 노하우를 접목시키는 것도 시급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종합토론에서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펼쳐졌습니다. 왜 불교기업인클럽이 없느냐는 한탄에서, 앞으로의 포럼은 '연구'보다는 '현장' 중심으로 가자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 중 제 가슴을 깊이 찌른 말이 있습니다. "정치고 경영이고 간에, 그 종국적 목적은 사바 중생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바로 거기에 있어야 한다."

앞으로의 포럼은 불교의 이 오래된, 성스러운 첫 번째 진리를 가슴에 품고 열어갈 것을 사부대중 모두에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주장자라…

95 소산광인 선사의 '말타기'

조태호



소산광인(疎山匡仁:837~909): 당나라 승려로 조동종 법계에 속함. 저서로 <사대등송> <약화엄장자론>이 전함.

네티즌 교리문답

점심(點心)의 의미는?

문 <금강경> 주석의 대가인 덕산 스님과 시장 떡장수 노파의 법거량이 유명합니다. "삼세심불가득(三世心不可得)인데, 어디서 마음을 찍겠는가?"란 선문답이었는데, 그 때 점심(點心)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식탐맨)

답1 : 우리는 일상에서 흔히 낮에 먹는 식사를 점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점심이란 낱말의 불교의 원래적 의미는 무척 다릅니다. 점심의 본래의미는 선종에서 아식을 먹기 전에 먹는 소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음식으로서 뱃속에 점을 찍을 만큼 적은 양의 식사를 가리키는 말인 것이지요. 그저 빈속에 간단하게 요기가 될 정도의 음식의 양으로 시장기를 모면한다는 것으로 보아 수행자들의 간식정도로 이해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낮에 먹는 식사로 의미가 변해 중식 오반 등의 뜻으로 쓰이고 있다. (음식전문가)

답2 : 점심에 얽힌 유명한 공안하나가 바로 <금강경>의 대가였던 덕산 선사와 떡장수 노파와 만남입니다. 남종선을 격파하겠다는 뜻을 품고 예주에 이른 덕산 선사는 배가 고프던 차에 떡파는 노파를 만났지요. 노파가 덕산 선사에게 "스님 그 보따리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하니 덕산은 "자네가 어찌 알겠는가마는 <금강경>에 관한 논서가 들어있네"라고 답했지요. 그러자 노파는 "스님 과거의 마음을 포착할 수 없으며 현재의 마음을 포착할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을 포착할 수 없다고 그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님께서는 그 어느 마음(心)에 점(點)을 찍으시겠습니까? 제대로 대답하면 점심공양을 올리고 그렇지 못하다면 그냥 가시오"라고 묻지요, 그러자 떡 파는 노파의 말에 말문이 막힌 덕산 선사는 그 길로 숭산 선사를 찾아가 선을 닦아 활연대오하기에 이른다는 내용입니다.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을 논한 점심의 선문답은 일상의 희화화를 통한 깨침의 세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명장면이기도 합니다. (선어록 풀이하기)

답3 : 불가에서는 전통적으로 올바른 수행을 위해 소식을 권장해왔습니다. 넉넉한 음식섭취가 수행에 많은 장애를 낳을 뿐만 아니라 시주자들의 시은에 대해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배가 고픈 상태에서 음식을 뱃속에 점을 찍을 만큼만 먹으란 것은 대단한 인내심과 절제심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수행자들이 생사일대사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일의일발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면, 점심의 의미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남다르게 다가옵니다.(불자)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상식퍼즐

1				7	■	■
■	■	■	■	2	8	
3	9		■	■		■
■		■	4			10
■		■	■	■	■	
■	5		11	■	■	■
■	■	■	6			

정답은 26면에

가로

1. 한 개체가 많은 세포로 이루어진 동물 2. 기원정사가 있었던 언덕이름 3. 담배에 함유되어 있는 알칼로이드 4. 학문이나 덕행 등을 배우고 닦음을 이르는 한자성어 5. 테니스와 월핸드볼을 혼합한 운동 6. 불교 사찰 안에 있는 연못으로 서방 극락정토를 모방하여 만들었으며 줄여서 연지(蓮池)라고도 함.

세로

1. 불가에서 신비한 힘을 가진 것으로 믿어지는 주문 7. 죄를 물어 죽임 8. 만화가 이상무씨의 만화 주인공으로 자주 등장한 인물 9. '우주의 질서'란 꽃말을 가진 꽃 10. 지난날, 지체 높은 부인을 높이어 일컫는 말 11. 야구에서,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명인사가 제1구를 포수에게 던지는 일.





아체는 너무 오래 울고 있다
박노해 글·사진
느린걸음 펴냄 | 9천8백원

폐허의 지평선 '아체' 살아남은 자의 슬픔

세계 빈곤 · 분쟁지역 돌며 구호활동 펼치는 박노해 시인
쓰나미 폐허더미 속에서 실낱같은 희망 찾아나가는
아체인의 가슴 아린 고통
사진 · 시 · 산문으로 생생히 전해

'하늘이여
저에게 화를 내고 계신가요, 여기가 세상의 심판대인가요
인도네시아의 검은 머리라 할 수 있는 아체를 이렇게 날려 버렸어요
아무 경고도 없이, 아무 자비도 없이'
-'아체'를 기리며 중에서

<노동의 새벽> <사람만이 희망이다> 등으로 우리 사회에 충격과 파문을 던진 시인 박노해가 올해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태풍 '쓰나미'로 폐허가 된 인도네시아 아체주를 방문했다. 그리고 그 처참한 현장을 글과 사진에 담았다. 그 기록의 편린들이 한데 모여 묶여진 것이 바로 <아체는 너무 오래 울고 있다>이다.

박씨가 찾은 아체주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의 머리쪽에 위치해 있으며, 석유와 천연가스, 금과 석탄이 풍부하게 매장돼 있는 인구 400만의 도시이다. 하지만 '아체'는 '쓰나미'가 휩쓸고 가기전까지 일반 사람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하나의 지명이었다. 가난과 종교적인 분쟁만이 난무한 곳이란 오명외에는 별달리 내세울 것이 없었다.

그곳을 최근 노동운동가에서 평화활동가로 변신해 홀로 세계의 빈곤 및 분쟁 지역을 돌며 조용히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박노해 시인이 폐허가 된 아체주 현장에서 우리를 향해 입을 열었다. 쓰나미 이후 아체인들의 삶과 오래된 고통을 향해서도 시선을 돌려달라고 말이다.

그렇다면 아체는 우리에게 무엇이며, 우리는 아체를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일까? 지은이는 이 책에서 말한다. "가난과 분쟁과 억압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는 결코 우리가 넘어서 온 과거의 모습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 미래의 거울이다. 그들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비치는 가에 따라 우리 삶의 미래는 규정될 것이다."라고.

아체에 도착한 지은이의 눈에 처음 들어온 것은 끝없이 펼쳐진 '폐허의 지평선'이었다. 사방을 둘러봐도 시선의 끝까지 거대한 폐허의 지평선만이 있을 뿐이다. '쓰나미'의 위력이 원자폭탄의 약 250배 규모였다고 하니 40만명의 생명을 빼앗고 폐허만 남은게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라며 지은이는 망연자실한다.

지은이가 만난 아체주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이 살아남은 행운에 감사해하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난민 천막촌 사람들은 오히려 가족과 이웃을 구해내지 못하고 자신만 살아남은 것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지은이는 아체에서 특이한 현상도 발견했다. 난민촌에서 만난 아이들은 아무도 아이답게 소리내어 울지 않더라는 것이다. 엄청난 비극이 그들을 더 이상 어린 아이로만 남아 있을 수 없게 했다는게 지은이의 설명이다. 마치 가느다란 작은 나무에 너무 큰 열매가 달린 듯 아이들은 하루 아침에 철이 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그렇게 울음을 삼켜버린 아이들은 서로를 안으며 챙겨주고, 스스로 물을 긷고, 밥을 차리고, 앙증맞은 손으로 빨래를 하고, 고철을 모아 팔기도 하는 등 일에 파묻혀 일상을 살고 있었다.

또 어른들에게는 무너진 자기집의 잔해를 깨트려 건진 철근 몇가닥이 당장 유일한 재기의 밑천이었다. 고철 1㎏를 팔면 700루피아, 우리 돈으로 70원쯤 된다는 것이다. 성인들이 하루 종일 일하면 30㎏ 정도의 고철을 모을 수 있으니, 2천원 정도를 버는 셈이다. 하지만 이 돈은 고작 하루 밥값과 물값 정도 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하니 기가 막히는 '절망의 노동'이라고 지은이는 마음 아파한다. 더욱 지은이의 마음을 후벼 파는 사실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세계 각지에서 몰려오는 구호금이나 착복하며 뒷짐만 짓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도 이런 아비지옥과 같은 아체에 희망이 조금씩 솟구치고 있었다. 다행스런 일이다. 아이들이 그 희망의 중심이었다. 아이들은 그 흔한 축구공하나 없지만 폐허더미에서 부서진 벽돌조각을 가지고 재미나게 축구를 하며 미소지었다. 지은이가 방문한 고아원에서는 매일 희망의 기도가 이루어졌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슬픔의 힘'과 '가난의 힘'입니다. 그 힘은 우리를 강한 하나로 이어줍니다. 우리 서로의 고통을 어루만져 줄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따뜻이 껴안을 수 있게 되었을 때 돌아가신 엄마와 아빠도 몰래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꼭 안아 주실 거예요." 고아들의 강한 다짐과 발원의 기도가 끝나자 고아원은 이내 소리없는 울음바다를 이루고 말았다. 물론 지은이도 함께.

이처럼 지은이는 이 책에서 사진과 산문, 시를 통해 아체의 고통스러운 현실로 우리를 생생하게 이끌고 있다. 그는 때로는 고통의 목격자로, 때로는 고뇌를 함께 하며 희망을 모색하는 아체인의 친구로, 때로는 구호성금의 전달자로 그들의 삶 깊숙한 곳에서 움직였다.

이 책이 더욱더 현장 냄새가 풀풀 전달되는 것은 지은이가 직접 찍은 100여 장의 강렬한 흑백사진들이다. 지은이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시선으로 아체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내면, 절망과 희망이 뒤섞인 그들의 표정을 생생하게 담아내 책을 덮고 나면 한편의 다큐멘터리를 감상한 느낌이 든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전문가 서평



그래서 나는 김옥균을 쏘았다
조재곤 지음
푸른역사 펴냄 | 1만4500원

개화파의 주역으로 갑신정변을 일으켰다가 일본에 망명한 김옥균은 1894년 상하이에서 자객 홍종우에게 무참히 살해당한다.

이 책은 김옥균을 암살한 홍종우는 어떤 인물이며 김옥균 암살사건이 당시 조선 · 일본 · 중국의 역학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용됐고 3국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깊게 파헤치고 있다. 그리고 김옥균과 홍종우의 사상이 왜 조화되지 못하고 충돌로 치달았는지 등과 같은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흥미로운 주제도 설명된다.

지은이는 학계의 기존 설과는 달리 홍종우가 조선을 '수구'하기 위해 김옥균을 제거했다고 보지 않고 있다. 홍종우 역시 개화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방법이었다.

조선이 주체가 되어 개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던 홍종우가 김옥균이 일본에 전적으로 의지해 정변을 일으켰다고 생각하고 그를 쏘았다는 것이 지은이의 입장이다.

이어 지은이는 김옥균 암살사건이 동양의 역사를 뒤흔들었다고 주장한다. 중국과 조선 침략을 호시탐탐 노리던 일본에게 이 사건은 좋은 구실이 되었다는 것이다. 김옥균은 현실적 수단으로 일본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했고 홍종우는 제국주의 질서가 판치는 시대에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를 가졌다는 것이 지은이의 결론이다.

격변의 개화기, 두 지식인의 일생

홍종우는 사실 김옥균에 비해서 역사속에서 덜 알려진 인물이었다. 명문가의 자제로 엘리트 코스를 밟은 김옥균과는 달리 홍종우는 벽촌의 몰락한 양반가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그가 어떤 과정을 거쳐 개화사상에 눈뜨게 됐는지는 알 수 없으나 1890년 프랑스로 건너가 우리나라 최초의 프랑스 유학생이 된다.

그로부터 3년동안 체류하면서 그는 볼테르의 사상을 흡수하며 근대화의 열망을 키워갔다. 그러나 그가 생각하는 근대화는 김옥균과는 방법을 달리 했다.

둘의 차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있다. 김옥균이 일본 망명 시절, 단발을 하고 이와다 슈사쿠로 개명한데 반해 홍종우는 파리 체류 시절 늘 한복을 입고 다녔다.

김옥균은 일본을 조선의 나아갈 모델로 보고 일본의 도움을 받아서 근대화를 추진하려 했었으나, 홍종우는 서구 문명을 익히면서도 그 속에 숨겨진 제국주의의 야심을 경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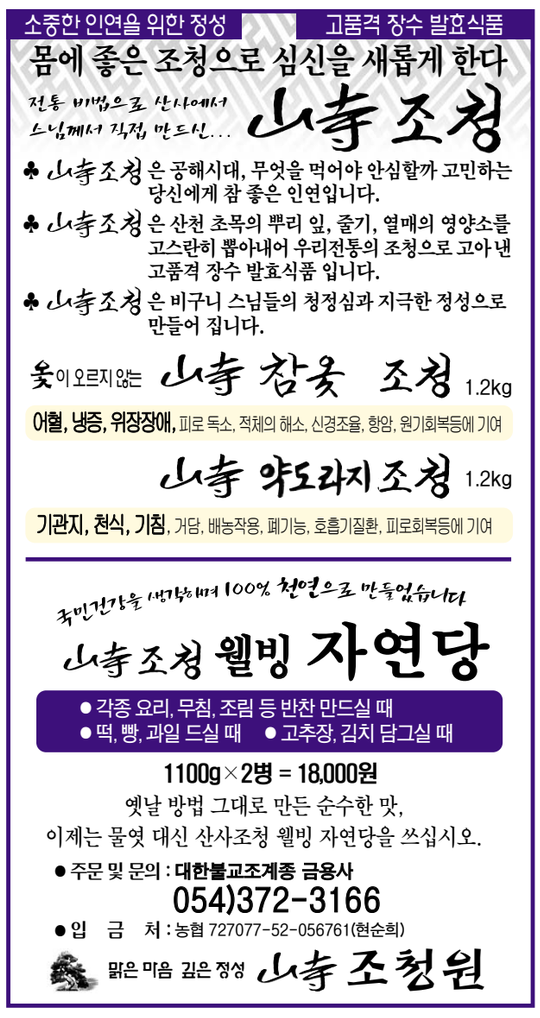
둘 사이의 이같은 차이가 과연 암살이라는 극단적 결과를 가져올만큼 심각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솔직히 책의 설명은 충분하지 않다. 다만 주체적 근대화를 위해서 왕권 강화가 우선이라고 생각했던 홍종우의 눈에 일본을 끌어들여 왕권을 뒤집으려고 노리는 김옥균의 존재가 위협적이었을 거라는 점은 분명하다.

외세의존적 개화파에 대한 홍종우의 시각이 어떠했는지는 후에 보부상 조직을 이용해 개화파의 근거지였던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를 폭력적으로 해산시키는 과정에서도 확인된다.

■**박혜욱**(한림대 사학과 강사)

불서구입은 www.yosiamun.com









한국불교 계법 전승 첫 정립

지관 스님, 삼국시대부터 수계기록 400여 스님 행장 조사



한국불교계율전통
지관 스님 지음
가산불교문화연구원
2만5천원

1700년에 걸쳐 면면히 이어진 한국불교 교단의 계율전통을 사료에 근거해 집대성한 저술이 나와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근현대의 대표적 율사인 자운 스님(1911~1992)의 계맥을 이은 지관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계법전승역사 정립의 원력을 담아 <한국불교계율전통>을 최근 펴냈다.

이 책에서 지관 스님은 불교가 성했던 삼국시대와 고려시대는 물론, 불교가 탄압받던 조선시대조차도 계법전통이 상속돼왔음을 확인하고, 한국불교 특유의 계율전통을 밝혀냈다.

600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이 책은 초기 계맥과 남산율종의 계맥을 다룬 부분과 수계전통의 역사를 조명한 부분, 그리고 한국불교의 계법전승을 고찰한 부분 등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백미는 단연 한국불교의 계법전승을 밝힌 대목이다.

지관 스님은 범어사와 만하(萬下) · 대은파(大隱派) · 백파파(白坡派) 등 한국계율의 대종을 이루는 주요 전승을 분석하는 한편, 200여 쪽에 걸쳐 수계기록이 남아있는 400여 스님의 행장을 조사해 계법을 주고받은 전승관계를 파악하고 계법수수전승도와 수수계법계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이에 따르면 2 · 3대에 걸친 관계가 대부분을 이루는 가운데, 길게는 5 · 6대에 걸친 관계까지 확인됐다. 특이한 점은 불법이 성했던 고려시대보다도 핍박받던 조선시대에 계법 전승이 많이 발견된다는 것. 남아있는 기록에 의존했다는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고려시대 3대에 걸친 계법전승관계가 1건 발견된데 반해, 조선시대에는 3대 10건을 비롯해 최장 6대의 전승관계가 파악돼 승가의 계법 수호의지가 어려운 시기에 더욱 드높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해인사 천화계단에서 자운율사가 사용한 호계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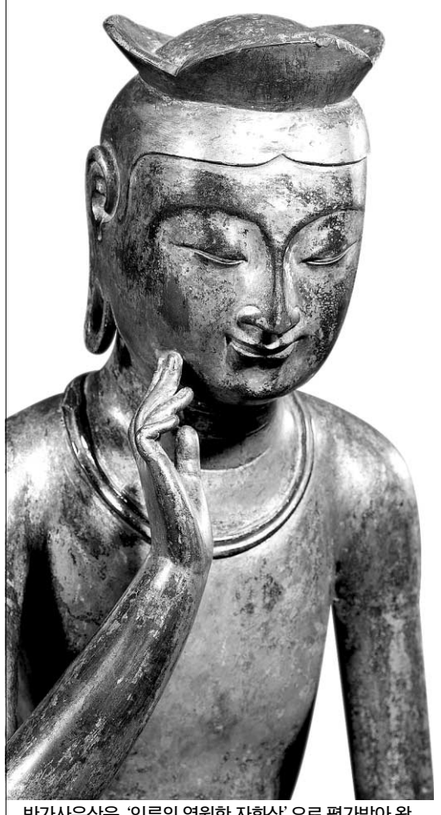
책에 삽입된 통도사 금강계단, 송광사 금강계단, 해인사 감로계단 · 천화계단 등 전국각지계단에서 사용된 호계첩문 사진 16점도 과거 승단이 계법수호를 위해 심혈을 기울였음을 실감케 한다.

이 같은 계법의 전승은 계법의 종주국으로 인식되는 스리랑카 등 남방불교국가와 견주어도 결코 손색이 없어 보인다. 스리랑카의 경우 인종차별전쟁으로 교단이 황폐화돼 150여 년 전 미얀마로부터 계법을 이어왔고, 미얀마 또한 수계의식을 제대로 갖춰왔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계법이 단절되는 폐불(閉佛)의 역사가 없었던 한국불교교단의 계법 전승이 더욱 우월하다는 것이 지관 스님의 주장이다.

지관 스님은 한국의 계법전승을 "구족계법을 근간으로 해 대승계법을 포섭하여 회통한 다중적이고 자주적인 계승"이라고 규정하며 "여러겹으로 이어진 한국불교계법의 자주적 전승을 기틀삼아 사부대중의 특별한 발심과 정진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아! 반가사유상



반가사유상은 '인류의 영원한 자화상'으로 평가받아 왔다. 사진은 삼국시대(7세기 초) 작품으로 추정되는 국보 제83호 금동연화관 반가사유상.

A4용지 두배이상 판형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부분과 전체 여섯 각도서 찍은 50여 컷 수록



반가사유상 강우방 지음 | 민음사 | 4만5천원

'한국 불상 최고의 걸작' '국립중앙박물관의 얼굴'. 이는 바로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에 바쳐지는 헌사다.

국보 제78호 금동일월식삼산관사유상(金銅日月飾三山冠半跏思惟像)과 국보 제83호 금동연화관반가사유상(金銅蓮華冠半跏思惟像),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의 단독전시실에 모셔진 두 반가사유상은 삼국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불상으로 입가에 머금은 그윽한 미소, 살아 숨 쉬는 듯한 얼굴 표정, 상체와 하체의 완벽한 조화, 손과 발의 섬세하고도 미묘한 움직임 등으로 조형미와 예술미에 있어 가장 탁월한 작품으로 평가받아 왔다.

최근 민음사가 펴낸 <반가사유상>은 가로 440㎝, 세로 297㎝의 과감한 판형에 금동반가사유상의 세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샅샅이 포착한 사진 50여 컷을 담았다. 특히 전신, 옆과 뒷모습, 손, 발 등 각 부분을 여섯 각도로 나누어 찍어 반가사유상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책은 지난 10월 17일부터 23일에 열린 2005 프랑크푸르트 국제 도서전을 통해 국제무대에 소개되기도 했다.

일반적인 불상이 정면을 바라보는 것과 달리 반가사유상은 오른쪽 다리를 왼쪽 무릎에 올리고 오른손으로는 앞으로 숙인 얼굴의 턱을 받치고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강우방 교수(이화여대)는 이를 "항상 고뇌하면서 탐구하고 희열을 느끼는 인류의, 우리의, 나의 영원한 자화상"이라고 말한다.

책 뒤편에 반가사유상 해설문 '인간의 영원한 자화상-사유상의 모습'을 싣기도 한 강 교수는 "반가사유상은 구제나 구원의 대상이 아닌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존귀한 존재로서의 인간 모습을 구현했다"고 평한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불출협, '올해의 불서 10' 선정

'잊혀진 가람탐험' '간화선' 등 꼽혀

불교출판문화협회(회장 원택, 이하 불출협)가 한 해 동안 출간된 불교서적 중 양서를 가려 뽑는 '올해의 불서 10'에 <간화선>(조계종출판사) <잊혀진 가람탐험>(여시아문) 등 10권의 불서가 선정됐다.

'올해의 불서 10'은 불출협이 좋은 불서를 선택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저자 · 출판사에 활력을 줌으로써 불교출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실시한 행사다.

불출협은 2004년 9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출간된 도서 중 29개 출판사가 추천한 46종과 불출협 산하 불서읽기소위원회가 추천한 도서를 대상으로 1차 후보도서 50종을 선정했다. 이 1차 후보도서 50종은 기자 · 독자 · 출판사 편집장 · 불교학자 · 법사 등 130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단의 추천을 거쳐 2차 후보도서 20종으로 축약됐다.

최종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이철교(前 동국대 출판부장) 김호성(동국대 교수) 이미령(동국대 역경위원)씨는 이들 20종의 도서에 대해 창작성(30) 기획력 및 편집(25) 불교 대중화에 대한 공헌도(25) 문장 서술 및 구성력(25)을 기준으로 최종 10권을 가렸다.

'올해의 불서 10' 선정과정을 통해 짚어 본 올 한해 출판계의 가장 큰 흐름은 '현대인의 언어로 불교를 말하기'로 집약된다. 불출협 윤창화 부회장(민족사 대표)은 "불교의 전문적인 지식을 쉽게 전달하려는 책들이 많았으며, 불교문화 소개서와 수행 관련서 등도 많이 선보였다"고 말한다.

그러나 윤 부회장은 "해마다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학술서적과 어린이 · 청소년 불서의 출간 저조 현상은 올해도 여전해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때문에 이번 '올해의 불서 10'에는 학술서(<선문염송설화>)와 어린이 · 청소년 불서(<마음이 쑥쑥 크는 불교이야기 129>)를 의무 배정해 이 같은 불균형을 해소하려 했다는 것이 윤 부회장의 설명이다.

그러나 선정위원이 너무 동국대 인사로 짜여진 점과, 저술 · 번역서 구분 부재 등은 보강해야 할 점으로 지적됐다.

불출협은 선정된 도서에 대해 '올해의 불서 10' 선정증 및 스티커를 제작 · 배포하고 서점 부착용 포스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여수령 기자

올해의 불서 10 (가나다순)

<간화선>	(불학연구소 지음, 조계종출판사)
<마음이 쑥쑥 크는 불교이야기129>	(양태석 글, 이재순 그림, 바다교실)
<반야심경과 마음공부>	(법상 스님 지음, 무한)
<불교미술기행>	(조병활 지음, 이가서)
<불교풍속고금기>	(박부영 지음, 은행나무)
<선문염송설화>	(월운 스님 역주, 동국역경원)
<영화로 떠나는 불교여행>	(월호 스님 지음, 이치)
<유쾌하게 읽는 불교>	(고명석 지음, 동숭동)
<잊혀진 가람탐험>	(장지현 지음, 여시아문)
<현대심리학으로 풀어본 대승기신론>	(서광 스님 지음, 불광출판부)

불서구입은 www.yosiamun.com

안전하고 편리한 구독신청
현대불교 전화 한통화로 해결하십시오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 · 자동이체 신청 ●
대표 (02)2004-8211~2



반야심경찬
원측 지음
박인성 옮김
주민 | 1만5천원

'반야심경' 이해의 길잡이

"일반 불자들이 <반야심경>을 읽겠다는 것은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을 읽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야심경>에는 <반야경>을 비롯한 모든 불교의 요체가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원측 스님(613~696)이 쓴 <반야심경>에 대한 주석서 <반야심경찬>을 우리말로 옮긴 박인성 교수(동국대 불교학과)의 말이다. 박 교수는 의미를 명료하게 밝히지 않은 불요의(不了義) 경전인 <반야심경>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측 스님의 <반야심경찬>을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반야심경>을 공부하려면 먼저 5온(蘊) 12처(處) 18계(界) 등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5온이 공하다'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온'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불자들은 공(空)에 먼저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동국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반야심경찬>을 강의하기도 한 박 교수는 "온과 처 등의 개념을 밝혀 놓은 <반야심경찬>을 통해 학생들이 <반야심경>을 더 깊게 이해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말한다.

또한 박 교수는 <속장경>을 저본으로 삼아 필사 과정이나 인용문을 적을 때 나타난 오류, 문맥상의 오류 등 26곳을 교정했다. 그리고 어려운 불교 용어를 현대의 언어로 풀어씀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일례로 표문(表門)을 '지시해서 표현하는 문'으로, 가지(假智)를 '추리'로 번역한 것을 비롯해 '전(詮)'은 '표현하다'로, '즉(卽)'은 '합일하다'로 해석하고 있다.

"중국 불교전통에 기반을 둔 우리 불교계에서는 인도불교사상의 전통이 강한 <반야심경찬>은 그동안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박 교수는 "최초의 <반야심경> 해설서인 <반야심경찬>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편 박 교수는 서울 삼성동 봉은사(주지 원혜)에서 11월 30일부터 2006년 2월 22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반야심경찬> 무료강좌를 진행한다.

종무원 · 행자 · 공양주 · 모집

1. 종무원
컴퓨터, 운전, 행정사무를 두루 볼 수 있는자 (남 · 여 불문)
2. 행 자
스님이 되고자 하는, 건강하고 불심 깊은 사람
3. 공양주
위 각 1~2명씩 모집하오니 희망자는 주민등록증, 이력서 지참 내사하기 바람

불기 2549년 11월 29일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95
대한불교 조계종 현 지 사

알 림
연 5개월째 연속 베스트셀러
(위를 유지하고 있는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책자 판매는
1. 현지사 033)243-1787,1795
2. 부산 현지사(분원) 051)554-5150

염불삼매 속에서 나는 이와 같이 보고 들었다.
나 불세존은 가섭과 아난이 남섬부주 대한민국 땅에 왔음을 선포하노라..... (서문중에서)
중생들의 네개의 영체에 대한 법설, 빛의 존재, 붓다는 무아속 절대 세계에 여여히 계신다는 사자후, 그리고 붓다는 어떤 어른 인가를 깊이 언급하고,바가바드기타를 능가한 완벽한 생사관의 정립. 윤회를 벗어난 아라한 보살 붓다로의 위계설정, 지옥이 있고 극락세계도 있다는 등 불교사의 미증유한 법문!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자재만현 지음

5개월여만에 5판 돌입, 계속 베스트셀러 1위 유지
(도서총판 운주사 11月 집계, 화제의 성서, 절찬리 판매중)
윤회안과, 윤회밖 해탈의 세계를 보다 깊이 갈파한 경전과 같은 보고서.
이 시대를 사는 불교인을 포함한 모든 이들이 반드시 읽어 보아야 할 붓다의 메시지
– 장려한 불교체계의 구축, 보다 선명한 생사관, 불교문예 부흥.... 가히 파천황 운운 <선문화 6월호,11월호>에서는 "21세기 붓다의 메시지"에 나타난 만현 스님의 법(法)세계를 거듭 조명하고 있다.... (선문화 6월호, 11월호)
– 2005년 9월 4일 부터 12개월간 자제만현스님의 매월 첫째 일요일 불교TV 방송설법을 시청하시라!

현지궁 현지사 펴냄 | 자재 만현 지음 | 가격 15,000원 | 300쪽 | 구입문의 033)243-1787,1795

소리 · 춤 · 장엄 등 전문화 마땅

영산재 기능보유자 분야 세분화 여론



영산재의 여덟번째 단계인 '식당작법' 에만 최소 20명의 전문가가 필요하다. 사진은 모든 영혼에게 부처님의 법식을 베푸는 '식당작법' 재현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영산재 기능보유자의 분야가 세분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불교음악계 내에서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11월 4일 구해스님이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기능보유자로 지정된 것과 관련, 작법 · 장엄 등 나머지 분야에 대한 기능보유자 지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현행 1인 보유자 체제로는 제대로 전승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영산재의 올바른 전승을 위해 범패 · 작법 · 장엄의 분야별 보유자 지정은 기본이고 여기에 다시 각 분야별로 세분화해 전문인력 양성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불교음악계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더구나 이 같은 요구와 지적에 대해 문화재청이 '비효율적이고 무리' 라는 입장을 보여 행정 편의적인 접근이라는 반응이다.

(불교음악계)

각 곡 완창만 1시간이상 걸려 분야별 나눠 전문인력 양성 판소리 다섯 마당이 좋은 예

(문화재청)

"영산재는 단체 종목이므로 보존회 소속 모두가 문화재" 내용 비슷해 나눌 필요없어

불교무용연구소장 법현 스님(영산재 이수자)은 영산재를 제대로 전승하기 위해서는 작법 · 범패 · 장엄의 세 분야에서 한 단계 더 세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작법의 경우는 바라 · 나비 · 타주 · 법고춤으로, 범패의 경우도 안채비 · 바깥채비 · 홋소리 · 짓소리로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법현 스님은 "더 세분화시켜 본격적으로 연구 · 전승하지 않으면 영산재 원형 보존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까지 제기했다.

스님은 "짓소리만 해도 15곡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곡마다 완창하는데 1시간씩 걸린다"며 "영산재를 체계적으로 전승보존하기 위해 음악은 음악대로 무용은 무용대로 세분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영산재 전수교육조교 일운 스님(옥천범음대학 학장) 역시 같은 의견이다. 스님은 "인천시지정문화재를 보면 나비춤과 바라춤이 나눠서 지정돼 있다"며 "범패든 작법이든 각각의 소리와 춤이 따로 보유자가 지정이 돼서 보다 전문적으로 원형보존을 위해 연구하고 전승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판소리 다섯 마당이 각각 보유자를 내고 있는 것처럼 영산재도 다섯 분야로 나눠 보유자를 지정해 전승에 힘써야 한다"고 정오 스님(영산재 이수자, 천축사 주지)도 한 목소리를 낸다.

영산재보존회의 세분화 요구에 대해 문화재청은 '어렵다' 는 입장이다. 단체 종목으로 지정된 영산재의 경우 영산재보존회 소속 스님들이 모두 문화재인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시각이다.

류춘규 연구원(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은 "영산재를 판소리와 많이 비교하는데 판소리는 심청가 놀부가 등이 각각 지정됐다가 합쳐진 것으로 개인 종목이기에 무형문화재 중에서도 가장 보유자와 조교가 많은 분야"라며 "단체 종목인 영산재는 의식을 시연하는 모든 이들이 단체로 지정하여 보호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단체 종목은 개인 보유자를 굳이 지정하지 않아도 문화재보호법상 저촉되지 않는다는 해석도 덧붙였다. 단체의 사기 문제 등을 고려해 지금처럼 의식을 이끌 보유자만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문화재위원으로 활동했던 홍윤식 교수(동국대 일본학연구소장)도 영산재 기능 세분화에 따른 다수의 보유자 지정 요구는 무리라는데 뜻을 같이했다.

홍 교수는 "시연되는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영산재로 대표성을 준 것으로 충분하다"며 "영산재를 세분화해 보유자를 더 내거나 상주권공 시왕각배 영산재 수륙재 예수재 등 다섯 마당으로 굳이 나눌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지연 기자



영산재의 네가지 작법 중 하나인 나비춤. 현대불교 자료사진

■ 영산재 어떻게 이뤄져 있나?

성악인 범패와 무용인 작법무등 13단계로 구성

영산회상을 재현해 영혼 천도와 중생 제도를 실현하려는 불교 의식 영산재는 13단계로 진행된다. 전체를 다 시연할 경우 꼬박 하루가 걸린다.

영산재의 13단계는 ▲시련(施輦)-불보살 및 천도할 영혼 모시기 ▲대령(對靈)-영혼에게 무명과 업보를 깨우치도록 불법 일러주기 ▲관욕(灌浴)-삼독(三毒)으로 더럽혀진 업장을 녹이는 목욕 ▲조전점안(造錢點眼)-영혼이 저승서 지닐 금은전과 경함(經函) 점안 · 이운의식 ▲신중작법(神衆作法)-도량을 옹호하는 신중 모시기 ▲괘불이운(掛佛移運)-야외 괘불단 설치 ▲상단권공(上壇勸供)-영산회상 부처님을 모시고 공양 올리기 ▲식당작법(食堂作法)-모든 영혼에게 부처님의 법식 베풀기 ▲운수상단권공(雲水上壇勸供)-상단 불보살전에 공양 올리기 ▲중단권공(中壇勸供)-명부의 지장보살 도명존자 무독귀왕 십대명왕 등에게 공양 올리기 ▲신중퇴공(神衆退供)-신중전에 공양 올리기 ▲관음시식(觀音施食)-지옥고 중생을 불법승 삼보에 귀의시키기 ▲봉송(奉送) 및 소대의식(燒臺儀式)-상단의 불보살, 중단의 신중, 하단의 고혼 순으로 모시고 소대로 나가 봉송하기 등으로 구성된다.

이 의식들은 불교성악인 범패와 불교의식무용인 작법무로 진행된다. 범패는 안채비 바깥채비 홋소리 짓소리로, 작법은 바라춤(7가지) 나비춤(18가지) 타주춤 법고춤으로 나뉜다.

■ 영산재 무형문화재 지정 관련 일지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범패 지정. 당시 범패의 운공 • 송암 • 벽응 스님이 최초로 무형문화재가 됐다.
1982년 운공 스님 입적
1987년 영산재 단체 지정. 영산재보존회가 영산재 관리 단체로 지정됐다. 이와 함께 범패 장엄 작법무로 분야를 세분화해 장엄 부문에 지광 스님, 작법 부문에 일응 스님 등이 각각 보유자로 지정됐다.
1996년 지광 스님 입적
2000년 송암 • 벽응 스님 입적
2003년 일응 스님 입적
2005년 범패 부문 구해 스님 보유자 지정
2005년 현재 전수교육조교는 일운 • 기봉 • 송강 • 경암 • 동주 • 동희 스님.

■ 무형문화재 심사 과정 및 절차

의견수렴 · 문헌 · 현지 조사 거쳐 전문가가 기량평가 문화재위원회 통과 30일간 예고 후 최종 고시

문화재청의 무형문화재과가 무형문화재에 관련된 모든 것을 관리한다. 무형문화재를 선정하기 위해서 거치는 절차는 모두 여섯 가지. 한 사람의 보유자가 탄생하기까지 최소 6개월에서 5년 정도가 소요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정 신청이 들어오면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문헌 · 현지조사 등 1차 조사를 한다. 조사 결과는 문화재위원회 심의에 올려 지정 조사 실시여부를 결정한다. 조사전문가 기량평가 대상자 선정도 이때 이루어진다. 지정조사는 문화재전문위원 · 문화재위원 ·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맡는다. 조사의 객관성 유지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 관리감독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조사대상자는 기 · 예능의 실연내용과 전승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연구해 평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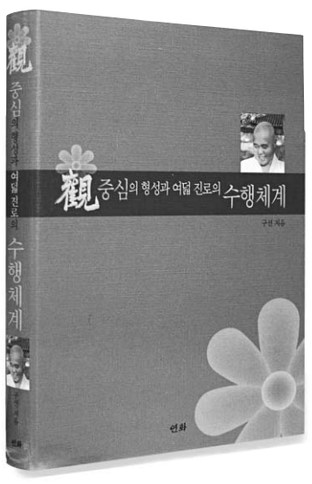
지정조사가 완료되면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재조사 여부를 결정한다. 문화재위원회의 검토에서 통과하면 30일간의 예고 과정을 거친다. 이 기간동안 이의제기가 발생하면 문화재위원회의 재심의가 이루어진다. 이의제기가 없으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고시된다.

한 가지 분야에서 무형문화재가 되기까지 개인이 걸어야 할 길은 어떨까.

우선 각 분야에서 교육이나 일대일 전승을 통해 기 · 예능을 배운다. 그 이후 전수자로 5년, 이수자로 3년 등의 과정을 거쳐야 전수교육조교 후보가 될 수 있다. 전수교육조교로 지정되면, 이들이 이후 보유자 지정시 후보가 될 수 있다.

대승불교 최고의 수행체계

觀 중심의 형성과 여덟 진로의 수행체계



한 경계에 집착하면 그 최가 수미산 같고,
한 경계를 저버리면 아비지옥에 떨어진다.
이러할 때 그 한 경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 순간을 소중히 생각하고 한 경계를 절실하게
대할 줄 아는 사람만이 깨어 있을 수 있으며
그로써 나와 경계가 하나가 되는 경지를 맛볼 수 있다.
수행자라면 한 경계를 통해 여덟 진로의 수행으로 나아갈 줄 알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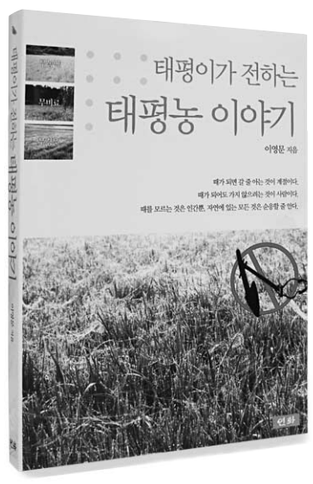
여덟 가지 진로의 수행은 서로 맞물려 있어서 어느 하나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수레바퀴에 비유된다.
바퀴의 살이 하나만 빠져도 바퀴 전체가 찌그러지듯이, 여덟 가지 진로의 수행은 어느 한 가지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구선 지음 / 312쪽 / 값 18,000원

이 책에서 제시하는 여덟 진로의 수행체계는 필자가 직접 수행해 온 경험이며, 또한 팔 년 동안 후인들을 지도하면서 얻어진 결과들이다. 때문에 누구라도 닦아서 체득할 수 있는 법들이다. 수행자가 비록 자성의 공(空)함을 인식했더라도 이처럼 여덟 가지 진로로 자기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를 제도하는 것과 주변 경계와 조화를 도모하는 것이 여덟 가지 일로서 원만해지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깨달음만을 추구하고 그 이외의 삶들을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해서 따가운 질책을 가한다. 특히 수행한다는 명목을 내세워서 또 다른 존재와 원만하게 어우러지지 못하고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통렬하게 비판한다. 한순간을 소중히 생각하고 한 경계를 절실하게 대할 줄 아는 사람만이 깨어 있을 수 있으며 경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경지를 맛볼 수 있다고 말한다. 목전에 처해진 한 경계를 그냥 도외시 하지말고 그를 통해 여덟 진로로 자기를 발전시켜 갈 것을 주장한다.

태평이가 전하는 태평농 이야기



'때가 되어 갈 줄 아는 것이 계절이고
때가 되어도 가지 않으려는 것이 사람이다.
때를 모르는 것은 인간 뿐,
자연에 있는 모든 것은 순응할 줄 안다.'

이 책은 농사를 통해 자연과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경상도 외딴 곳 별학섬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이 시대 최고의 태평꾼 이영문이 전하는 진정한 삶의 가치를 만나본다.

태평농법!!
이것은 단순히 농사짓는 방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과 자연이 서로 교감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영문 지음 / 368쪽 / 값 10,000원

그는 이미 태평농법을 삶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흙이 살아야 사람이 산다' 라고 주장한다.
적게 먹는 즐거움도 이야기하고 있다.
자연과 삶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사람과 자연, 아니 자연 속에 있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알고 있는 것이다.
그가 어찌 농사짓는 법으로 만족할 사람인가?
그에게 모든 것은 자연에서 얻을 수 있기에 외부로부터 단절당한 섬이라는 문화권에서 새로운 문명을 열어 가려고 하는 것이다.
- 최진룡(국립경상대학교 농대 교수)

도서출판 연화 TEL 02)302-8145, 054)682-7770 / FAX 054)682-8155 http://www.kwan.or.kr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42>



그리운 아버지의 술 냄새

제 아버지는 퍽도 술을 즐겼습니다.

"딱 한 잔만…"

이 말을 노상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는 사업하느라 호기 넘치게 술을 마셨고, 늘그막의 아버지는 삶이 버거워 술에 기대었습니다.

술을 마시면 언제나 집안이 시끄러웠습니다. 완벽주의자이고 내성적인 성격의 아버지는 어쩌면 술의 힘을 빌려서라도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를 토로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젊어서부터 평생 함께 고생하며 살아온 아내 말고는 그 모진 설움을 받아줄 사람이 없었는지 술에 취한 아버지는 어머니를 참 힘들게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절대로 자식에게는 함부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 있어도 몇째 아이가 아직 귀가하지 않았다는 소리를 들으면 벌떡 일어나서 정류장을 향했을 정도였습니다.

종종 밤늦어 정류장에 내렸을 때 눈은 벌겋게 충혈되었고 입에서는 소주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이제 오냐?" 라며 반갑게 다가오시던 그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내 무거운 책가방을 받아서 어깨에 메고는 동요를 흥얼거리며 비틀비틀 앞장서서 집으로 향하였지요.

머리가 커진 자식이 속을 썩일 때는 어머니에게 책임을 추궁하였지 자식에게 직접 심한 꾸중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삶이 점점 버거워지자 아버지의 술은 심해갔고 그 모습을 보다못해 자식들이 거세게 대들면 어머니는 자식들을 말리느라 더욱 노심초사하였습니다.

"그럼 못쓴다. 네 아버지다."

지금 제 기억 속의 아버지는 참 나약하고 지친 한 남자의 이미지로 남아 있습니다. 거대한 벽이나 든든한 기둥이기보다 아내와 자식에 대해 알뜰한 애정을 품고 있으면서도 맘껏 물질로 충족시켜주지 못해 전전긍긍하던 한 '남자'였습니다. 술이라는 지독하게 미운 방해꾼이 있었지만 술에 취한 아버지는 언제나 어둔 골목길을 비틀비틀 걸어 올라오며 가족을 향한 사랑의 노래를 흥얼거린 가장이었습니다.

위엄있는 가장으로서가 아니라 저에게 인간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품게 해준 분이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 술에 취해 가족에게 폭력을 휘두른 가장을 숨지게한 사건이 신문에 실렸을 때 저는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만 한 가정의 기둥인 아버지가 가장 가까운 가족의 손에 의해 숨을 거두는 일은 비극 중에서도 가장 큰 비극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을 신문에서 접할 때마다 부랴부랴 경전들을 뒤져봅니다만 애석하게도 아버지에 관한 가르침을 찾아내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여성에게 주는 가르침은 드문드문 보입니다만 남성, 그것도 '아버지'에게 주는 가르침은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경전을 읽어가다보니 경전 속에 담긴 부처님의 다양한 모습들이 바로 이 시대 아버지들이 본받을만한 모델이었습니다.

성불하신 뒤에 고향을 찾은 부처님은 여전히 사랑으로 애타하는 야소다라를 따로 만나 그녀의 마음을 달래줍니다. 사리불과 목련 존자가 동석하였지만 야소다라가 맘껏 그리움을 풀도록 자신을 맡겨준 그런 '지아비'였습니다. 가장 완전한 재산을 물려주려고 자식인 라훌라를 출가시킨 뒤 사람들의 정신적인 스승으로 우뚝 서도록 때로는 냉정하게 때로는 덤덤하게 때로는 자비롭게 가르침을 베푸신 '아버지'였습니다.

법화경을 읽어보면 부처님은 '중생의 아버지'로까지 격상됩니다. 법화경 속에서의 아버지는 불이 난 집안에서 노느라 정신 팔려 있는 자식들 때문에 문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입니다. 꾀를 내어 자식들을 모두 끌어낸 뒤에는 너무나 고마워서 약속한 것보다 더 큰 선물을 안겨주며 더할 수 없이 행복해하는 사람입니다.

어려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뒤에는 걷잡을 수 없이 끓어오르는 부정(父情)을 죽는 순간까지 억누르고 숨겨가면서 자식을 번듯한 자기자리로 되돌려놓는 현명한 사람입니다.

나아가 그릇된 삶을 사는 자식들에게 목이 쉬도록 바른 길을 가르쳐 주지만 전혀 받아들이지 않자 자신이 죽었다고까지 하면서 자식들을 일깨우는 그런 아버지가 바로 법화경에서 그리는 아버지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어지러운 이유 중의 하나는 아버지가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권위도 위엄도 중요하지만 아내와 자식들에게 소박한 사랑과 인간미로 다가가는 것이 가장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지름길이 아닐까 합니다. 삶이 버거워 술에 취해 주정을 부려도 '우리 아버지'라며 따뜻하게 안아주고 받아주는 내 편이 있어야 술 마실 기분이 나지 않겠습니까.

■ 이미령(동국역경원 역경위원)

가장의 자리 못찾아 헤매는 이 시대 아버지들이여
소박한 사랑과 인간미로 가족에 다가서 보세요

일상에서 선 실천할때



11월30일 태고총림 선암사 방장으로 추대된 혜초 스님(태고종 종정)은 철저한 계행으로 불자들의 사표가 되고 있다. 종정 주석처인 선암사 무우전 앞마당에서 포행중인 혜초 스님.

지상 백고좌

혜초 스님

(태고총림 선암사 방장)

선지서천위골수(禪旨西天爲骨髓)
교담동토작생황(敎談東土作笙簧)
최사현정귀황도(摧邪顯正歸黃道)
오엽일화계만방(五葉一花啓萬邦)

선(禪)이 가리키는 바는 서천(西天)에서 골수(불법의 진리)를 이루었습니다. 선은 곧 부처님의 마음을 뜻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동쪽 나라의 생황(피리)이 되어 중생에게 진리를 전하는 도구이었습니다.

삿됨을 부수고 바름을 세워 황금색 몸을 가지고 계신 부처님께 돌아가면 다섯 잎사귀 속에서 피어난 연꽃이 만방에 만발할 것입니다.

머무는 바 없이 청정심 내라

인도 남천축국의 세 번째 왕자였던 달마선사가 선을 전하기 위해 동쪽으로 건너왔습니다. 그후 6조 혜능에 이르러 선이 활짝 피었습니다.

선종은 조동종, 임제종, 운문종, 위앙종, 법안종 등 다섯 종파로 나뉘어 발전하였습니다. 참선하는 이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 다섯 종파의 가르침 속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섯가지 잎사귀는 다섯종파를 말하는 것으로 그 안에서 선의 꽃이 피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선문 오종을 나누고, 정맥이니 수승하니 따지지만 본질적인 교의는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따지는 것은 각 종파의 역사와 본령의 무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논증하고, 가풍만 다를 뿐 내용은 같습니다.

선암사 부도전에 가면 '방출조계 일파청(放出曹溪 一派淸) 벽개남악 천봉수(劈開南岳 千峰秀)'라는 글귀를 볼 수 있습니다.

선암사는 도의 국사를 비롯해 태고보우 국사, 그리고 육조혜능(六祖 慧能) 스님의 제자인 남악회양과 법을 계승한 마조도일까지 선의 양대선맥이 둘다 전해진 곳입니다.

그것도 단순하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물줄기를 막아놓았다가 한번에 터버리는 것처럼 힘차게 조계선풍의 명맥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렇듯 선암사가 한국불교의 독특한 선풍을 간직한 사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육조 혜능 스님과의 인연이 무관치 않을 것입니다. 만세루에 육조고

태고종 제 16세 종정 혜초(慧草) 스님이 태고총림 순천 선암사 방장으로 추대된 11월 30일. 깊어가는 겨울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조계산에는 아직도 붉으스레한 감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고, 단풍도 마지막 남은 빛을 내뿜고 있었다. 혜초 스님은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조계산 능선을 바라보며 "영산작법(나비춤, 바라무, 법고무, 타주무 등 여러 가지 의식으로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의 아름다운 모습이로고"라며 감탄해 마지 않았다.

혜초 스님은 이날 방장 취임 법어를 통해 "종도들이 방장책임을 부여함은 현대에 불조명맥을 살려서 영원히 융성하게 하며 그 바탕에서 인류를 구제하라는 뜻으로 알고 책임을 완수하고자 진력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태고총림 방장추대식후 종정 주석처인 선암사 무우전(無憂殿)에서 혜초 스님으로부터 법문을 청해 들었다.

연기와 화상 걱정에서 완전 해방된 새로운 쑥뜸용구 -

소자본으로 내박잡는 틈새업종 대리점 및 쑥뜸기 체험방 모집!

허준선생의 東醫寶鑑 - "약과 침으로 치유되지 않는 병은 반드시 뜸을 떠야한다."

■ 제품의 특징
● 화상과 연기의 위험없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쑥뜸을 할수 있다.
● 복부의 5개 혈자리를 동시에 뜸할 수 있는 획기적 효과가 있다.
● 타이머 장착으로 정확한 효능을 조절하고 연기는 호스를 통해 실외로 완전 배출.
● 온열판 내장으로 쑥의 원적외선 유효 성분이 체내에 유입하는 효과 증대.
● 혈자리를 모르는 초보자나 노약자도 간편하게 쑥뜸을 뜰 수 있다.

오행쑥뜸기

■ 제품의 특징
각종 통증 완화 사용후 45분이면…
● 벨트를 이용하여 무릎, 머리, 어깨, 허리 등에 간편하게 고정 할 수 있어 집중 쑥뜸을 할 수 있다.
● 타이머 장착으로 정확한 효능을 조절하고 연기는 호스를 통해 실외로 완전 배출.

음양쑥뜸기 (무릎관절)

■ 제품의 특징
● 좌훈기 내부에 온열판 장착으로 쑥의 원적외선 유효성분이 체내에 유입되는 효과가 증대 됨.
● 인체와 접촉되는 부위가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어 끓는 물에 살균소독이 가능하여 위생적임.
● 타이머 장착으로 정확한 효능을 조절하고 연기는 호스를 통해 실외로 완전 배출.
● 좌훈기에 등받이가 부착되어 편안한 자세로 뜸을 할 수 있다.

오행좌훈기

의료용구로 허가를 받은 믿을 수 있는 제품
대구 한의대 및 대구 한방병원 교수진에 의해 개발
특허등록
ISO 9001:2000
의료용구 제조품목허가 : 제 03662호
의료용구 제조업허가 : 제 1682호
전기용품 안전인증허가 : JC07019-3001
실용신안등록 : 제 0308642호
실용신안등록 : 제 0318970호
실용신안등록 : 제 0328990호
의장등록번호 : 제 0344295호
의장등록번호 : 제 0344295호의 유사 제 01호
ISO 9001 인증서번호 : 제 017269호

대리점 및 쑥뜸기 체험방 모집
오행쑥뜸기, 음양 쑥뜸기, 오행좌훈기 등을 찜질방 및 사우나, 피부미용실, 한의원 등에 독점 공급하실 분
※ 무경험자도 가능 (완벽한 본사의 교육)

문의전화 02)521-4453

www.moxa4u.com 오행쑥뜸·좌훈기/음양쑥뜸기 제품구입 문의 02)521-6353~4 DMI산업 대구한의대학교 한방바이오 창업보육센터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병을
약사여래부처님의 원력으로



자광스님

장애를 가진 스님이기에 몸 아픈 이의 고통이 그대로 전해져 옵니다.

고경사 자광스님은 오불전 약사여래부처님을 모시고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어려운 난치병을 부처님의 원력과 스님의 지극정성 기도로 치료합니다.

불치병, 난치병, 각종 신병 - 친견 상담 환영

스님 자신은 장애자이지만 정상인으로 오히려 장애자를 돌보는 듯했다. 뒤늦게나마 확인되어 알려진 청산자광스님의 부처님의 지극한 불심은 불치병에 걸린 모 종합병원 의사의 어머니가 후

대구경북신문 2004년 12월 21일자 5면
화제의 스님 탐방기사 중에서

두암말기로 현대의학으로 고칠수 없어 아들과 함께 고경사에 와서 먹은거라고는 겨우 스님이 준 사탕 2개를 먹고 완치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물론 그냥 나을리는 없지만 스님이 가르쳐준 지켜야 할 일을 병행해서겠지만 아무튼 기적이 아닌가?

원인모를 병으로 서울 등지의 유명의원을 전전해 오면서 생을 포기하고 환자의 집으로 돌아온 남편을 마지막으로 가산 정리를 위해 1주일만 더 살 수

종합 newskorea 2005년 1월 5일자 37면
기사 중에서

있도록 해달라는 환자 부인의 애원으로 학가산에서 가족과 함께 기도로 완치되어 주위의 사람을 놀라게 하기고 했다.

부처님의 원력과 가피력으로 마음의 문을 열면 모든 것이 들여다 보인다
세상 모든 만물이 적용되는 방향이 있어, 골라서 처방하고…
인간에게 잡귀가 스미면 잡아 몰아내야 하고… 병이 나으려면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아무리 독한 병일지라도 지성이면 감천이라, 지극정성이면 통하지 않는 것이 없다. 〈약사경〉

대한불교본원종 고경사 (찾아 오시는 길 : 풍기IC에서 20분, 서안동 IC에서 25분)
경북 영주시 평은면 지곡2리 89번지 전화 054-638-8886. 8887 핸드폰 011-507-8885

깨달음도 얻게 됩니다



태고총림 선암사 방장 혜초 스님이 방장의 상징인 불자를 봉정받은후 대중들에게 들어보이고 있다.

사(六朝古寺)라는 현판을 보면 선암사 가풍이 확연해집니다. 육조(六祖) 혜능 대사가 살던 곳이라는 뜻에서 육조고사라 했다 합니다. 글씨는 서포 김만중의 아버지인 김익겸이 썼다고 전해집니다.

'말이 없음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혜능 스님의 수행가풍을 따르고자 선암사는 기둥에 주련(柱聯)을 달지 않습니다.

혜능 스님이 어떤 분입니까. 스님은 산에서 나무를 해다 시장에 팔아서 어머니를 효성으로 봉양(奉養)하고 지낸 일자무식(一字無識)의 가난한 소년이었습니다. 혜능 스님은 나무를 팔고 집으로 가다가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 ·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이라는 구절을 듣고 크게 발심했습니다.

선종(禪宗)과 깊은 관계를 갖게된 바로 이 구절이 선의 진정한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구절(句節)은 풀어서 설명하면 '아무조건 없이 중생을 구제해주고 보살행을 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모든 대상이나 나의 존재 어디에도 내것이 없고 집착할 것이 없다는 인식을 하면 새로운 실천행이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선의 진정한 모습은 결국 중생과 하나가 되어 그 아픔과 함께하는 출세간적 보살행의 세계를 지향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생활속에서 실천 할 때 깨달음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들어 날씨는 추워지는데 어렵고 힘든 사람은 갈수록 늘어만 갑니다.

이런때 일수록 불교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돕는 실천행과 더불어 의식의 세계를 충만하게 해주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내 것, 네 것이라는 분별을 여의고 사람들이 잡아야 할 삶의 방향이나 영원히 함께 공존하는 길을 알려줘야 합니다. 너와 나를 구분 짓는 일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 것도 없고 네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함께 생존하는 삶을 살아갈려면 서로 나눠야 합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삼계(三界, 욕계, 색계, 무색계)의 대도사인 부처님은 이땅에 오신것도 아니요 안오신 것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욕계(欲界)의 중생들 앞에 화현한 것은 생사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생사가 둘이 아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않는 사바세계 불자들을 제도하고자 이곳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천상(天上)은 물론, 지옥계(地獄界)까지도 모두 포함하여 구제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삼계를 나누어 차별하여 보시지 않는것입니다.

의식세계 충만하게 가꿔야

이것이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 한국불교는 이제 대승행을 해야합니다. 즉 사회에 환원하는 불교 '원공법계제중생(願共法界諸衆生, 모든 중생이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고) 자타일시성불도(自他一時成佛道, 나와 남이 다 함께 부처를 이룰지어다)'를 지향해야 합니다.

나와 남이 함께 부처의 길에 이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자리 그 자리가 곧 불국토인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중생들이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불교가 되어야 합니다.

誰知王舍一輪月(수지왕사일륜월)이요
萬古光明長不滅(만고광명장불멸)이로다.

부처님이 계시던 왕사성의 둥그런 달이
만고에 꺼지지 않는 광명인 것을 알겠는가

부처님은 왕사성에서 성도해 모든 중생들에게 진리의 빛을 아낌없이 나눠주셨습니다. 그 빛은 부처님뿐만 아니라 일체중생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부대중들이 이 진리의 빛을 갖기 위해서는 수행을 해야합니다. 수행을 근본으로 삼아 열심히 정진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리=김원우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철저한 지계·수행으로 일평생
11월30일 태고총림 선암사 방장 추대

혜초 스님은 11월30일 태고총림 선암사 방장으로 추대된 혜초 스님은 평생을 철저한 지계와 수행, 그리고 효행으로 일관해와 태고종 스님들의 사표로 존경받고 있다.

조계종 비구 대처 분규 당시, 은사인 前 종정 덕암 스님을 따라 비구의 몸으로 태고종에 남은 혜초 스님은 평생 돈을 만지지 않고, 대중들과 발우공양을 하는 등 흐트러지지 않는 수행자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새벽 2시면 일어나는 스님은 찬물 더운물 가리지 않고 목욕을 한다음 금강경, 원각경 보안장, 법화경 약찬게, 화엄경 약찬게를 차례로 독송한 후에 도량석 목탁이 울려퍼지면 석가모니부처님이 모셔진 칠전을 시작으로 나한전, 원통전 불조전, 조사전, 지장전을 모두 들러 참배한 후 대웅전에서 대중들과 아침예불을 올린다.

낮에는 참선과 독서, 포행등으로 하루 일과를 보낸다.

스님은 지난해 6월 종정에 추대된후 9월부터 선암사에 주석하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100여 대중들과 함께 적묵당에서 아침 발우공양을 하고 있다.

1932년 경남 진양에서 태어난 혜초 스님은 14세되던 45년 진양 청곡사에서 양택(良澤) 화상을 은사로 득도했으며, 53년 해인사에서 인곡(仁谷) 화상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해인사 불교전문강원과 해인대학(현 경남대) 종교학과, 일본 화원대학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60년 현 태고종 종정인 덕암 스님을 법사로 건당, 태고종 중앙종회 의원, 총무원 사회부장, 포교원장 등을 거쳐 총무원장을 역임했다.



혜초 스님



주경 스님의
스님이야기
성해 스님

도반과 지인들 중에 제주도 출신들이 몇 있다. 제주도라는 지역 자체가 육지에서 멀리 뚝 떨어진 특수성을 가진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지만, 내가 아는 제주도 사람들은 제각기 특별한 개성들을 가지고 있다. 어딘가 사람을 끄는 묘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 성해 스님이 있다. 스님을 처음 만난 것은 해인강원에서다.

해인강원은 100여명의 대중이 수행생활을 하는 까닭에 대중화합이 중요했다. 대중화합은 스님들이 각자 맡은바 소임을 다하는 것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그래서 소임과 명칭도 다양했는데, 당시 해인강원은 다른 곳에는 없는 특이한 소임이 있었다. 산문출입이 제한된 스님들의 필수품을 구입해주는 '마을시자', 법당의 목탁을 치는 '목탁대장', 1, 2학년에 해당하는 치문, 사집반 스님들이 생활하는 '현당'의 대 소사를 책임지는 '현당대장' 등 산사의 스님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 희한한 소임도 있었다.



그림 · 문병성

그런 가운데 정식 소임에는 없지만 스님들 특성에 따라 붙여지는 별칭도 있었는데, 성해 스님에게는 늘 '울력대장'이라는 별명이 붙곤 했다.

산사에서 특히 대중처소에서 울력은 무엇보다 중요한 대중공동의 일을 뜻한다. 개인의 사정과 일에 우선하여 대중이 다함께 참여해야 하는 것이 울력이다. 오죽했으면 '울력목탁이 울리면 누웠던 송장도 벌떡 일어나서 나온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다. 다른 때에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킬뿐 드러나지 않던 성해 스님이 울력시간에는 누구보다 두드러지고 빛이 나곤 했다.

매일 아침 마당을 쓸 때에는 다른 스님들보다 훨씬 긴 빗자루- 보통 빗자루에 자루를 덧대어 길게 만든-를 들고 앞에서 쓱쓱 쓸어나가면 그 넓은 마당이 순식간에 훤해지는데 그 넘치는 기운에 모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울력이 대중스님들이 절대로 빠지거나 피할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땀이 나도록 애를 쓰고 힘을 써서 하지는 않는 것이 일종의 불문율이다. 그래서 스님들 사이에 전하는 말중에 '땀나게 울력하면 빌어먹는다'고 하여 적당한 선에서 일하기를 요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성해 스님은 달랐다. '빌어먹는 것은 출가인의 본분사인데, 그 말은 땀나게 일해야 중노릇 잘 하게 된다는 말'이라며 앞장서 일하기에 주저함이 없었다. 김장울력이나 화단조성 등 힘을 써야 하는 일이 있을 때 늘 앞장서는 것은 물론, 몇 사람 묶 일을 하고 뒷정리까지 도맡았다.

90년대 초반 해인강원에도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학인들 사이에서 컴퓨터 열풍이 불어왔다. 컴퓨터 수업이 정규 교과목에 채택이 되었고, 워드프로세서와 통신 등 다들 새로운 문명의 이기에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성해 스님은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스님들이 수행과 공부에 집중해야지 새로운 문명의 흐름을 따라가면 스님들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 뿐 아니라 속가 공부에 더이상 마음을 두고싶지 않다는 것이었다.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재가불자의 도움을 받아서 해도 되지 않느냐는 주장이었다.

힘 쓰는 일 있을때 늘 앞장
'울력대장' 별명 잘 어울려

그래서 강원을 마치고 바로 장경각 천일기도를 자원해서 기도정진에 들더니 3년기도를 회향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강원의 중강소임을 맡았다. 평소 글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다더니 기도를 하며 내면의 변화를 가진 모양이었다. 한 시간 강의를 위해 몇 배 시간을 공부 한다며 털털하게 웃는 성해 스님의 방에는 최신형 컴퓨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었다. 그렇게 극구 컴퓨터 사용을 거부하더니 어쩐 일이냐고 물으니 필요해서 사용하게 되었다며 이왕 하게 되었으니 열심히 배우고 있다고 했다. 스님들은 누구나 고집스런 면이 있고 그 고집을 수행의 자양분으로 살아가는데, 때로 그 고집을 버리는 것 또한 수행자 진면목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성해 스님의 변화는 현재의 자신의 판단과 생각에 충실하고 때로 자신의 주장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과단성마저 보여주는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었다.

지난 가을, 몇 명의 도반이 서산의 우리 절에 다녀갔다. 여전히 수수하고 털털한 성해 스님도 자리를 함께 했다. 이리저리 도량을 둘러보고는 일거리가 적지 않아 보이는데 조금 도와줄까 하며 넌지시 울력대장 품새를 드러냈다.

서울에서 소임을 접고 다시 산사로 내려와서 한 달 정도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마음에 두고 있었던 일거리에 하나씩 손을 대고 있다. 마당구석의 나무토막들도 치우고, 창고를 정리하고 관물대도 만들었다. 하지만 아직 눈에 걸리는 일거리가 줄지않고 있는 걸 보면서 자주 '울력대장' 성해 스님을 떠올린다. ■서산 부석사 주지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주)행복만선 Tel.02)730-0705
유람선으로 출발하는
중국 산동성 성지 순례 5박 6일 / 매주 수 · 금요일 출발
여행경비 : ₩450,000원 (화동페리 이용)

일 자	도 시 명	교 통 편	순 례 일 정
제1일	인 천 석 도	화동페리	인천 여객터미널에서 17시 승선, 인천항 출발, 선내 휴식
제2일	청 주 치 박	전용버스	08시 석도항 도착 / 입국 수속 후 청주로 이동 불교 문화 유산이 잘 보관된 "청주 박물관" 관람 "타산석굴" 참배후 치박으로 이동 호텔 휴식
제3일	치 박 제 남 태 산	전용버스	제남으로 이동 명대 4대 사찰인 "영암사" 순례 후 태안으로 이동 고려조 만공대사께서 창건하신 "보조사" 순례 케블카 이용 태산 등정 후 호텔 휴식
제4일	태 산 제 남 유 방	전용버스	석가모니 부처님의 佛齒를 모신 "보광사" 순례 제남 경유 유방으로 이동 양가부 민속촌 관람 호텔 휴식
제5일	유 방 석 도	전용버스 화동페리	석도로 이동 장보고 대사께서 창건한 "적산법화원" 순례 석도항으로 이동 출국 수속 및 승선 18시 출항, 선내 자유시간 및 휴식
제6일	인 천		09시 인천 도착 입국 수속 후 해산



여행조건
1. 국제선박료, 현지 차량, 입장료, 식사비, 중국비자비, 현지 가이드 기서 팁 등 제 비용 포함(개인 경비만 제외)
2. 선내 2박은 다인실 기준, 현지 호텔은 2인 1실 기준
3. 출발은 10명이상 가능
4. 10명이상 단체는 타 페리 이용 출발요일 변경 가능하니 문의 요망

호화 유람선 선상에서 수륙제 및 소원성취 방생 대법회 가능 (진행 및 인원 상담)

천안통. 천이통. 의통

양수영 원장님은 천안통, 천이통, 의통이 열린분으로 영화 화면 보듯이 영가들과 대화를 하여 빙의로 인해 중병에 시달리는 분들을 치유합니다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하늘의 기운이 들어오는
약손을 만들어 드립니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전화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천일선원 소백산수련원
054)638-2224 <경북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사찰에서 진행되는 겨울수련회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사진은 대학생들이 수련회에서 참선을 하고 있는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공부 열기로 추위 녹여봐!

겨울산사수련회 · 새해맞이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풍성

추운 겨울을 마음공부 열기로 이겨내 보는 것은 어떨까?

12월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추위가 몰려오고 있는 가운데 사찰들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겨울수련회와 템플스테이를 준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사찰들은 2006년 병술년 새해맞이 템플스테이를 비롯해 방학에 들어가는 초 · 중 · 고 생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보은 법주사는 12월 30일부터 2006년 1월 8일까지 3차례에 걸쳐 겨울 수련회를 진행한다. 1월 2~4일 초등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수련회에서는 각종 불교문화체험은 물론 눈썰매를 비롯한 겨울놀이가 펼쳐지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1월 6~8일 계속되는 3차 수련회에서는 부처님 성도재일(1월 7일)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12월 26일부터 2006년 1월 20일까지 4차례의 수련회를 실시하는 합천 해인사는 참선과 염불 수행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수련회 도중 서로가 서로를 점검해주는 자자(自恣)가 눈에 띈다.

해인사는 참가 신청자 중 신청서를 진지하고 솔직하게 작성했는지의 여부와 정신적 신체적으로 겨울수련법회 프로그램을 소화하기에 충분한가를 심사해 참가여부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매주 주말 '선무도 주말 템플스테이'를 진행하는 경주 골굴사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청소년 화랑 수련회'를 개최한다.

선요가를 비롯해 참선, 불교한문교육, 동해 문무대왕릉 등의 성지순례, 원어민 교사의 영어회화 지도 등으로 꾸며지는 수련회 참여접수는 수시로 가능하다.

이외에도 평창 월정사는 12월 15일까지 제7기 단기출가학교(1월 5일~2월 3일) 동참 접수를 받고 있으며, 예산 수덕사, 공주 마곡사, 김제 금산사, 공주 갑사 등은 2006 새해맞이 템플스테이를 12월 31~1월 1일 이틀간 진행한다.

또 김천 직지사, 해남 대흥사, 화성 신흥사, 부안 내소사, 해남 미황사 등은 주말 템플스테이와 수련회시 운영한다. 성주 도솔암을 비롯한 전국의 사찰들도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겨울불교학교를 연다. 문의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02)2011-1972

유철주 기자 ycj@buddhapia.com



갑사에서 선체조를 하는 불자들.



골굴사에서는 선무도를 체험할 수 있다.



겨울수련회에서 다도를 체험하는 청소년들.



사찰에서 진행되는 한문학당도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다.

사찰	날짜	주요 프로그램	문의
합천 해인사	1차:12월 26~30일 2차:1월 8~11일 3차: 1월 12~15일 4차: 1월 16~20일	참선, 자자 등	055-934-3110
보은 법주사	1차: 12월 30일~1월 1일 2차:1월 2~4일 3차:1월 6~8일	불교문화체험 성도재일 관련 강좌	043-543-3615
경주 골굴사	12월 ~ 2월(수시모집)	선무도, 한문교육, 원어민 영어회화 강좌	054-745-0246
김천 직지사	1월 9~14일	어린이 대상	054-436-6084
해남 대흥사	1월초부터 3차례 실시	일반인 대상	061-534-5502
공주 마곡사	12월 매주 주말	자비명상 템플스테이, 새해맞이 템플스테이(12월 31~1월 1일)	041-841-6221
화성 신흥사	1월 중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 대상	031-357-3916
성주 도솔암	12월 31일~1월 2일	겨울불교학교 (발우공양, 불교전래놀이 등)	054-931-0175
공주 갑사	12월 31일 ~ 1월 1일	새해맞이 템플스테이	041-857-8981
김제 금산사			063-548-1390
예산 수덕사			041-337-6565
양양 낙산사			033-672-2447

※해남 미황사, 부안 내소사, 경주 기림사 등은 템플스테이 상시 운영

게시판



불교환경연대 회원의 밤 불교환경연대는 12월 8일 조계사 산중다원에서 '2005 불교환경연대 회원의 밤'을 개최한다(사진). 이 자리에서는 불교환경연대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향후 활동방안에 대해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예정이다.(02)720-1654

찬불윈드 오케스트라 단원 모집 원주 구룡사는 찬불 윈드 오케스트라 단원을 모집한다. 관악기 전공자 혹은 드럼 전기기타, 베이스, 피아노 등을 연주할 수 있는 사람 환영. (033)732-4800

지공회, 해외 자원봉사 지구촌 공생회는 캄보디아와 스리랑카 현지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는 장기 파견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02)455-9596

가족송년잔치 서울 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12월 7일 오후 2시 복지관 내에서 가족송년잔치를 개최한다. 2006년 달력만들기, 카트라이터 대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꾸며질 예정. (02)2282-1100

어르신 도우미 연꽃마을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음악활동과 발마사지, 기공체조, 종이접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02)365-3677

어르신 작품 전시회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은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한 어르신들의 서예, 생활원예 작품전시회를 12월 14~16일 어린이대공원역 어린이 미술마당에서 개최한다. (02)466-6242

20면 상식 퍼즐 정답

다	세	포	동	물		
라				고	독	원
니	코	틴			고	
	스		절	차	탁	마
	모					님
	스	쿼	시			
			구	품	연	지

공연

희망 염원하는 간절한 몸짓

인천시립무용단 정기공연 '미륵의 꽃'



인천시립무용단이 선보일 '미륵의 꽃'.

전쟁과 테러라는 이름의 폭력 앞에 무엇을 꽃 피울 것인가. 인천시립무용단의 제56회 정기공연 '미륵의 꽃'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자.

12월 9~10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화려한 무대를 선보일 '미륵의 꽃'은 구원불인 미륵부처님을 기다리며 희망의 꽃을 피워내는 사람들의 간절한 몸짓을 아름다운 선율 속에 펼쳐냈다.

총 10장으로 구성되는 무대는 여인들의 오체투지 모습에서 시작해, 희고 우울한 비가 번갈아 내리는 2장, 광기 가득한 3장, 만개하지 못한 꽃잎이 떨어지는 아픔을 노래한 4장으로 이어진다. 5장은 정적만이 남은 무대에 울려 퍼지는 바람의 노래가 채운다. 바람에 날아온 씨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기까지 고난의 여정은 6~8장에서 섬세한 몸짓으로 표현된다. 9~10장은 험한 세상을 견디고 향내를 풍기는 꽃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032)438-7774 강지연 기자

전시

전각가 고암 정병례 작품전

수익금 전액 지하철 포교 운영기금 사용 계획



전시회에 선보일 정병례 화백의 작품 모음.

대하드라마 '왕과 비' '대망' 등의 타이틀을 제작했던 전각가 고암 정병례 화백의 전각 작품을 만나자. 정 화백의 작품도 보고 지하철 포교기금 마련에도 일조하는 일거양득의 기회다.

12월 7~13일 서울 법련사 불일미술관, 15~21일 대구 보현사 문화관에서 각각 열리는 '고암 정병례 화백의 불교 전각전시회'에는 전각한 원석 30여 점과 지하철 승강장에 설치된 풍경소리 게재 작품 60여점이 선보인다.

지하철 포교단체 '풍경소리'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마련된 이번 전시회의 수익금은 지하철 포교 운영기금으로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풍경소리는 서울 및 수도권 전철, 전국 철도 및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지하철에 포교용 게시판 '풍경소리'를 설치 · 운영하고 있다. (02)736-5583 강지연 기자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서울 FM 101.9 MHZ, 부산 FM 89.9 MHZ, 광주 FM 89.7 MHZ, 대구 FM 94.5 MHZ, 청주 FM 96.7 MHZ, 춘천 FM 100.1 MHZ)

5일 14:05 낭만라디오
6일 11:05 아름다운 초대
7일 10:05 BBS신행상담실
8일 09:05 행복한 미소
9일 07:05 아침저널
10일 06:20 오늘은 좋은 날
11일 07:05 사랑의 징검다리

Btn 불교TV (sky-life:161 케이블: 지역방송사 문의)

5일 21:10 한국의 명찰
6일 02:40 불교TV스페셜
7일 14:40 명상음악산책
8일 19:30 TV법회
9일 08:20 산중대담
10일 07:30 조선불교탄압사
11일 16:50 디스커버링부디즘

하이라이트

■**불교방송**: 낭만라디오(12월 8일 14:05~15:00) 3040세대들의 입맛에 맞는 추억의 노래, 마음의 노래, 다시 듣고 싶은 노래를 다시 들어 볼 수 있는 시간. 고한우의 정겨운 입담과 재치로 오후의 나른함을 말끔히 씻어보는 시간. 잔잔한 노래와 선율은 지친 당신의 마음을 감싸주는 시간이 될 것이다.

■**불교텔레비전**: 산중대담 '선지식을 찾아서'(12월 일 21:10~22:10) 큰스님들의 살아 숨 쉬는 선(禪) 법문을 들어보는 시간. 불교경전을 대표하는 <법화경> <금강경> 등을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해 본다. 각박한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올바른 삶의 지혜와 도를 일깨워 준다.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상품문의 : (02)2004-8218~9



알마시카 담채 경상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 ·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의 가르침을 공부하던 선지식들의 경상(공부상)의 정기를 받아 겨울밤 독서삼매에 빠져보자.

사찰이나 불교대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국의 경상은 당(唐) · 송(宋) 시대 양식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 졌지만, 우리 민족의 기호와 생활양식에 따라 변화돼 중국의 것에 비해 날렵하고 세련된 미를 보여 준다. 알마시카 담채 경상은 특히 색을 덧칠해 세련미를 더한 상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가격은 22만 5000원.

이영화 어때요?

연쇄살인 추적하는 투캅스 … 미궁에 빠지다

6월의 일기 감독: 임경수 출연: 신은경, 문정혁 장르: 스릴러 상영시간: 105분 등급: 15세 이상



영화 '6월의 일기'는 여자 형사를 전면배치해 전혀 다른 '투캅스'를 만들어 냈다. 또 미리 쓰여진 일기를 통해 예고된 살인이라는 독특한 설정을 교묘하게 하나의 사건으로 연결해 관객들에게 낯선 궁금증을 유발한다.

타고난 형사기질로 오로지 범인검거에 청춘을 바친 강력계 형사 추자영. '폼생폼사'가 삶의 화두인 새내기 형사 김동욱.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인 이들은 '한 팀으로 사건수사를 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면서 '티격태격 신경전'은 더해만 간다.

수사 도중 자영과 동욱은 부검을 통해 의문의 일기쪽지 캡슐을 발견한다. 더 놀라운 것은 미리 쓰여진 일기에 따라 살인이 예고되고 있다는 것.

죽은 사체가 같은 학교 학생들이라는 단서에 의해 두 형사는 학교를 찾지만 예고된 살인사건은 점점 미궁에 빠진다. 그사이 조카인 준하가 납치되면서 자영은 계속되는 이 사건이 자신과도 무관하지 않음을 직감하게 되는데….

'6월의 일기'는 기존의 스릴러 영화와는 사뭇 다르다. '범인'이 아닌 '왜'라는 이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신은경, 김윤진, 문정혁이라는 힘 있는 배우들의 시너지가 더해지면서 한국 스릴러 장르를 한층 업그레이드시켰다는 것이 영화평론가들의 중론. 하지만 영화적 재미와 함께 탄탄한 내러티브를 갖춘 스릴러 영화에 목말라 하는 관객들에게 청량음료가 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진흙속의 진주 한 알 (하)

류복희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 1동)

나는 곧바로 딸을 데리고 대학교로 달려갔다. 학교는 이미 인산인해였고 원서 마감시간은 40분이나 지났지만 수위아저씨께 사정을 얘기하고 간신히 학교로 들어가 저녁 9시가 다 되어서야 접수를 마쳤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딸은 "어머니! 정말 부처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간절하게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며 '제발 우리 어머니 좀 저에게 보내주세요. 저 혼자는 도저히 못 갈 것 같아요'라고 기도했더니 어머니가 제 앞에 나타나셨어요"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간절함과 절박함이 어린 가슴을 다 녹이고 있을 때 내가 앞에 나타났으니 그대로 힘을 잃고 쓰러졌던 것이다.

원서를 접수한 후 나는 딸아이의 합격을 기원하기 위해 100일 기도를 시작했다.

100일간 매일 밤 12시에서 다음날 새벽 1시 30분까지 <천수경> <관세음보살보문품> <금강경> <이산혜연선사발원문> <반야심경>을 각각 일독하는 것이었다.

체력이 워낙 약한 나로서는 한 달도 못돼 몸에 이상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잠이 억수같이 쏟아졌고 앉아 있을 때도 혼침으로 인해 몸이 앞뒤로 정신없이 흔들렸다. 어떤 때는 헛소리도 나오고 혀가 굳어져 독경을 할 수 없을 때도 있었다. 그래도 누우면 영 자버릴 것 같아 앉은 채 졸다가 새벽 5시가 될 때도 있었다. 비몽사몽 시달리면서 100일을 마치고 열흘넘게 누워 지냈다.

이런 모든 노력들을 부처님도 불쌍하게 보셨든지 내 딸에게 합격의 영광을 주셨다. 정말 어떻게 세상에서 거저 얻어지는 게 있을까? 시방세계 두두물물이 다 합당한 근본을 갖추고 있지만 우리는 믿지 않아 알지 못한다.

내 아들은 딸에 비해 공부를 잘 못해 대학교를 못 가고 상고를 나와 취직을 했다. 그러나 엄마 마음은 늘 아쉬워 이제는 아들을 위해 한 번 더 기도를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아들이 군에 입대한 2년 동안 기도를 하기로 했다.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이 빈약한 몸과 정신으로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것 밖에 없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들은 입대한 후 육군사관학교 조교로 배치되었다. 그러나 2년간의 군생활은 아들의 성격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인상도 너무나 사납게 변했다. 사람이 환경에 그토록 민감한지 예전엔 미처 몰랐다.

그런 동생의 모습을 본 딸은 "군에 가기 전 직장생활을 하며 모은 돈이 있으니 그 돈으로 공부시키는 셈 치고 보육교사교육을 시켜보자"고 제안했다. 아들도 자신을

100일 기도후 딸 대학 합격 가피 얻어
불교대학 입학…포교사 고시 도전 계획
남 위하는 삶 '시신 기증'으로 마무리

걱정해주는 누나의 의견을 받아들여 또 다른 세상을 시작했다.

보육교사과정은 일년이었다. 교육 담당 교수는 모 전문대 유아교육과 교수로, 아들을 너무나 잘 챙겨주고 도움도 많이 줘 생각 이상으로 아들이 잘 해낼 수 있었다.

교육을 이수한 다음해에는 교수님의 조언대로 전문대학 유아교육학과에 특별전형으로 입학하기도 했다. 아들은 대학 2년 동안 과대표로 왕성한 활동을 했고, 졸업할 때는 공로패를 받았다. 그리고 다시 4년제 대학에 편입해 졸업을 했고 지금은 유치원 체육교사로 일하며 같은 과 여자친구와 사랑을 키우고 있다. 딸도 같은 학교 선생님과 새해에 결혼을 할 예정이다.

"정말 우러러 예경합니다. 지혜충만하신 거룩한 님이시여. 이 불연의 가피를 어떻게 회향해야 마땅하겠습니까?"

부처님은 나를 수행자로 거듭 태어나게 하고 물러남이 없는 길에 들게 해 주셨다.

부처님의 가피를 입고 행복이 가득한 생활을 하던 어느 날 동화사에 다니는 한 신도가 <한마음요전>을 나에게 주었다.

당시 나는 대행 큰스님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다. 한마음선원의 선원장 스님으로 주인공이란 화두를 주심으로써 우리 도반들의 갈 길을 밝혀주시는 분이란 것도 현대불교신문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나는 이 <한마음요전>을 읽고서 큰스님의 불연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행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비참하고 처절한 인욕 속에서 잃지 않은 미세한 빛이 있어 꺼질 듯 하다가도 다시 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큰스님의 행장을 읽으면서 큰스님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그렇게도 모질게 이 인고의 땅에 오셨을까를 생각하며 나는 그냥 눈물이 흘렀다.

부처님이 그냥 오셨을 리 없고 또한 역대 조사님들과 대행 큰스님이 그냥 이 땅에 오셨을 리 만무한 일. 분명히 모든 성현님들은 처절한 자비실천으로 지혜를 닦아야 한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 오셨으리라. 이제 내 생애도 불연을 지은 바, 꿋꿋이 나아갈 바를 알게 되었다.

기쁘면 기쁜 대로 그대로 두고 슬프면 슬픈 대로 그냥 그대로 나아가자. 하늘이 돕고 땅이 돕는 가피원력이 늘 이어짐을 어찌 글로 다 나열할 수 있을까? 나 역시 그 가피 그 은혜 오직 부처님전에 회향하는 일 외에 더 무엇이 있을까?

나는 이제 부족하지만 내가 먼저 올곧게 수행하고 이타행을 하려는 각오를 하고 대구불교대학에 입학했다. 열심히 강의에 출석해 듣고 배우는 학업에 충실하고 있으며 대승경전반인 대학원도 같이 등록해 수업을 받고 있다. 내년에는 졸업과 동시에 포교사시험까지 마칠 예정이다.

또한 나는 현재 변두리 작은 동네에 노스님 한 분과 노공양주 한 분이 살고 있는 작은 사찰에서 매주 월요일 백팔참회기도를 집전하고 있으며 한 스님의 사찰운영후원을 맡고 있다. 내년에 두 학급을 졸업하면 조건이 어려운 외각의 사찰에서 요일법회를 활성화하는데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그리고 또한 사후 이 몸뚱이는 경북대 병원에 기증돼 해부실습용으로 쓰일 것이다.

내 생에 이제 갈 곳이 뚜렷하게 정해진 길 그 길은 오직 부처님 회상에 들어가는 길이며, 올바른 정도(正道)에 회향하는 것이며 도반들과 부족하지만 애쓰는 마음으로 법담을 나누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제는 두려움이 없는 대자유의 수행인이 될 것이다.

이제 나는 15년 전에 비구 스님께 받은 숙제인지 화두인지 알 수 없는 '진흙 속의 진주 한 알'을 찾는 일을 제대로 해볼 것이다. 어쩌면 지금은 노출시킬 수 없는 한 알의 완성을 위해 제 살갗에 상처를 내고 살을 에는 인욕을 거듭하며 한 알의 완성을 위해 단단한 살을 채우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완성된 진주의 빛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결하며 은은한 빛일 것이다. 나 또한 이러한 빛과 같이 나와 남이 이익되게 수행하여 많은 이들과 이 빛을 함께 할 것이다.

진흙 속의 진주 한 알이 고통의 결정체로 완성되듯이 나는 기어이 부끄럽지 않은 수행자의 진면목을 갖춘 후 반드시 한 알의 진주를 만들어서 부처님께 공양 올려 보은의 회향을 하리라.

이 다짐 변하지 않게 하여지이다. 마하반야바라밀. (끝)



그림 · 문병성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꼭꼭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소정의 고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ypark@buddhapia.com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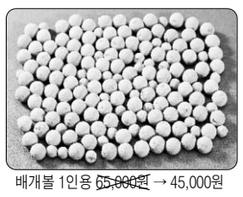
시술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베개속에 넣고 평생 사용 늘~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상쾌한숙면 건강한하루 신비의은행석



배개볼 1인용 ~~65,000원~~ → 45,000원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선물"

베개속에 은행석을 넣고 주무시면 평생 뇌졸중, 중풍, 치매, 고혈압 천식등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혈압이 떨어지며 기미가 줄고 하얀 얼굴로 미백효과도 뛰어나요. 하루에 5시간만 주무셔도 8시간 잔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머리가 맑고 상쾌하며 아침에 가볍게 일어납니다.

죽어가는 것도 살리는 은행석

북한에서온 은행석은 죽어가는 것도 살린다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야에다 수돗물을 받아 붕어를 넣으면 붕어는 배를 뒤집고 헐떡이며 죽어갑니다. 이때 은행석을 넣으면 붕어는 씽씽하게 살아납니다. 고급난, 분재 등 죽어가는 것도 살릴 수 있어요.

생명의 빛! 생명의 기!

북한 일부 고위층만 사용하며 저를 믿고 주무시며 건강하게 장수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심하게 코를 골거나 기침을 하시는 분에게 적극 권장합니다. 손발이 자주 붓거나 저린 분은 은행석 목걸이, 팔찌와 같이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음이온을 첨가하여 어깨 통증완화 및 각세포의 기능 향상

건강도 지켜주고 젊음을 유지하는

은행석 안심목걸이, 팔찌



~~125,000원~~ → 95.000원

◆목걸이,팔찌 : 머리를 맑게 함, 손발저림, 어깨결림해소, 혈압조절, 혈압상승억제, 전신에 氣를 고루 전달 기력회복, 심장박동이 원활하여 마음을 안정 시킴,신진대사촉진, 피가 맑게 하며, 다이어트에도 효과

은행석 108염주, 손목압장주도 제조 판매합니다

금강닥터 문의전화 (02)723-9184 www.dk21.net

◆입금계좌:농협 1143-12-049474 송명화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관절염·신경통·오십견·류마티스

한방요법으로 치료한다

윤원장은 우슬, 창출, 당귀, 백아로 60℃에서 6시간 동안 알콜추출(65브릭스로 농축), 속단, 구판, 홍화자 외 19개 약제를 특수효모와 혹설탕으로 16일간 속성발효하여 몰약을 액상화시켜 丸(환)으로 만든 관신환(丸)을 처방하여 관절염, 신경통, 류마티스, 오십견 등에 주효하며 5~7일 정도 복용하면 통증 완화, 부기감소가 나타나며 혈행개선에도 뛰어난 효과가 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다. - 관신환(丸)



윤량한의원 원장 윤 량

기관지천식

천연생약제로 치료한다

윤원장은 항암작용이 뛰어난 신비한 약초로 구전되어 온 백화사설초(白花蛇舌草)와 그 외 수종의 약제로 만든 기천탕을 처방하여 수년간 기침·가래·기관지천식으로 고생하신 환자에게 복용시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으며, 환자 증상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30일만 복용해도 80~90% 이상의 개선효과가 있었으며, 환자에 따라 1~6개월까지 복용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 기천탕(湯)

자료제공 윤량한의원 02-598-9832

승광불교전통미술원



- 불 상
- 탱 화
- 개 금
- 원형조각
- 불사상담
- 천불삼천불
- 불교용품

귀의 삼보 하옵고....

대덕 큰 스님의 성원으로 불교미술 발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할수 있도록 지도 편달 바라옵니다

전 화 02-491-5336, 02-494-7478
공 방 031-595-6557, 031-595-6558
휴대폰 011-226-5336
e-mail : 0112265336@nate.com
목우손동술합장

기적의치약 스님과 불자님!

지긋시긋한 치아

美國브라이트로 7일만 닦으시면 고생 끝!



스님? 7일만 닦으시면 고생 않하십니다.

스님?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럽고 참기 어려운것이 이가 아픈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스님만은 믿으세요. 저는 대전에사는 보살입니다. 대전에있는 사찰을 방문 하였을때 스님과 함께 공양을 하게 됐는데 1년전부터 치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다가 양쪽 어금니를 뽑고나니 다른이도 흔들리며 진물도 못먹고 하루하루 진통제에 의존해 왔고 병원에 자주 가야만 했습니다. 스님과 공양중에 이가 아파 잘 먹지 못하는것을 본 스님께서 미국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치약을 주시면서 아침저녁 7일만 닦으면 이가 좋아진다고 해서 마음속으로 병원을 다녀도 효과가 없는데 치약가지고 될까 의심하면서 스님께서 주신거라 아침저녁 사용하면서 4일째 되는날부터 진통제를 먹지 않아도 돼고 찬물을 먹어도 이가 시렵지 않는 놀라운 효과를 보았습니다. 일반치약처럼 7일정도 사용하면 입냄새는 물론, 10일정도 사용하면 풍치, 잇몸무력, 잇몸농증, 찬음식과 뜨거운 음식을 드실때 통증이 깨끗이 없어지며 누런이가 하얀이로 美白도 됩니다.

※ 五福중의 으뜸가는 치아를 보존하는데 기적의 약초 치약으로 충분합니다.

가격은 50,000원입니다.

수입판매원 금강닥터사
TEL:(02)2271-1441 농협:360-12-046446 최능우

2006년 차 관련 학과 · 강좌 신입생 모집

"차는 마신다. 그러나 차는 모른다."

지난해부터 차를 마시기 시작한 김현주(28·경기도 화성시)씨. 막연히 '몸에 좋다'는 이유로 차를 마시고는 있지만, 마시면 마실수록 차에 대한 궁금증은 더해만 갔다. 하지만 인터넷을 뒤져도 속 시원한 답은 찾을 수 없고, 서점에 가 봐도 김씨 같은 초보 차인들을 위한 책은 많지 않다. 차에 대해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2006년 신입생을 모집하는 차 교육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본다.



각 대학이나 단체에 개설된 차 학과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차에 대해 좀 더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사진은 한서대 생활과학대학원 차학전공 학생들이 차 품평교육을 받는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새해엔 차 공부 제대로 해볼까?





기초에서 전문가 과정까지 교육 프로그램 다양
원광디지털대 온 · 오프라인 연계 수업, 주부 적합
정규대학 부담스럽다면 문화강좌 이용해 볼만

▶ 기초부터 튼튼히, 학부과정

학부과정에 차 학과를 개설한 대학으로는 부산여대와 원광디지털대 그리고 올해 처음 문을 여는 서원대가 있다.

2003년 학부 최초로 차 학과를 개설한 **부산여대 차문화복지학과**는 차문화를 현대의 복지현장에 적용하려는 노력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일반 정시모집의 인터넷 원서접수는 12월 24~29일, 창구 원서접수는 26~30일까지 실시한다. 합격자 발표는 2006년 1월 9일 예정. (051)850-3204

차 개발과 차문화를 선도하는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2006년 첫 신입생으로 모집하는 **서원대 생명산업학부 차학과**는 중국의 차 전문대학과 학점교류협정을 채결해 현지에서 중국어와 제다기술 등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12월 27일까지 원서를 접수하며 정원은 20명. (043)299-8114

원광디지털대 차문화경영학과(www.wdu.ac.kr)는 모든 수업이 인터넷으로 이뤄지는 '사이버 대학'으로, 직장인이나 주부 등에게 적합하다. 온라인 수업과 지역별 교육센터와 연계해 오프라인 수업도 이뤄지고 있어 인터넷 교육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수능 성적이나 고교 내신 성적과 관계없이 고등학교 졸업자,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스님을 비롯한 성직자에게는 30%의 장학금 혜택도 주어진다. 1588-2854

▶ 차 전문가의 길, 석 · 박사 과정

차에 대해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쌓길 원한다면 대학원에 개설된 차 관련 석 · 박사 과정의 문을 두드려보자. 현재 석사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는 성균관대 성신여대 한서대 원광대 목포대 등 모두 5곳. 박사과정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원광대에만 개설돼 있다.

석사과정은 정규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았거나 2005년 2월 취득예정자면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대학에 따라 공무원 · 정규직 직원 · 군경 · 성직자 등에 대한 학비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지난 2000년 문을 연 **성균관대 생활과학대학원 예절다도학과**는 12월 10일 면접을 실시하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석 · 박사 과정이 모두 개설되어 있는 **원광대 동양학대학원 예문화와다도학과**는 2006년 6월 후기 신입생 모집을 실시한다. (063)850-5342~3

한서대 생활과학대학원 건강증진학과 차학전공은 12월 19일까지 원서 접수를 받는다. 입학원서는 대학원 교학과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받을 수 있다. 공무원이나 산업체 · 연구소 임직원, 정규직 직원, 군경 등에게는 등록금 30%의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041)660-1151~3

한편 **목포대 대학원에 개설된 국제차문화학 협동과정**(061-450-2902)과 **성신여대 문화산업대학원 예절다도학과**(02-920-7065)는 입학 전형이 마감됐으므로 추가모집 등의 기회를 노려볼만 하다.

▶ 즐거운 차 공부, 문화강좌

정규 대학 · 대학원이 부담스럽다면 각 차 단체에서 운영하는 교육 커리큘럼이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차 예절에 관심 있는 초보 차인이라면 명원문화재단이 운현궁에서 진행하는 1학기 과정의 전통다례교실과 한국차문화협회가 창경궁에서 개최하는 전통 차예절 체험교육을 권한다. 두 강좌 모두 차 예절의 기초부터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차 공부에 대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진 사람이라면 차 관련 단체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도전해보자.

한국차인연합회(회장 박권흠)는 전국 180개의 단위 차회에서 기초 다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연합회 홈페이지(teaunion.or.kr)에서 개설된 차회를 검색한 후 가입할 수 있다. 연합회 회원을 대상으로는 1년 과정의 한국다도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입학원서는 2006년 1월 중으로 접수 가능하다. (02)734-5866,

명원문화재단(이사장 김의정)의 명원차문화원에서는 입문 · 고급 · 사범 과정을 각각 1년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명원다도대학원에서는 2학기로 이뤄진 교수다인과정과 3학기로 이뤄진 최고명인과정을 통해 차 전문가를 양성하는 한편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27호 궁중 다례도 전수하고 있다. (02)730-7191

인천시 무형문화재 제11호인 규방다례 기능보유자인 이귀례 이사장이 운영하는 **한국차문화협회**는 서울과 인천 대전 등의 각 지부에서 차문화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문가 과정으로는 차생활 예절 지도사범 교육(2년)과 한국차문화대학원(1년)도 수강 가능하다. (02)701-0475

다도포교사 양성을 목표로 개설된 **동산불교대학**(www.dongsanbud.net)의 불교다도학과에서는 3년 과정으로 차문화사와 제다학, 헌다례, 사찰다도법, 차수행법 등을 배울 수 있다. (02)732-1206

이 밖에도 **한국차문화포럼**이 주관하는 한국차문화 지도자 과정은 내년 6월 22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서울 북촌 문향재에서, 유건집 교수의 다도고전 강좌는 매주 금요일 서울 가회동 교육원에서 각각 열린다.

한편 좀 더 전문적인 교육을 원한다면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소장 박동춘)의 연구생 과정을 추천한다.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는 전통 차문화를 이어갈 4기 연구생을 2006년 1월 중으로 모집한다. 4년제 대학 졸업자로 35세 이하면 응시할 수 있으며, 서류 전형과 한문 · 논술 등 필기시험을 거쳐야 한다. 엄격한 도제식 수업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의 교육은 기초과정 2년과 연구과정 3년 등 총 5년간의 연수과정을 거치게 된다. 수강료는 무료. (02)504-6162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조선시대 ㉘



총독부 가등관각 신라 · 고려차 문헌 조사
점패방지진 차 전래 월간 〈조선〉에 발표

우리나라에 불어온 다도교육은 인천여학교가 처음이었으니, 일인 다도교사를 데려와 가르쳤다. 한편으로는 조선의 차에 관한 여러 정황을 조사하고 연구하는데 힘을 쏟기 시작한다. 총독부 시정기념관에 근무한 가등관각(加藤灌覺)은 신라와 고려의 차 문헌을 조사했고 점패방지진(點貝房之進)은 문헌에 나타난 우리 차에 관하여 관심을 가졌다. 그리고 그는 우리 차의 전래에 관해서 월간 〈조선〉에 발표하기도 했다. 도엽군산(稻葉君山)이나 삼위삼(森爲三) 등은 사원차(寺院茶)에 관해 조사 연구했다.

중국은 차에 관한 연구를 점차 증대하고 차의 산업화에 힘을 쏟았다.

① 인천 여학교에 진전(津田)이라는 일인 차 교사가 부임했다.

② 가등관각은 신라와 고려의 차 문헌을 조사해 '조선의 차의 문헌에 대하여'라는 논문으로 발표했다.

③ 다산초당 인근의 만덕사(萬德寺) 주지가 작설차를 만들었다.

④ 점패방지진은 우리 문헌에 나타난 차가 가진 예술성을 중심으로 '조선의 차에 대하여'를 발표하고 처의 전래에 관해서도 썼다.

⑤ 도엽군산은 개성의 고분에서 전차(磚茶)가 출토된 것이나 〈삼국사기〉에 근거한 사적들과 사원차가 쇠퇴한 것 등을 중심으로 '조선의 사원차'를 발표했다.

⑥ 삼위삼은 보림사 백양사 화엄사 송광사 선암사 등의 사찰에서 있었던 차와 전남 일대의 야생차에 관해 '조선의 사찰과 식물'을 썼다.

⑦ 장흥군 유치면의 이석준(李石俊)씨가 만든 차가 돈차인데, 쑥, 오가피 등을 섞어 만든 작설차로 쪄서 찧고 돈 모양으로 박아서 50개 정도로 꿰어 포장한 것이다. 중미만삼(中尾萬三)은 이 돈차와 함께 고려의 차숟가락도 가지고 있었다.

⑧ 장원사십삼(藏源四十三)은 우리 차의 시배지를 화엄사로 보고 구례의 차나무에 관해 발표했다.

⑨ 〈청사고〉는 조이손(趙爾巽) 등이 찬술한 책으로 그 안에 청의 역대 차 관계일이 실려 있다.

⑩ 상해에 처음으로 중국다엽검정소를 설치했다.

⑪ 행정원에서 농촌부흥위원회를 결성해 벼 밀 면화 직조 차의 품종개량 사업을 추진했다.

⑫ 정천수(程天綏) 등이 편찬하여 출판한 책인데 15장으로 된 방대한 내용이다. 차의 번식, 기후와 토양, 비료 관리, 병충해, 육종 등 전반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⑬ 허승요(1874~1946):〈흡현지(歙縣志)〉 30권과 〈흡현한담(歙縣閑談)〉 30권을 편찬해 이 지방의 명차(名茶)에 관한 얘기를 썼다.

⑭ 미국에서 출판된 종합적 다서로 1949년 오각농이 재편해 중국판을 출간했다.

⑮ 유종열(柳宗悅)은 일본 다도와 차인들의 잘못된 점을 말했다. 나중에 〈차의 개혁〉으로 출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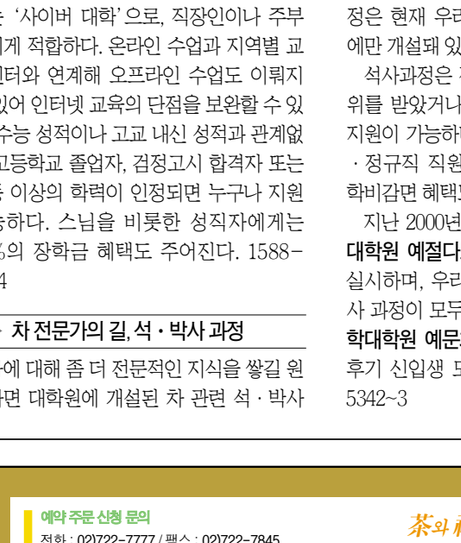
■성균관대 예절다도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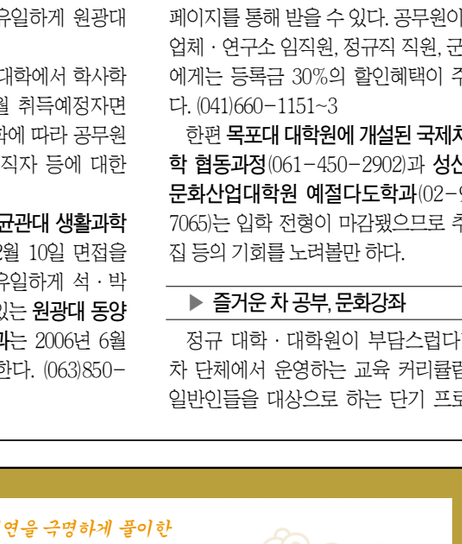
@ 표는 약(about)

한 국		중 국		일 본	
조선시대	1926 인천 여학교 다도교육 ① 조선의 차 문헌에 대하여 ② @ 만덕사 작설차 ③ 1932 조선의 차에 대하여 ④ 조선의 사원차 ⑤ 조선의 사찰과 식물 ⑥ 1933 장흥의 돈차 ⑦ 1934 구례의 다수 식재 ⑧	청대	1927 〈청사고(淸史稿)〉 ⑨ 1931 중국다엽검정소 ⑩ 1932 농촌부흥위원회 ⑪ 1933 〈종다법(種茶法)〉 ⑫ @ 허승요(許承堯)의 활동 ⑬ 1935 〈다엽전서〉 ⑭	강호시대	1931 유종열의 주장 ⑮ 1932 〈다도(茶道)〉 창간

예약 주문 신청 문의
전화 : 02)722-7777 / 팩스 : 02)722-7845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37번지
월간 다도 편집부
※ 정기구독자들에게는 할인해 드립니다.

茶와 禪의 깊은 인연을 극명하게 풀이한
차茶와 선禪 그리고 화두話頭
발간
상권 10.000원, 하권 13.000원
월간 「다도」 정기 구독자께는 상 · 하권 20.000원에 드립니다.





드디어 발간 되어 판매 중입니다.

이제 스님 과 신도들도 건강을 생각할 때입니다.
스님, 선객, 기공수련자, 일반신도를 위하여 …
태화산 광현스님이 20년 경험으로 만든 방석



법회 및 기도시 가장 편한 자세를 유지하게 하고 세라믹보드의 원적외선과 음이온,토르말린,피톤치트에 의한 건강 증대효과가 있습니다.

제품 효능
- 장시간 사용에도 가장 편한 자세 유지와 바닥의 냉기가 스며들지 않습니다.
- 척추의 만곡을 예방하여 줍니다.
- 장시간의 좌선 및 운공시에도 전신에 피로감이 오지 않습니다.
- 앉아만 계셔도 단전에 공력이 증가됨을 느끼실수 있습니다.
- 단전의 연정화기에서 연기화신을 이루어 연신환허에 까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제품 구성
- 커버 : 최고급 내자 및 원단사용
- 쿠션 : 특수제작 및 설계 메모리폼
- 열원 : 신기술 "세라믹히팅보드"
- 콘트롤러 : 온도조절 가능

제품 가격
- 스님용참선방석: 180,000원
- 참선방석 : 145,000원
- 절방석 : 75,000원
- 건강좌욕방석 : 94,000 ~ 98,000원
- 자동차방석 : 58,000/88,000원

※ 제품에 관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특허 및 인증제품

제품 특징
- 원적외선 대량방출에 의한 건식 찜질 효과
- 세라믹히팅보드를 사용하여 전자파 걱정이 없습니다. (열선이 아님)
- 세라믹히팅보드의 복사열은 땀이 차지 않습니다.
- 특수제작된 메모리폼은은 바른자세를 유지케 합니다.
- 표면에 처리된 은이온수,토르말린, 피톤치트는 살균, 정화기능이있습니다.
- 최고급원단사용 및 온도조절기능이 있습니다.



제품 구입 및 문의
- 전화: 031)429-3383 / 010-6368-3346 011-281-5619
- 홈페이지 : www.heatway.co.kr
- 제 조 원 : ㈜예간하이텍
- 계좌번호 : 농협 591-17-004807 (예금주 : 예간하이텍)

내 마음속에 일체 부처님과 통하는 통로있다

참다운 참선의 도리

문 10월 보름부터 스님들께서는 동안거를 시작하셔서 용맹정진에 들어가신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렇지만 저희처럼 세속에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사람들은 스님들처럼 조용한 장소를 택해서 좌선의 시간을 가지고 마음 안으로 정진해 나가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집중해서 하지는 못하더라도 참답게 참선을 해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까? 생활 속에서 마음을 모아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일러주십시오.

답 공부를 하는 분이라니 잘 아시겠지만 불교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근본 자체가 불(佛)이요, 일체 만물만생이 서로 통신하는 것이 바로 교(敎)입니다. 그럼으로써 불교는 어느 한 군데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아니 전 우주의 진리인 것입니다. 일분 일초도 쉬지 않고 돌아가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작게 갖지 마십시오. 마음이라는 건 체가 없어서 무한량이기도 하고 광대무변한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나부터 알아야 하는 것이듯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모든 게 무효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상대성의 원리도 있고 인연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발전도 하고 창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창조력도 기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근본이 인간의 마음의 근본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에 가설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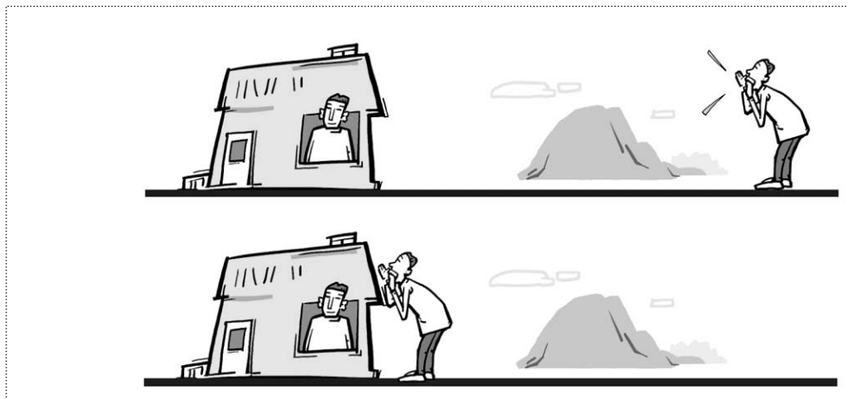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몸뚱이 속에 자기가 얼마나 많이 들어 있습니까? 최초에 생명의 발원지가 어디였던가. 미생물에서부터 진화돼서 쫓고 쫓기면서 인간까지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이 몸뚱이 속에 수십억에 달하는 생명체들, 모습들, 의식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뚱이 속의 하나하나가 그렇게 진행해 왔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신계와 물질계가 같이 작용을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그 섭리를 익혀서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자유스러운 것입니다. 몸속에 들은 모든 의식들이 모두가 내 한 몸, 내 한 의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속에 들은 의식들은 바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따라줍니다. 아주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쁘게 따라주고 선하게 생각을 하면 선하게 따라주는 그러한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한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 만법은 다 한 사람의 한마음에서 빚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해 나가면서 내가 꿈을 꾸었다든가 어떠한 나쁜 일이 있다든가 또는 상대방에서 나쁘게 다가올 때 모든 것을 좋게 해석해서, 즉 말하자면 '모든 거는 주인공이 하는 것이니까, 주인공만이 나를 이끌어 줄 수 있으니까' 하고 모든 것을 거기다 놓고 지켜보고 나가는 것이 그것이 참 도리요, 참선입니다. 앉아서 좌선을 한다든가, 좌선을 다 했다든가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참선이 아닙니다. 시간이 여유가 있고 그러면 앉아서 하고 또는 누워서도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일하면서도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서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되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 주인공에게 모든 거를 맡겨 놓고 관찰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요소든 어떠한 용도든 어떠한 과정이든 무엇이든지 일체를 거기다 맡겨 놓고 관찰을 해서 체험을 하는 것이 바로 참선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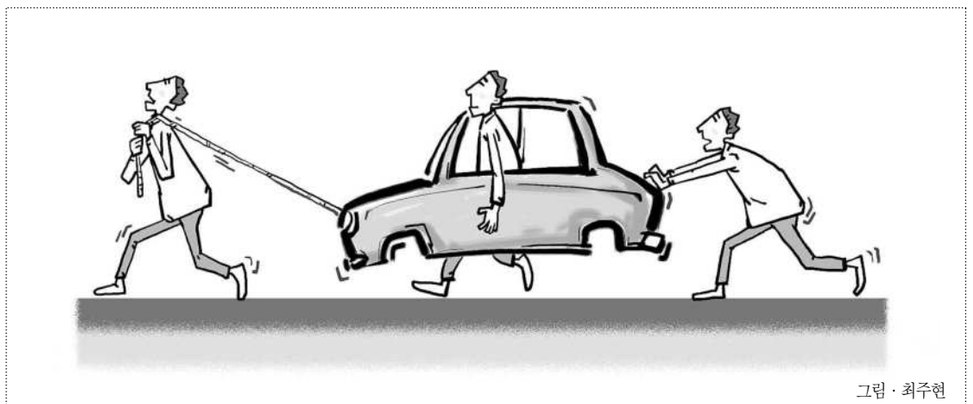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달린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관습에 의해서 모든 생각을 미약하게 하지 마세요. 한 생각을 잘하면 안에서 모든 생명들이 같이 보충해 줍니다. 생각을 잘못하면 못하는 대로 보충이 됩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인과 업으로써 현실에 나오는 것입니다. 컴퓨터에 입력이 돼서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현상을 맞닥뜨렸을 때 나쁜 조건에 의해서 나오는 거를 다시 거기에다 입력을 한다면 앞서 입력된 게 없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벗어나려면 그 자리에서 나오는 대로 다시 그 자리에 되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온갖 생활하는 것을 빼고 참선이 어디 있으며 종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생활 속에서 작은 거든지 큰 거든지 내가 하나하나 해 나가는 그 자체가 바로 참선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끌고 다니는 이 몸뚱이를 운행하는 운전수가 나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차가 운전수를 끌고 다니는 법은 없죠. 운전수가 차를 끌고 다니죠. 바로 그 운전수라는 나의 마음의 주인이 온갖 일을 다 이끌어 갑니다. 거기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이끌어 간다고 믿고 한다면, 아파서 병원에 가는 것도 법이지마는 안 가는 것도 법입니다. 갈만하다면 가는 것도 법, 안 갈 만하다면 안 가는 것도 법입니다. 병 증세나 또는 세균성이나 영계성, 유전성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니깐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모든 것을 놓고 하나하나 맡겨 놓을 때마다 관찰하는 것이 진짜 참선입니다. 관찰하면서 낫는다든가 하면 거기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뭐가 안된다든가 하면 '안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되게 할 수 있잖어.' 하고 거기다 놓을 수 있는 그것이 직선적으로 들어가는 참선인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자유스럽게 정신계와 물질계가 같이 작용을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현명하게 알아야겠습니다.


그림 · 최주현

마음공부의 좋은 점은 정법으로 들어가는 공부길이며 | 모든 애고를 녹일 수 있고 묵은 빚 갚고 햇빛을 줄 수 있어!


그림 · 최주현

그러니까 명상을 하든지 앉아서 좌선을 하든지 일을 하면서 생각을 하든지 누워서 생각을 하든지 변소에 가서 생각을 하든지 하여튼 모두가 생각하는 것은 바깥으로 끄달리지 말고 안으로 모든 것을 일임하고 들어가는 것이 말 그대로 참선임을 아시고 정신 바짝 차려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은 어디에서 생기나요?

문 고(苦)의 근원이 무엇인지요? 어디에서 고가 생겨나서 저희들을 괴롭히는 건가요? 고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통 없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답 항상 말씀드렸지만 지금 질문하신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몸 안에 들어있는 그 업식들이 현실의 여러분이 사는 데에 고통과 애고와 병고를 자동적으로 오게 하는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서 들어오는 세균성이나 또는 영계성 유전성, 이런 문제들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만이 카바를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만이 간단하게 처리해 가며 살아 갈 수 있는가 하는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공부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전자에 내가 지어놓은 대로 현실에서 겪게 되니까 마음공부를 해서 밝게 벗어나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공부의 좋은 점은 첫째는, 공부 길이 정법으로 들어가니까 좋습니다. 무슨 이 다리를 거치고 저 다리를 거치고 이거를 넘고 이런 게 아니라 직통 들어간다 이 소립니다.

두번째는, 어떠한 거든지 불바퀴에 넣으면 불에 타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마음이라는 용광로에다 넣으면 그냥 모든 게 녹아버려 내 전체 애고를 카바한다는 것이고, 세번째는, 그렇게 되면 위로 묵은 빚도 갚을 수 있고 아래로는 햇빛도 줄 수 있고 그래서 가정을 다복하고 편안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 이 소립니다.

부처님 법이란 여러분 가정을 빼놓고 우리 삶을 빼놓고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부터 부처님도 알았고, 상대성 원리도 알았고, 사랑도 알았고, 천차만별로 벌어지는 생활이 어떻다는 것도 알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고도 있고 업보도 있고 유전성도 있고 영계성도 있고 세균성도 있고 모든 게 인과성 이 모두가 붙어 돌아갑니다. 이러니 이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헛듣고 헛 넘기지 마세요. 나도 이거를 탐지하고 실험하느라고 십여 년이 걸렸습니다. 책을 읽고 조사들의 뒷발자취나 따라 다니면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내 생을 다 바쳐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인생이란 한 철 나고 누구나가 다 갈 것인데 한 철을 다 마치기 전에 내 아픔과 다른 사람의 아픔과 사생의 모든 아픔이 같다는 것도 검토를 많이 했구요. 그런데 그 고가 모두 죄가 있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몰라서 죄를 짓지 알면 죄를 짓지 않죠. 모르는 게 죄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가 자기를 긁어서 자기를 부스럼 내려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모르기 때문에 다 그렇게 짓는 거지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렸지만 내가 살아서 그 도리를 모르면 내 업식에 눌려서 한 발짝도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그 도리를 모르면 물에 빠져 죽을까봐 못 건너가고, 타 죽을까봐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대충 얘기해 드리면서 여러분 가정에 모두 성취가 있기를 항상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익이 있으라는 그 간절한 마음은 여러분이 나 아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름이 한데 모였다 흩어지면 또 딴 구름하고 모이고 수억겁 광년을 거치면서 이렇게 진화하면서 모였다 흩어지고 모였다 흩어지니까 나중에는 네 부모 내 부모, 네 자식 내 자식이 따로 없이 모두가 내 부모요, 내 자식이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공부하실 때는 가정에서도 그렇고 남들하고도 그렇고, 나쁘게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든 잘했든 내가 이 세상에 나온 탓이지 내가 없었더라면 누구와 부딪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이든지간에 모두 내 탓으로 돌려라 이럽니다. 그리고 어떠한 문제라도 고정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잘못했으면 잘할 수도 있고 잘했으면 잘못할 수도 있는 것이지 항상 잘못하라는 법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정된 게 하나도 없으니 잘 할 때까지 지켜 보다보면 언젠가는 대번 대번 돌아가게 됩니다. 자기 주인공에 맡기고 마음을 내준다면 내 마음과 같이 돌아가서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고 그저 남이 이러든 저러든 눈 똑바로 뜨고 귀 똑바로 세우고 냄새를 똑바로 맡고 생각을 똑바로 해서 모든 업식에 본이 되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야만이 집착이 없고 어려운 병고도 오지 않을 것이고, 병고가 났다 하더라도 병고가 없어질 것이고 말입니다. 만약 남을 해(害)하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도리를 찾는다면 십만팔천리로 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리를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는 진짜로 그렇게 해서 실천궁행을 하라는 요지를 내리신 거지 너희들 죽어서 천당에 가니까 그렇게 믿으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살아서 천당 맛을 보고, 살아서 지옥 맛을 보고 살아서 삶의 보람을 알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만 사람답게 사는 건지도 알게 된다는 걸 가르치신 것입니다. 세세생생 끊간 데 없이 영원한 삶에 이르기까지의 길을 인도하신 거라는 걸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광력 · 전력 · 자력 · 통신력!

문 스님 법문 중에 내 안에 광력 · 전력 · 자력 · 통신력이 충만하니 그것을 꺼내서 쓰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아직은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과연 그러한 힘이 저에게도 확실히 내재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고, 그것을 꺼내서 쓰려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답 우리가 마음공부를 하면서 조그만 거 하나에서부터 천 가지 만 가지 다가오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지수화풍으로 뭉쳐진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써 운전만 잘한다면'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운전! 우리가 지수화풍으로 돼 있기 때문에 광력이나 전력이나 자력 통신력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 몸이 빈 껍데기가 아니니까 그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오신통 안에서 벗어나서, 내 몸속에서 내 마음이 벗어나서 내 몸을 이끌고 다니고 마음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속에 들어 있는 의식들도 다 그냥 내가 지배하는 대로 따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근본인 부(父)와 현실의 자(子)가 상봉을 하지 못하고는 이 깊은 뜻은 모릅니다. 이 심오한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전화기를 내 집에 설치를 안 해놨으면 누가 내 집에 전화를 걸 수도 없고 내가 전화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바로 자성을 발견하는 데에, 견성하는 데에 역점이 있고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어 가는 데에 역점이 있고, 병고 애고를 무너뜨리고 녹이는 데에 역점이 있고, 유전성을 녹이는 데 역점이 있고, 또는 영계성 인과성 세균성을 카바하는 데 역점이 있는 공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간은 지수화풍으로 바탕이 돼 있어서 지수화풍을 먹고 살면서도 감사한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물이 없으면 전력이 없듯이 광력이나 전력, 자력, 통신력이 인간에게 각자 주어져 있지 않다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를 알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재료입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서 고등동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오신통이라는 굴림을 굴리는 작업이 있습니다. 오신통이라는 그 자체는 바로 우리가 심안으로 보는 것을 말하고 무전 통신기처럼 말하는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소리가 안 나는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천안통 천이통'이럽니다. 또 신족통,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는 이 대자연의 법칙이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광력이나 자력, 통신력, 전력이 우리한테 얼마나 좋은가를 한번 또 들려 드릴까요? 통신력은 왜 있는 줄 아십니까? 바깥에서 누가 왁작왁작하고 싸우고 그러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결정적으로 누가 잘못했는 것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과 귀와 코로 모든 것을 동시에 알 수 있듯이 안에서 고장난 거는 안에서 병력을 쓰고 동시에 모든 것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는 것이 바로 마음이기 때문입니

☞30면으로 계속

부처될 자격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29면에서 계속

다. 마음으로 오고 가는 것은 천리만리라도 한 찰나에 왔다가 한 찰나에 갑니다.

지극한 마음의 불을 켠다면 부처님께서 응신이 되셔서 응해주십니다. 부처님의 천백억화신이 응신이 돼서 나투실 때, 그게 통신력인 것이죠. 통신력이 충만하다면 자력도 충만합니다. 모두 여러분이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못 쓸 뿐이지 누구나가 다 갖추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될 수 있는 자격은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실험을 합니다. 실험을 직접 하는 겁니다. 뭐 누구한테 물어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실험을 그냥 하는 거예요. 자력과 통신력, 광력, 전력이 다 여러분한테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로 믿고 실천을 하는 데에서 아주 멋진 게 나올 수 있습니다. '멋진 게'라는 것은 묘법이란 뜻입니다. 묘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불가사의한 법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우리들이 지니고 있는 거예요. 뭐 불가사의하다 이러고 아주 위로 볼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니깐요. 들어보지도 못하고 먹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모두들 모르는 것이지 한번 실험해 보고 체험해 본다면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전에 자장면 한 그릇을 먹어 봤기 때문에 그 맛이 생각이 나는 거구나. 그때 그 자장면 참 맛 좋았어!' 이렇게요. 그런데 그걸 먹어보지도 않고 보지도 못했다면 생각이 뭐 납니까?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그러니깐 여러분은 항상 열심히 법문을 들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열심히 들으심으로써 속의 업식들이 전부 들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마음이 듣는 순간 수십억의 의식들이 들어요. 듣는 대로 그대로 반영을 해요. 마음으로 듣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공덕이 될 겁니다.

무엇이든 일체를 근본에다 맡겨 놓고 관찰을 해서 체험하는 것이 바로 참선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문 스님, 저는 직원이 십여 명 정도 되는 조그마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잘 안됐든지 할 때는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참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남이 저를 괴롭힐 때 남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스님의 법문을 듣거나 할 때는 그렇게 안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다가도 생활 속에서는 그게 잘 안됩니다. 이러한 옹졸한 마음을 어떻게 하면 현명하고 지혜 있게 바꿀 수 있을지요?

답 그러니까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 운전수한테 '차를 잘 끌고 다니게 하고 위로는 기름도 떨어지지 않도록 기름을 잘 넣어가지고 다녀라.' 이렇게 하시란 얘깁니다. 운전수가 차를 끌고 다니지 차가 운전수 끌고 다니는 것 보셨습니까? 그러니깐 차를 부서뜨리지 않고 조심해서 잘 끌고 다니는 것도 운전수요, 또 기름을 떨어뜨리지 않고 잘 넣어가지고 다녀서 사고 안 나게 하는 것도 바로 운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어떠한 사람이 아주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한테 다가서더라도 '아, 저 사람하고 나하고도 둘이 아닌데, 생명의 근본도 둘이 아니요, 마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불가사의한 법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우리들이 지니고 있는 거예요. 뭐 불가사의하다 이러고 아주 위로 볼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니깐요. 들어보지도 못하고 먹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모두들 모르는 것이지 한번 실험해 보고 체험해 본다면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전에 자장면 한 그릇을 먹어 봤기 때문에 그 맛이 생각이 나는 거구나. 그때 그 자장면 참 맛 좋았어!' 이렇게요. 그런데 그걸 먹어보지도 않고 보지도 못했다면 생각이 뭐 납니까?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그러니깐 여러분은 항상 열심히 법문을 들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열심히 들으심으로써 속의 업식들이 전부 들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마음이 듣는 순간 수십억의 의식들이 들어요. 듣는 대로 그대로 반영을 해요. 마음으로 듣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공덕이 될 겁니다.

을 내기 이전도 둘이 아니다. 그러니 마음을 밝게 해서 그저 한마음이 되게 당신만이 할 수 있어.' 하고 거기다 맡겨 보세요. 그러면 상대에게 나가던 증오심이 스스르 내려놔지게 됩니다. 그 어떤 것도 거기다 다 맡기시고 그냥 편안하게 생활하세요.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사량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를 망하게 했다고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즉 말하자면 '나는 당신의 시자니까, 내가 사량으로 아무것도 모르면서 남을 오해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됐을 때 잘못됐다고만 할 게 아니라 잘할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기니까, 하여튼 모든 것은 당신만이, 의합하게 같이 불이 들어와서 같이 밝은 데서 살게끔 당신만이 할 수 있어.' 하고 거기다 맡겼을 때에 그 사람 가슴에도 불이 들어와서 내 마음과 아주 하나가 되니 나중엔 사과를 하게 됩니다. 더 친절해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깐 회사의 사장이니 회장이니 이런 분들이 먼저 마음공부를 해나가면 직원이 수백 명 수천 명 되는데도 끄떡없이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 명 안팎으로 있으면서 그거를 하나 리드 못해 나가겠습니까? 여러분이 통로를 잘못 찾아 들어갔다면 그 통로는 영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금맥이 나올 수 있는 통로를 찾아야 진짜 금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듯이 사람의 마음속에 통로가 있다는 걸 믿으라는 말입니다! 부처님 거죽을 믿으라는 게 아니고, 그림을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 골수를 알고 부처님 마음을, 둘이 아니라는 그 도리를 알고 그 마음을 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의 통로가 아니라면 역대 조사들이나 역대 부처님들의 마음을 모를 겁니다. 아니,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의 마음도 모를 텐데요! 이 말이 틀렸습니까? 그러니 어떤 괴로움이 있다 해서 어디 찾아다니면서 얘기할 게 아니라 '스님들이나 역대 조사들이나 일체제불이 다 내 한마음 주인공 속에 있구나, 그러니 여기에서만이 해결을 할 수 있다.' 하고 무조건 믿고 내려놓는 겁니다. 왜 이런 게 있죠. 무조건 용광로에 넣는 작업만 하니까 무조건 새 쇠로 생산이 돼서 나가더라, 이런 거 말입니다.

그 마음속에 통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잘못 해도 거기다가 맡겨 놓고 인의롭게 부드럽게 말해 주고, '당신만이 저 사람의 물리가 터지게 해줄 수 있어, 바로 우리 직원들을 말이야.' 하고서 맡겨 놓고 부드럽게 '잘 몰랐을 때, 잘 못했을 때의 내 모습이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미운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잘못될래야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거를 다 진짜로 믿는다면, 진짜로 믿는다면 고꾸라지든지 가든지 오든지 그런 걸 상관 안 하고 거기다 턱 맡기게 되니 진짜로 아무 괴로움이 없어요. 돈이 많이 벌려도 걸림이 없구요. 돈이 안 벌려도 '너만이 할 수 있다' 하고 거기다 놓기 때문에 괴로운 게 없어요. 그런데 믿지 못하는 까닭에 그렇게 괴롭게 사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열심히 무조건 믿고 거기 맡겨 놓고 지켜보시고 그러세요. 그러고 거기에 걸림이 없어야 됩니다. 몇 만냥을 벌더라도, 또 욕심을 내서 '저걸 벌어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이 나도 당신 혼자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닙니다. 수십억의 의식들이 한데 모아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모든 도리를 간단히 생각하세요. 돈을 수만, 수만억을 번다하더라도 걸림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도 자기 혼자 갖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 번 것도 아니니 혼자 가질 것도 아니고, 혼자 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 걸립니까. 내가 이렇게 많이 버니까, 내가 많이 번다고 하는 '내가'라는 생각이 나를 내세우기 때문에 그게 걸리는 거지, 내 한마음이라는 주인공에서 본다면 그렇게 나가 많은데, 일체가 다 나 아님이 없는데 구태여 왜 거기 걸립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더 열심히 관하고 지켜보고 내려놓고 하면서 일체를 나와 같이 보는 안목을 키워나가면서 더 편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하세요. 그거는 여러분의 마음을 증득해야 알게 됩니다.



그림 · 최주현

"1천원으로 부처님 말씀 전하세요"

최상의 보시인 법보시 공덕을 지으세요

● **참여방법**
- 현대불교 매월 '법보시 후원금' 1구좌 1,000원 이상
- 현대불교신문 보내는 곳 : 군부대, 교도소, 경찰서, 병원법당, 복지시설 등
-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06-01-0783-830 / 농협 053-01-23605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자동이체로 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자동이체 신청은 전화 한통화로 해결됩니다.

● 문의: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02)2004-8211, 8212 팩스(02)737-0697

부처님 호흡법

참선기초 기본수련

"자동 단전 복식 호흡법"의 비밀이란 ?

◆**자세법** : 가부좌, 반가부좌, 평좌, 무릎 꿇기, 고두례 변형자세 쪼그리고 앉은 자세, 장궤자세, 일어선 자세, 행선, 와선

◆**호흡법**
- **들숨** : 배꼽아래 3치 단전이 아닌 치골부분으로 짧고 간명하게 숨이 저절로 내려가며, 가슴 차크라와 단전혈이 열려서 부처님과 인연된 가장 밝은 기운이 모이며, 감정통제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끊임없이 나와 마음이 저절로 조율되어 일체의 근심걱정, 성냄, 스트레스가 사라진다.
- **날숨** : 가늘고 길고 부드럽고 고요하게 저절로 쉬어지며 엔돌핀, 다이놀핀, 토파민 등의 쾌적 · 쾌락 호르몬이 나와 에너지로 전환될 때 뇌파에서 α파 파장이 나오며 수행 삼매를 체험하게 된다.

「숨을 氣차게 잘 쉬는 법 · 절을 氣차게 잘 하는 법 참고 바람 (청견스님 지음)」
- ⊙ 몸과 숨의 감각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음을 보는 알아차림의 또렷한 경지를 초보자도 쉽게 경험하게 되는 가장 쉽고 효과적이며 빠른 수행법으로 고요하며 맑고 밝은 지혜를 체득한다.
- ⊙ 참선, 위빠사나, 절, 염불, 독경, 요가 (컴퓨터 · 수험생) 수행 후,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뜨겁고 하품이 나오면 호흡수행을 잘못한 것으로 수행을 중단해야 한다.
- ⊙ 코골며 입 벌리고 잠잘 때 가슴이 막히고 몸이 차가워지며 단전복식호흡이 되지 않아 뇌의 산소부족으로 언제나 피곤하고 정신이 맑지 않아 수행의 가장 큰 적이 되며, 만병의 근본원인이 되고 불행의 길이다.
- ⊙ 가장 완벽한 예방의학이며 치유가 확실한 대체의학으로 「상기병, 황뇌병, 당뇨, 고혈압, 소화불량, (복부)비만, 손 · 발 · 배 · 허리 냉증, 무릎병, 디스크, 안구건조, 피부거침, 아토피, 천식, 비염, 불면증, 우울증」 등을 수행을 통해 극복한 수 많은 체험 사례들이 있습니다. (법왕정사 홈페이지와 다음카페 참고 바람)

◆**수련일시**
- 서울 군자법당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4시,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
- 부산 금정법당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4시,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

※ 신규 수강생은 청강수강 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법왕정사 서울 군자법당 02)456-0035 부산 금정법당 051)583-7886 청 견 스 님 011-9088-9449

http://cafe.daum.net/sorisan, www.dkt.or.kr

"법회때마다 음향 때문에 고생 하셨다면 …"

사찰에 설치된 음향이 대부분 단순히 확성기능의 음향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 저렴한 가격에 스님의 법문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음향 시스템을 갖추십시오.

취급브랜드 JBL dbx AKG MACKIE crown



믿을 수 있는 회사와 제품을 원하신다면 스님이 운영하는 **(주)야단법석**과 상의 하십시오

전화 주시면 무료로 점검 및 음향 설계해 드립니다.

야단법석 문의 : 050-5844-0108 (관음사업부)

사원 모집 ㈜**야단법석**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불법에 대한 신심을 더 중요시하는 회사입니다. 신행생활을 하면서 안정된 직장생활을 원하시면 야단법석과 함께 하십시오.

- 모집구분 : 지점장 - 남 0명, 여 0명. 사원 - 남 0명, 여 0명
- 근 무 처 : 본인 거주지 • 문 의 : 050-5244-0108

황우석박사님
당신은 세계 난치병환자의
등불이며 우리 영웅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희망이라 부릅니다.

참여불교운동본부
상임대표 혜총

출장녹음

지난 10년간 국내외 5백여 사찰과 스님들의 독경과 법문을 제작하여 온 명실공히 전국 유일의 불음전문 녹음실
스님! 이제 녹음을 하기위해 스튜디오를 찾아 먼길을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스님계신 곳에서 완벽하게 무잡음 디지털 방식으로 녹음하여 마음에 쏙 들게 테이프나 시디(CD)로 제작하여 드리겠습니다.

달리녹음실에서 녹음하신 스님과 단체

선학원 남산스님, 조계종 서암스님, 법연원 조연스님, 통도사 정암스님, 법화종 구암스님, 문화재 혜강스님, 문화재 청공스님, 문화재 진하스님, 문화재 혜철스님, 혜각스님, 혜관스님, 자명스님, 원명스님, 자원스님, 등광스님, 성문스님, 범진스님, 지우스님, 총묵스님, 구화산 인덕스님, 지홍스님, 일홍스님, 월곡스님, 상묵스님, 혜성스님, 덕일스님, 효재스님, 현장녹음 : 불교방송, 일본장생단광천도재, 티벳한, 티벳불교문화교협, 몽고한, 몽불교문화교협, 민속문화대축전 등 .... 이하생략

佛音專門 **달리녹음실**

0502-555-1040
080-115-8008

따뜻한 밥에 김치 한쪽 산해진미 따로있나



김장철, 김치로 건강 지키세요

김장철인 요즘 우리나라 대표 음식인 김치의 다양한 효능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김치의 항암효과는 익히 알려진 사실. 동맥경화 빈혈 등 성인병 예방과 생체리듬조절, 질병회복 효과 등도 속속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일부 수입김치에서 기생충 알 등이 나오면서 뚝 떨어졌던 김치의 신뢰도는 조류인플루엔자에 효과가 있다는 미국 언론 보도로 다시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전통 발표식품의 대표 브랜드 김치의 효능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최근 조류인플루엔자에 효과 증명되며 세계적 관심

김치는 배추 무 등을 비롯해, 고추 생강 마늘 파 등 다양한 종류의 채소로 만들어진다. 때문에 저열량 식품이면서, 식이섬유가 풍부하다. 특히 비타민과 무기질의 좋은 공급원으로 비타민C, 베타카로틴, 비타민B군이 많으며 칼슘 구리 인 철분 등이 많은 알칼리성 식품이다. 각 재료는 한방 재료로 쓰일 만큼 각각의 효능도 지니고 있다.

김치의 주재료로 이용되는 배추 등의 채소는 대장암을 예방해주고, 마늘은 위암을 예방해 준다. 김치는 베타카로틴의 함량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폐암도 예방할 수 있다. 또 고추의 매운 성분인 캡사이신은 엔돌핀을 비롯한 호르몬 유사물질의 분비를 촉진시켜 폐 표면에 붙어 있는 니코틴을 제거해준다.

이러한 재료들이 섞여 적당한 숙성기간을 거치면 김치만의 독특한 맛과 향을 지니게 된다. 이런 김치를 먹으면 사람이 하루 동안 필요한 비타민C의 80%이상을 섭취할 수 있다.

김치에는 알리신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항생 물질도 포함돼 있다. 특히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은 알카리를 공급해줘 체액의 균형을 조절해 준다. 젓갈과 싱싱한 해산물들도 양질의 아미노산을 공급해 준다.

이외에도 김치내에 살아있는 유산균은 장내 미생물 대사 활성에 영향을 주어 대장암 예방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김치는 칼로리를 제공하는 영양소라기보다 여러 종류의 비타민과 칼슘을 공급하는 식품이다. 젓갈류에서 공급되는 아미노산과 김치의 발효 · 숙성에 따른 유기산, 고추 마늘 생강 등에 들어있는 여러 종류의 특수 성분이 김치의 영양학적 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평가된다.

김치는 숙성되면서 점점 더 많은 비타민 함량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타민 함량이 숙성초기에는 약간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완숙기인 2~3주째에 가장 높은 함량을 가진다.

부산대 식품영양학과 박건영 교수에 의하면 김치는 ▲식욕촉진 ▲다이어트 ▲변비 및 대장암 예방 ▲유산균 생균제(1억 마리/g) ▲콜레스테롤 감소 동맥경화 예방 ▲항산화효과, 피부 등 노화 억제 ▲항암효과, 면역증강효과 등이 있다.



하루 비타민C 80% 섭취 효과
젓갈류 양질의 아미노산 공급
고추 캡사이신성분 비만 예방

박 교수는 "김치가 채소류의 신선한 맛, 젖산 발효에 의한 상쾌한 맛, 고춧가루 등 향신료에 의한 독특한 맛, 젓갈류의 감칠맛이 어우러져 식욕을 돋운다"는 점을 강조한다. 김치는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고추에 포함된 캡사이신은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비만예방 및 치료 효과가 있다.

김치가 숙성함에 따라 증가하는 유산균과 식이섬유는 정장작용(整腸作用)과 함께 발암물질의 활성을 떨어뜨린다. 김치는 몸에 나쁜 혈청 콜레스테롤을 양도 감소시킨다. 거기에 혈전을 만드는 피브린의 분해를 활성화시켜 동맥경화를 예방한다.

김치에 포함된 비타민C 베타카로틴 페놀 화합물 클로로필 등 항산화 성분이 노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파 마늘 고추 생강 등의 재료도 항산화성을 지니고 있어 적당히 숙성된 김치에서 노화억제 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김치 유산균의 효과

살아있는 유산균 장내청소 도와

김치 유산균의 대표적인 효과는 정장작용이다. 김치 유산균은 김치가 발효될 때 아세칠콜린(부교감신경계의 신경전달물질)의 합성에 관여한다. 이 성분이 유산과 함께 장내 소화효소 분비를 촉진시킨다. 또한 유산균에 의해 생성된 식이섬유소 덱스트란(다당류의 하나) 역시 장내 소화물질의 이동을 도와 장내 청소를 해준다.

정장작용에 이은 두 번째 효과는 항균작용이다. 김치의 유산균은 바람직하지 않은 균들의 생육을 저해하는 특성을 갖는다.

김치의 유산균이 발효 중에 비타민B군을 합성하는 효과는 세 번째 장점이다. 발효 조건에 따라 1.5~2배 이상 비타민 생성 효과를 낸다.

마지막으로 항암작용을 들 수 있다. 김치 유산균이 갖는 돌연변이 및 종양생성 억제 작용에 의해 대장암 등에 효과가 있음이 입증됐다.

사찰 김치는?

단감, 배, 홍시 등으로 담백한 맛 살려

사찰요리전문가 홍승 스님은 "금방 절여서 먹는 겉절이 등에 단맛을 내는 단감 · 배 등을 넣는다"고 말한다. 김장 김치에는 배 · 단감을 넣지 않는다. 숙성과정에서 뭉그러져 그 맛을 잃기 때문이다.

김장할 때는 홍시를 갈아서 넣는다. 고춧가루를 버무릴 때 홍시를 갈아 그 물을 사용하면 김치의 맛이 시원하고 담백해진다.

스님은 "김치를 처음 담갔을 때 단맛을 내는 홍시는 김치가 숙성되면서 단맛과 함께 신맛을 내 김치의 깊은 맛을 더한다"고 설명했다.

마늘 파 젓갈 등을 사용하지 않는 사찰 김치는 최소한의 고춧가루와 생강, 갓으로 매콤함을 갖춘다.



부유물 위치로 병소(病所) 가늠

오줌의 냄새로 한병과 열병을 감별한다. 냄새가 역하고 진하면 열병 별로 역하지 않고 순하면 한병 병증이다. 오줌의 냄새는 섭취한 음식과도 관련이 깊다. 오줌에서 어떤 음식물 비슷한 냄새가 나면 그 음식에 식상했다는 증거이다. 고기 냄새가 나면 그 고기에 식상했다는 표시고 과일 냄새가 나면 그 과일을 질리게 많이 먹었다는 뜻이다.

오줌의 거품 역시 여러 병증을 드러낸다. 건강한 정상 오줌은 거품이 없거나 양이 적고 크기도 고르게 퍼져있다. 거품의 색도 요색과 다름없다. 나무막대로 휘저어서 거품이 야크눈알처럼 크고 초록빛을 띠면 륭병 병증이요, 크기가 잘고 노란색이며 금방 사라져버리면 티빠병 신호이며, 우리의 타액처럼 크기가 잘고 끈적이며 오래 사라지지 않으면 베껜병 표시이다. 또 거품이 피가 섞인 듯이 붉은색으로 크기나 사라지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면 혈병증(血病症)이다.

크기가 다른 거품들이 무지개빛을 띠면 중독병증이라는 표시다. 거품을 나무막대로 휘저었을 때 총소리에 새떼 흩어지듯 삽시간에 주변으로 사라져버리면 병이 벌써 온몸에 퍼졌다는 확산병증으로 한 · 열(寒 · 熱) 어느 병증에서도 관찰될 수 있다.

오줌이 미지근하게 식었을 때는 부유물과 침전물(앙금)을 중점적으로 관찰한다. 그것들의 위치와 형태 색깔이 진단에 큰 단서가 된다. 오래 서 있으면 오줌에 혹 부유물이 생길 수도 있으나 건강한 정상 오줌에는 찌끼나 앙금이 거의 없다.

그러나 오줌이 미지근히 식었을 때 찌끼나 앙금이 보이면 병이 있다는 표시이다. 보통 부유물은 부드러운 양털 모양으로 보인다. 그 색조 형상 위치를 잘 살펴보면 여러 병증을 가려 낼 수 있다.

부유물이 양모(羊毛)와 같이 가늘고 길며 나무막대로 휘저어도 묻어나오지 않으면 륭병 병증이다. 목화송이처럼 가운데는 꽉 차고 주변부는 엉성하게 느슨해져 있으면 티빠병 병증이다. 털끝처럼 짧고 말총 모양으로 오줌과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경계가 모호하면 베껜병 병증이다. 하얀 구름처럼 떠다니고 속에 암녹색이 섞여 있으면 폐병 병증이다. 고름 모양의 부유물이 보이면 농양 병증이다. 가는 모래 모양의 부유물이나 침전물이 생기면 신장병 병증으로 해석된다. 황금모래 모양이면 요로폐색증 병증을 시사한다. 남성들의 경우 조루증으로 고생들 하는데 오줌을 보면 그 희끄무레한 부유물이 바닥에 두텁게 깔려있다.

오줌 표면에 뜬 찌끼도 병증의 감별에 중요하다. 표면에 뜬 찌끼의 피막(皮膜)이 두꺼우면 열병 얇으면 한병 병증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얼마간 놓아두어 피막이 조각조각 갈라지면 종괴 혹은 종양이라는 시사이다.

부유물의 모양이나 색깔 못지않게 그 위치도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부유물의 위치를 보면 병소를 가늠할 수 있다. 보통 부유물의 위치는 상중하 세 층으로 나누어 본다. 상층에서 부유물이 보이면 병소가 횡격막 상단 즉 심장이나 폐에 있다는 표시오 중층에 있으면 상복부 또는 간 지라 쓸개 횡격막에 있다는 표시이다. 마지막으로 침전물이 바닥에 깔리면 하복부에 병이 있다는 표시여서 골반 콩팥 방광 소장 생식기관의 병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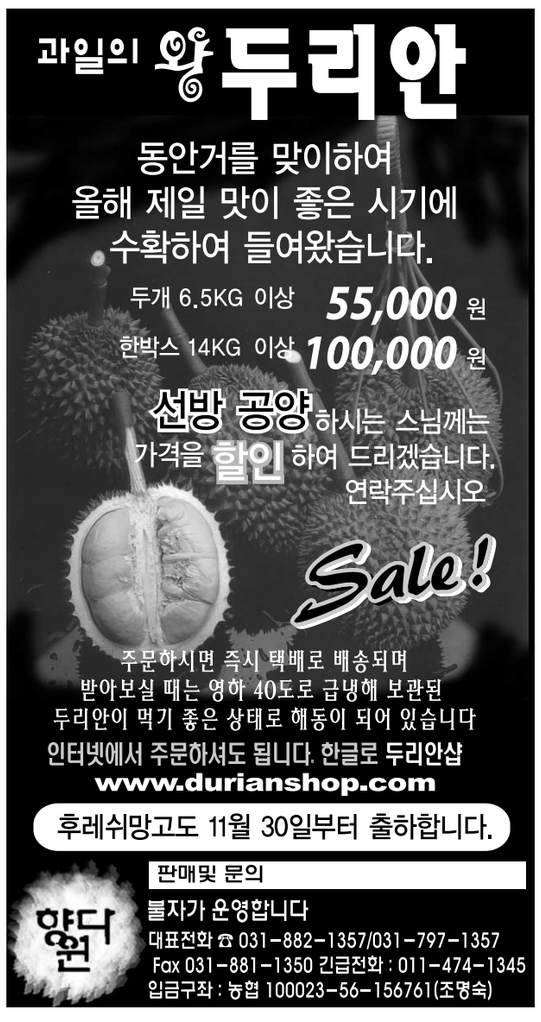
오줌 냄새 역하면 열병, 순하면 한병 증세
피육 썩는 악취, 청색무취일 때는 죽음 신호

오줌이 완전히 식었을 때는 그간의 변화상을 주로 살펴본다. 식은 오줌을 나무막대로 휘저어 거품이 금방 사라져버리면 열병 사라지지 않고 오래 남아있으면 한병 병증으로 본다. 또 막대로 휘저은 후 거품이 시뇨(試尿) 사발 바깥쪽부터 사라지면 한병, 사발 안쪽부터 사라지면 열병이라는 의미이다.

요색의 변화도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실마리다. 오줌을 잠시 놓아두었을 때 색의 농도가 더 짙어지면 열병을, 별 변화가 없으면 한병을 앓고 있다는 표시이다. 항상 김이 다 사라진 직후에 변화가 생기면 한열(寒熱)이 혼합된 병증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오줌이 피같이 붉고 피육 썩는 악취나 시큼한 우유냄새가 나면 죽음이 임박했다는 신호이다. 요색이 청색이고 아무런 냄새나 김도 없고 거품에도 변화가 없어도 역시 죽음이 임박했다는 징후이다.

■아주대교수 · 한국티베트의학원장





척추 골반교정 초능력氣 특강비법 전수

비틀어진 척추가 만병의 원인! 척추신경 바로잡아 모든 병 없앤다.

각 척추에 의한 영향

특전
수료자는 본협회, 단증 수료증 부여 (선착순 약간명)

수련안내
- 주 간 반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6시(5주)
- 주 말 반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6시(5주)
- 장 소 : 본 협회(총본관)
- 수련비용 : 50만원(속성반)

※ 협회장 직접 전수함

수련과정
목, 어깨, 오십견, 좌골신경통, 짝다리, 특수교정법, 카이로프락틱, 명상 혈문여는법, 기공술(이론과 실기 위주)

평생 활용 할 수 있는 제 3의 대체요법

(종교법인) (특허등록)
대한불교기공활법협회
대불카이로프락틱협회
총본관 053)357-0204~5 FAX 053)357-0237
http://www.dsa21.com

중요무형문화재 혜공스님의 영산의식 시리즈 (비디오, DVD출시)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학장이신 혜고 스님께서 불교의식을 비디오와 컴퓨터 등에서 볼 수 있는 DVD를 따라하기 쉽게 학습용으로 촬영, 아래와 같이 제작출시 하였기에 필요한 제품이 있으면 주문바랍니다.

아 래

1.대령/관욕 2.상주권공 지장불교의식 3.상용영반 4.회심곡(화청)1 5.회심곡(화청)2 6.구병시식 7.관음시식 8.점안의식 9.방생의식 10.사물 다루는 법 11.안택 12.시다림 13.산신불공 14.미타불공 15.신중불공 16.관음불공 17.지장불공 18.삼대화상증명불공 19.종사관욕 20.종사영반 21.가사불사의식 22.신중작법39위 23.간단한 신중작법 24.전통조석예불 25.천수경/장엄염불 26.상주권공/각배/영산염불 27.사시상단불공 28.작법무(복청게전수) 29.작법무(시방찬소리도량게) 30.작법무(욕건만다라선송다게작법) 31.작법무(향수나열사다라니) 32.삼보통청 33.아침저녁종성 34.향수해례예불 35.혼자서 하는 민관욕(간단한 관욕) 36.생일불공 37.상주권공48제의식1 38.상주권공48제의식2 39.상주권공48제의식3 40.상주권공48제의식4 41.제사불공 42.삼신이운 43.혼자서 하는 간단한 49제의식1 44.혼자서 하는 간단한 49제의식2 45.화엄시식 46.약사여래불공 47.교재2권 100,000원

※ 제8기 의식대학 교육생을 모집하며, 범패 동계특별교육을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4박5일간 실시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 비디오 반이상 구입시, 5일간 교육테이프 14개 증정합니다.
◆ 비디오 각 25,000원 / DVD 각 30,000원
◆ 농협계좌 641010-56-000296(노연숙)
◆ 제품구입처 : 종무소 062)362-8604 혜공 스님 011-624-8604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학장 혜공 스님

웰빙시대 우리집 건강지킴이
신비의 황토침대 · 황토손 · 황토불판

황토는 오랜 세월동안 태양에너지를 흡수하고 있는 규소성 광물로서 흔히 '태양에너지 저장고'라고 불립니다. 표면이 넓은 벌집구조로 수많은 공간이 복층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구멍안에는 원적외선이 다량 흡수, 저장되어 있어 열을 받으면 발산하여 다른 물체의 분자활동을 자극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황토손 · 황토불판은 살아있는 생명체라 하여 엄청난 약성을 가진 무병장수의 흙으로 사용되어온 황토의 장점을 고스란히 담은 우리집 건강 지킴이입니다.

사찰이나 가정에 황토방을 시공해 드립니다.

손의 혈액순환을 위해 황토손 위에 올려놓은 모습

황토손의 탁월한 효능
1. 정화작용 및 해독제 역할
2. 인체의 순환작용
3. 통증의 완화작용
4. 신진대사 촉진

황토침대에서 숙면을 취하면 기운이 되살아나 건강을 지키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황토불판에서 알콜 요리의 맛을 느껴 보십시오.

황토불판에서 고기를 굽는 모습

● 제품 가격 : · 황 토 침 대 (1인용) : 1,500,000원 · 황토손 + 황토수건 : 20,000원 · 황토불판 + 황토쇠판 : 25,000원 · 황토손 + 황토불판 셋트 : 45,000원
● 입금 계좌번호 : · 농 협 : 178990-56-003521 (이점숙) · 대구은행 : 023-07-473126-001 (이점숙)
● 구입 문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543-1 중앙시장 108호 대구 · 경북지사장
011-817-9364 · 017-804-0215 · 053-585-9364 이노사나 합장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연말연시 마하몰 특가상품 지상기획전

파격적인 가격을 지면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불자들을 위한 난방기 특별보급 행사

신일 세라믹원적외선 석유열풍히터

강약조절기능 / 쾌적난방 / 양면방사 전환기능



역화1호 22평형

소비자가 : ~~₩850,000~~
특별보급가 : ₩690,000

SBH-011 TSI

- 발열량 : 10,000Kcal/h
- 탱크용량 : 45ℓ
- 연료소비량 : 1.02~1.35ℓ/h
- 외형치수 : 950×305×1,180mm
- 자동확인 LCD창
- 리모콘 조절
- 사용전원 : 220V 60Hz
- 미니소음기 및 연통

역화2호 32평형

소비자가 : ~~₩980,000~~
특별보급가 : ₩790,000

SBH-041 TMI

- 발열량 : 14,000Kcal/h
- 탱크용량 : 45ℓ
- 연료소비량 : 1.46~1.80ℓ/h
- 외형치수 : 950×305×1,350mm
- 자동확인 LCD창
- 리모콘 조절
- 사용전원 : 220V 60Hz
- 미니소음기 및 연통

신일 전기온풍기



역화3호 6~7평형

특별보급가 : ₩188,000

SBH-3000 CTI

- 최대발열량 : 2,600Kcal/h
- 소비전력 : 강 3,000W, 약 1,800W
- 외형치수 : 390×330×846mm
- 2중 안전장치, 이동형바퀴 채용
- 강 약 터보 풍속조절, 7시간 30분 타이머
- 음이온 발생
- 리모콘 타입
- 프리+헤파+카본필터 채용

신일 원적외선 세라믹 히터

좌우회전기능 / 2단계 강약조절 / 상하각도조절기능 / 전도소화장치 / 과열안전장치



역화4호

소비자가 : ~~₩60,000~~
특별보급가 : ₩48,000

SEH-961 BCT

- 발열량 : 820Kcal/h
- 3시간타이머



역화5호

소비자가 : ~~₩52,500~~
특별보급가 : ₩42,000

SEH-900 WBK

- 발열량 : 820Kcal/h



역화6호

소비자가 : ~~₩65,000~~
특별보급가 : ₩5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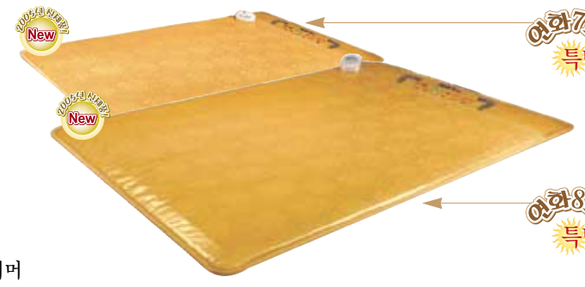
SHE-800 HGK

- 발열량 : 780Kcal/h
- 3시간타이머

신일 원적외선 할로겐 히터

Nikko 금나노 웰빙 매트

금나노 코팅으로 항균처리된 Well-being 시대의 맞춤 제품



역화7호

특별보급가 : ₩98,000

WW-214S (1인용)

- 사용전원 : AC 220V/60Hz
- 소비전력 : 180W~190W
- 제조국 : 한국
- 규격 : 1,000×2,000

역화8호

특별보급가 : ₩115,000

WW-215D (2인용)

- 사용전원 : AC 220V/60Hz
- 소비전력 : 180W~190W
- 제조국 : 한국
- 규격 : 1,000×2,000

제품 특장점

금나노 코팅으로 항균·멸균작용 / 세련된 디자인으로 신개발된 조절기 사용 / 건강·웰빙시대에 적격한 제품 / 100% 완전 방수천 / 최고온도 70℃에 비해 저렴한 전기세로 난방효과 최적격

달마도의 대가 범주·고담스님 달마작품 특별보급전

고당스님작품



선서화 백자 도자기
~~₩250,000~~ → ₩120,000
우리나라 선서화의 최고 권위자인 선필고당스님의 작품으로 경제적인 풍요와 번영을 기원하는 용문, 가족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거북문, 만사형통을 비는 축원문을 도자기에 담아 작품으로 만든 선서화도자기임



용문 달마 흑자 도자기
~~₩250,000~~ → ₩120,000
경제적인 풍요와 번영을 기원하는 용문과 달마도를 금분으로 도자기에 담은 최고급 작품도자기



달마도 백자 도자기
~~₩230,000~~ → ₩110,000
백자에 금분으로 달마도와 반야심경을 그대로 담았으며 보기만 하여도 신비함과 중후함이 느껴지는 최고급 작품도자기



용문 달마 흑자 도자기
~~₩230,000~~ → ₩110,000
흑자에 금분으로 달마도와 반야심경을 그대로 담았으며 보기만 하여도 신비함과 중후함이 느껴지는 최고급 작품도자기



친필 달마도 족자
~~₩150,000~~ → ₩99,000

범주스님작품

범주스님 달마작품 수익금의 일부는 사할린 우리말방송국돕기 성금으로 쓰여집니다.



달마도청자도자기
~~₩230,000~~ → ₩120,000
30여년간에 걸쳐 수행 참선과 달마도 선묵화 해오신 범주스님께서 한점 한점 축원을 담은 친필 달마도를 소장하기 좋게 청자도자기에 담아 선의 정신을 전달하여 맑고, 밝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특별사은품



범주스님 친필휘호



포대화상백자도자기
~~₩230,000~~ → ₩120,000
30여년간에 걸쳐 수행 참선과 달마도 선묵화 정진을 해오신 범주스님께서 한점 한점 축원을 담은 친필포대화상도를 백자도자기에 담은 것으로스님의 상스러운 기(氣)에 의해 맑고, 밝은 기운만을 불러들여 복(福)이 가득한 삶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특별사은품



범주스님 친필휘호



전신달마도접시
₩50,000
■ 31cm × 3.5cm

순금카드세트
₩40,000
■ 5.1cm × 8.6cm



포대화상접시
₩50,000
■ 31cm × 3.5cm



친필달마도 액자
~~₩380,000~~ → ₩198,000

특별사은품



전신달마도접시 + 순금카드세트



날마다좋은날되서



서기운집



용맹정진



일체유심조

마하몰 고객센터 02)732-1520 (02)2004-8218~9

국민 006-010785-361 농협 053-01-265785 우체국 010041-01-01221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